

다름의 시너지 우리의 시작점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사례집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팀 사례집

다름의 시너지 우리의 시작점

CONTENTS



교육

고무신 컴퍼니 협동조합	10	(가칭)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18
코드젤리 협동조합	12	(가칭)자립청포도 사회적협동조합	20
코몬코몬협동조합	14	에키	22
(가칭)사회적협동조합 이룸	16		



녹색

나우 메이킹 협동조합	26	협동조합 옴피	36
레더리프 협동조합	28	(가칭)뉴에이지 사회적협동조합	38
문화예술제작소 공터 협동조합	30	(가칭)숲이랑 사회적협동조합	40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32	굳츠	42
협동조합 벌스데이	34	미지의 에너지	44



돌봄

도토리 마을방과후 사회적협동조합	48	(가칭)사회적협동조합 놀있다	60
부산진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50	꿈나무팀	62
행복하게 협동조합	52	(가칭)위인사회적협동조합	64
(가칭)경남거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54	(가칭)징검다리사회적협동조합	66
(가칭)나빛 평생교육 사회적협동조합	56	꿈꾸는우리	68
(가칭)대전 다누리 사회적협동조합	58	물만난사람들	70



문화예술

나눔소리 협동조합	74	협동조합 영상집단 봄날	86
따뜻한사진가 협동조합	76	협동조합 컨티뉴이티	88
문화예술협동조합 덤	78	(가칭)다함쿵 사회적협동조합	90
예술로위더스 사회적협동조합	80	(가칭)상상생생 사회적협동조합	92
오르골 협동조합	82	(가칭)스밌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94
협동조합 손에손에	84	문화예술 인큐베이팅 그룹 품	96



일자리

글로벌미용강사협동조합	100	(가칭)사회적협동조합 품에	108
폴크디자인협동조합	102	(가칭)해늘 사회적협동조합	110
(가칭)다시함시다 사회적협동조합	104	서울돌봄과살림	112
(가칭)단비 사회적협동조합	106		



지역사회

강원생활체육협동조합	116	협동조합 따손	130
고도협동조합	118	(가칭)가치울림 사회적협동조합	132
미나리협동조합	120	(가칭)상상나래 사회적협동조합	134
숲속식탁 협동조합	122	여행하다	136
예술이음플랫폼 협동조합	124	(가칭)하모니 협동조합	138
울산클린존 사회적협동조합	126	(가칭)해녀와바다 사회적협동조합	140
협동조합 굿스니저	128	동구씨	142



청년·제조

INFO마케팅 협동조합	146	스테이대구 협동조합	160
뉴웨이브 협동조합	148	와우하우스 협동조합	162
드림핸즈협동조합	150	협동조합 하이크리에이티브	164
딤메이커엔지니어스 협동조합	152	(가칭)장수청년사회적협동조합	166
리플래닛 협동조합	154	GN STUDIO	168
보령시민 미디어 협동조합	156	(가칭)인천청년협동조합 파랑새	170
비주얼랩협동조합	158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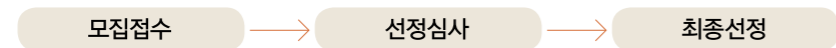
사업소개

청년 등 협동조합 예비창업자들의 준비된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지원규모

창업지원기관에서 총 100팀 선발

선정절차



신청자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법인을 신규 설립·조직변경하려는 자로,
최소 3인 이상으로 팀원 구성 및 참여

구분	세부 내용
신규설립	(사회적)협동조합을 신규 설립하려는 자 - 협동조합 신규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신청 당시 최소 3명 이상의 팀원이 구성되어야 함
연합회	(일반·사회적·이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협동조합 - 연합회 설립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으로, 창업팀 모집 공고일 당시 설립된 최소 3개소 이상의 팀원(협동조합)이 구성되어야 함
조직변경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려는 법인 -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에 결격사유가 없는 법인

지원내용

협동조합형 창업 프로그램

협동조합 설립 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사업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조직화**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에 부합하는 창업팀(발기인 모임) 만들기 지원
- **사업설계** 보유·연계 가능 자원 및 조합원 역량을 고려한 사업 설계 지원
- **법인설립** 정관·사업계획서 등 작성, 창립총회 개최, 설립등기 및 사업자 등록 등 행정 지원

사업비 지원

사업모델 구축 및 법인설립 등에 소요되는 초기 비용을 위해 창업팀 사업비 지원

- **기본사업비** 창업팀 당 기본 사업비 5백만원 지원
- **추가사업비** 사업 종료 시점 최종평가를 통해 창업팀 등급 확정 및 추가 사업비 지급 (1.5백만원+α)

※2021년도 기준



EDUCATION

함께 교육하고
함께 성장하다

- 고무신 컴퍼니 협동조합
- 코드젤리 협동조합
- 코몬코몬협동조합
- (가칭)사회적협동조합 이름
- (가칭)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 (가칭)자립청포도 사회적협동조합
- 예키





함께 하는 무용을 꿈꾸다 '고무신 컴퍼니 협동조합'

한국 무용과 융합된 콘텐츠로 무용의 접근성을 높이다

2021년 조직된 고무신 컴퍼니는 11월 고무신 컴퍼니 협동조합으로 다시 태어났다. 김홍주, 심민영, 박은진, 진민지, 문소정, 유미림 6명이 모여 조직된 고무신 컴퍼니 협동조합은 필라테스와 무용을 접목한 인재육성교육 사업을 바탕으로 예술인력 지원 및 예술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고무신 컴퍼니의 주요 사업 모델은 필빙댄스와 B&K이다. 필빙댄스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와 예술을 가미한 '한국무용'을 융합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B&K는 인내심과 정서에 도움이 되는 '한국무용'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발레'를 융합한 교육프로그램이다.

"우리 팀은 취업 취약계층인 무용 및 체육 전공 전문 교육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풍요로운 일상의 예술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민들에게는 전문교육 및 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노인들과 어린이들에게 꿈과 건강이 가득 찬 율동적 에너지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김홍주 대표의 설명이다.

함께 하는 무용을 통해 무용인들의 취업을 돕다

고무신 컴퍼니가 협동조합으로서 창업을 준비하게 된 까닭은 무용인들이 홀로 무용을 하면서 혼자 하는 수업, 혼자 하는 예술 활동이 아닌 함께 하는 무용을 꿈꿨기 때문이다.

김홍주 대표는 조합원이 서로 의논하고 의지해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

법인명 고무신 컴퍼니 협동조합
대표 김홍주
주요사업 예술인력지원, 예술교육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경기도 하남시

고, 취업이 어려운 무용인들을 모집하여 오랫동안 조직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본격적인 창업을 준비했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설립이 마음처럼 쉽지는 않았다. 처음 함께 조합을 설립하고자 했던 조합원들이 협동조합을 공부하면서 떠나기도 했다. 이처럼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하고 있을 때,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이 큰 힘이 되었다.

과정이 복잡하고 처음 하는 일이라 협동조합에 대해 공부하는데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 사업에 사용할 프로그램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지만,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고 있다.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서류가 어려웠지만, 멘토님께서 도움을 주셔서 그 어려운 서류들을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조언해주시고 알려 주셔서 등기까지 접수할 수 있었어요. 멘토님의 경험에서 비롯된 조언들이 붙임 창업 준비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생활 속 무용, 노인층 삶에 활력될 것

고무신 컴퍼니는 조합 설립 후 진행할 사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며, 교육 커리큘럼 제작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자신들과 함께 꿈을 이룰 예술 강사도 모집하고 있으며 시청 등에서 진행되는 평생교육 부문과의 연계도 시도하고 있다.

"조합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조합원이 같이 하면서 함께 목표했던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설립 허가증이 나왔을 때 너무 기뻐했습니다."

고무신 컴퍼니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사업 전개 및 확장을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커리큘럼 연구를 위한 교육 수강을 통해 조합원들의 역량은 한층 강화됐다.

또한, 수업 홍보지, 홍보영상, 법인설립 등을 통해 '고무신 컴퍼니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업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고무신 컴퍼니는 지역사회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권장된다면 누구나 건강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생활 속에서 무용을 함께 한다면 노년 생활에도 큰 활력소가 되어 우리나라 노인 문제, 실버산업 확장 해결에



고무신 컴퍼니는 최고 수준의 건강·예술 교육, 이상적인 조직력,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도 평생교육으로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딩을 재미있게, 만화로 배우다 '코드젤리 협동조합'

코딩, 만화로 배우다

법인 설립 전 '런바운드'라는 이름으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코드젤리 협동조합은 만화로 배우는 파이썬 코딩 언어 학습지 '하루 습관 학습지'를 활용한 교육 커리큘럼을 사업 모델로 삼아 누구나 쉽게 코딩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코딩은 명령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C언어, 자바(JAVA), 파이썬(python) 등의 프로그래밍 언어로 입력하는 과정을 뜻하고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뜻한다.

코딩이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빅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변하는 모든 것이 ICT(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되기 때문이다. 영국, 일본, 이스라엘 등은 코딩을 정규 과정에 편입시켜 교육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소프트웨어교육(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같은 코딩 교육은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 문제해결능력을 발달시킨다. 때문에 코딩을 재미있게 익히고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

코딩 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생각하다

코드젤리 협동조합은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정준우 대표와 페스트캠퍼스 기업교육팀 운영 매니저 및 실습 코치인 김민기 직원, 동국대 융합소프트

법인명	코드젤리 협동조합
대표	정준우
주요사업	컴퓨팅 사고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코딩교육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웨어 전공자 김태환 직원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조합이다. "2019년 부터 런바운드란 이름의 팀으로 활동하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및 앱 개발을 비정기적으로 해왔어요. 정기적으로 코딩 교육으로 사회적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협동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정준우 대표의 말이다.

코드젤리 협동조합은 2019년부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IT 관련 교육 사업을 하고 있었던 만큼 협동조합을 통해 그러한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싶었다.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정준우 대표는 자신을 비롯해 5명의 발기인을 모집하고, 만화로 배우는 파이썬 코딩 언어 학습지 '하루 습관 학습지'의 제작을 완료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 학습지는 비대면 1:1 플립 러닝 강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화의 경우, 설록홀츠 마자랭의 보석을 바탕으로 외주사에서 그림을 제작하고 있다.

코드젤리 협동조합은 하루 습관 학습지 시범 수업을 통해 무료로 강의 진행하며, 자신들의 하려는 사업에 대한 개선점 도출하고, 페스트캠퍼스 강의정 멘토에게 개선사항을 피드백 받아 적극 반영했다.

사업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의 도움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정준우 대표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처음인 만큼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일반적인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며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이 위의 문제들은 물론 사업에 대한 조언까지 광범위한 도움을 주어 협동조합 설립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협동조합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한 설명도 코드젤리 협동조합가 목표의식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조합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던 덕분에 신속한 소통과 체계적인 역할 분배가 가능했던 점도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었던 원인이다.

기존 코딩 교육과의 차별성 확인, 조합원의 경험과 실력향상 큰 보람

코드젤리 협동조합은 조합을 설립하며 ▲ 암기 없이 부담 없이 쉽고 재미있는 교육 ▲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집중해서 사고해나가는 과정 중심 교육 ▲ 컴퓨팅 사고력 기르기를 통한 코딩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꿈꾸는 것을



스토리텔링 식의 재미있는 교육과 내용을 응용할 수 있는 문제 풀이를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컴퓨팅 사고력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코드젤리 협동조합의 목표입니다!

실현 시킬 수 있는 교육 ▲ 스토리텔링 식의 재미있는 교육을 목표로 삼고 즐거운 코딩 교육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정한 교육의 가치를 알려주는 교육 사업을 목표로 했던 만큼 실제 사업 준비 과정에서 암기식 교육으로 인해 생겼던 기존 코딩 교육과의 차별성이 보였을 때, 그 과정에서 수익뿐만 아니라 조합원의 경험과 실력향상을 이뤘을 때 가장 보람 있었습니니다."

코드젤리 협동조합은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 암기나 부담 없이 쉽고 재미있는 코딩 교육을 꿈꾸고 있다. 교육을 위해 청년강사를 모집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비용을 낮추고 청년 취업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소외된 지역 학생들에게 코딩 교육을 진행하다 '코몬코몬협동조합'

코딩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생각하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함께’, ‘같이’라는 단어를 몸으로 느꼈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고맙다고 이야기 하고 싶고, 물심양면 지원해주는 창업지원기관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2021년 4월 조합 활동을 시작한 코몬코몬협동조합은 컴퓨터 공학 전공 학생들, 프로그래머 등이 모여 IT 정보화 교육에 대한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 조직됐다.

코딩 교육 사업, 코딩 교육에 필요한 교보재 및 키트 판매 사업 전반을 다루는 코몬코몬협동조합은 최근 중요해진 코딩 교육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정규 교육과정에 코딩이 들어가면서 이에 맞물려 코딩 교육에 대한 사교육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다. 수도권과 대도시에서는 학교에 코딩 교육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하며 사교육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도시 외곽지역의 학생들은 제대로 된 코딩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코몬코몬협동조합은 이러한 학생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해소를 위해 창업을 결심했다.

코딩으로 이루어진 세상, 코드를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다.

“이 세상은 지금 코딩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

법인명 코몬코몬협동조합
대표 송원호
주요사업 코딩 교육 및 교보재 판매 사업
설립연월 2021년 9월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TV, 에어컨까지, 우리는 다수의 코드로 이루어진 기기와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속에 살아가면서도 코드를 전혀 배울 수 없는 환경이 존재합니다.” 송원호 대표의 말이다.

코몬코몬협동조합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지역은 대구다. 경상북도 쪽의 학교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코몬코몬협동조합의 판단이었다.

송원호 대표는 창업을 준비하던 중 여러 코딩 교육 강사분들과 동등하게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협동조합 형태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창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저희는 커리큘럼을 창조하고, 다듬기 위한 자금과 홍보, 네트워킹을 위해 지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더군다나 강사분들에게도 다양한 불편함이 존재했기에 학습자와 교육자를 동시에 케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동조합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송원호 대표의 말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코몬코몬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지원 기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 창업과 설립 절차, 형태 등이 많이 달랐고 생소했다는 것이 송 대표의 설명이다.

창업지원사업을 통해서 협동조합 교육, 멘토링, 그리고 창업지원기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윤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사회적경제 생태계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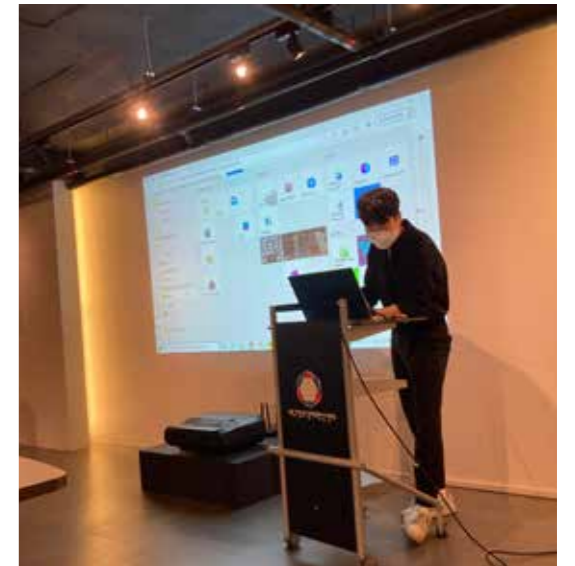
코드 속 사람들의 코드 이해를 돕다

코몬코몬협동조합은 현재 협동조합 창립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올 10월부터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유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부분에서 매출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몇 번의 무료 강의를 통해 수요를 검증은 마친 상태로 코딩 교육 레퍼런스를 쌓고 공교육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다.

코몬코몬협동조합은 앞으로 코딩 교육을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는 경상북도 내 고등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후 지역을 확대하면서 연령대 또한 확장시켜 갈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는 이미 코딩과 밀접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코딩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코몬코몬협동조합은 코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코드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가꾸어나 갈 수 있는 원동력



이 세상은 지금 코딩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TV, 에어컨까지, 우리는 다수의 코드로 이루어진 기기와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드속에 살아가면서도 코드를 전혀 배울 수 없는 환경이 존재합니다.

이 되어서 거라고 믿으며, 코드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교육소외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다 '(가칭)사회적협동 조합 이룸'

현장직에서 얻은 경험, 사회적협동조합 조직의 발판이 되다

(가칭)사회적협동조합 이룸(이하 '이룸')은 2021년 1월부터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모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후 교육 영상 콘텐츠 개발을 사업 분야로 확정하고 자신들의 사업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하고자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이룸의 팀원들은 김해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들이다. 이들은 각 센터에서 경력을 쌓고 있으며 담당 프로그램 및 사업들을 맡으며 열중하고 있었다.

“사회복지 현장직에 있다 보니 여러 사회의 문제나 수요자의 필요성, 욕구 등에 대한 체감이 훨씬 빠르게 느껴졌어요. 현장에 대한 고민과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의견이 모여 사회적 가치를 변화시키고 이루고자 '(가칭)사회적협동조합 이룸' 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나령 대표의 말이다.

이룸은 팀을 결정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면서 발생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교육 결여 발생과 가정에서 무료한 삶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 영상 제작을 꿈꿨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 및 복지기관의 공통육구 맞춤형 '온라인 랜선 클래스룸 사업'을 계획했다. 영상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영상 교육에 필요한 활동 준비물 및 활동자료 준비해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원하는 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팀명 (가칭)사회적협동조합 이룸
대표 김나령
주요사업 교육영상 콘텐츠 개발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경남 김해시

지역아동센터 등 필요 콘텐츠 개발

이룸은 아이들이 환경이나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나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모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이룸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사업모델과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창업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이룸이 걱정하였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김나령 대표의 설명이다. 김 대표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협동조합의 미션과 비전을 세우기, 협동조합의 사업에 대한 계획세우기, 협동조합 정관 완성하기, 협동조합의 가치에 동의하는 조합원 추가 모집 등이 목표였다.”라고 말했다.

이룸은 현재 자신들이 계획했던 교육 영상 촬영 및 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신나는조합에서 사업계획 과정의 내용들을 공유하며 피드백 해주고 있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며 사업계획을 준비 중이다.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어려움도 있었다. 이룸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목표였지만 자신들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두고 주사업과 부사업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모인 팀원들과 함께 사업과 방향성에 대해서 의논하고 실제로 촬영 및 편집을 하며 교육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지원기관이 다양한 교육을 해주고 멘토링을 진행해주었어요. 사업 진행 시 참고할 수 있는 협동조합 운영사례를 소개해 주며 어떤 필요성으로 어떤 가치를 두고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조언해주었을 뿐 아니라 자금조달 방법,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사회적협동조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교육을 받은 덕분에 창업을 잘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룸의 목표이자 미션은 소외 계층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아동센터 등의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또한 이룸은 플랫폼을 이용해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콘텐츠 활용에 대한 수익적 구조를 만들어 돕고자 한다.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벌어지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지역아동센터
등의 교육 콘텐츠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도
이룸이 하고 싶은 일이다





놀이를 통해 교육 예술을 실현하다 '(가칭)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무엇을 하던지 놀이' 아이들의 성장을 돕다

어린이와 예술가가 만나는 시너지를 원료로 예술축제 기획 설치 및 퍼포먼스 진행, 어린이 생태놀이터, 어린이예술창작캠프 기획 및 진행하는 어린이날다 협동조합은 2014년 설립되어 올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꾀했다.

(가칭)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어린이날다')의 정채민 대표는 어린이들이 예술을 놀이로서 만나게 되면 환경과 재료를 즐겁게 받아들이고 탐색과 몰입을 즐기게 된다고 말한다. 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창의적인 아이로 성장한다. 어린이날다는 어린이문화 예술을 주도하는 단체로서 예술을 놀이처럼 하자는 의미로 '놀이'를 키워드 삼아 주요 활동미션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언제든 어디서든 무엇을 하던지 놀이'가 우리 회사의 미션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즐겁게 세상을 배우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성장을 돕기 위해 축제기획, 어린이예술교육, 생태놀이터 기획, 환경보호 프로젝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채민 대표의 말이다.

조합원이 하나로 뭉쳐 조직변경을 진행하다

오랜기간 어린이들의 예술적 정서함양을 위해 노력해 온 어린이날다는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진행했다.

정채민 대표는 “어린이날다가 진행하는 주사업이 모두 공적사업 안에 있

팀명 (가칭)어린이날다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정채민
주요사업 어린이예술축제, 생태놀이터, 예술창작캠프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다. 협동조합임에도 배당을 하지 않겠다는 조합원의 약속, 공공을 위한 사업에 대한 열망 등이 합쳐져 조직 변경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직변경에 대한 논의에서 조합원들도 모두 하나의 마음으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어린이날다의 성격과 더 잘 맞는다는 것이 모아진 조합원들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과정은 생각보다 어려웠다. 처음에는 시도조차 엄두가 안나는 상황이었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과 조언, 멘토링을 받으며 원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었다.

어린이날다는 사업에 참여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과 자주 모여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통해 조직을 더욱 체계화하고 단단히 만들어 갈 수 있었다는 것이 정채민 대표의 설명이다. 조합의 소소한 일에서 자발적인 참여하고 힘을 합쳐 처리하는 등 어린이날다에 대한 조합원들의 애정도 더 커졌다.

“지난 시간과 다르게 협동의 힘이 커진 만큼 조합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기대가 큰 상태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확대할 것

어린이날다는 올해만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모두의 숲 '동근해가 났습니다',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그루버 지원사업 '그루버 & 어린이 그루버',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축제 '온마을 상상 기억해', 안산 거리예술 축제, 광주 도시재생 축제 등을 진행했다.

어린이날다는 앞으로 어린이의 순수성과 창의성이 대중들과 어우러진 지역 예술축제를 만들어 가며 수준 높은 어린이문화예술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역 문화예술교육 및 축제를 통해 지구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자연과 생태에 대한 창조적 예술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함으로써 지구 생태계 파괴의 속도를 늦추고 중국에는 멈추는데 앞장서기 위한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어린이 예술축제의 수준을 높이고 자연과 생태에 대한 창조적 예술 표현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어린이날다는 앞으로 어린이에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세심하고 위로가 되는 예술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예술로 인해 공동체가 화합하고 구성원의 행복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다 '(가칭)자립청포도' 사회적협동조합

보호종료아동들의 커뮤니티 필요성을 느끼다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건강한 자립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중요한 것은 가르치고 도움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커뮤니티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길건혁 대표의 말이다.

(가칭)자립청포도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자립청포도')은 지난 2018년 겨울 10여 명의 보호종료아동을 만나게 된 것을 계기로 자립의 과정에서의 고충과 힘든 부분을 돕기 위해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며 더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커뮤니티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자립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21년 3월에 팀을 구성해 (가칭)자립청포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자립청포도는 현재 필수로 시행해야 하는 시설 안에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교육 프로그램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창출된 수익을 퇴소 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교육 프로그램과 자립 키트 등을 통한 물리적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인식개선 교육을 운영해 사회와 기업 안에 잘못 알려진 보호종료아동에 관련한 이미지를 환기시켜 이들이 차별 없이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 예정이다.

- 팀명 (가칭)자립청포도 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길건혁
- 주요사업 자립교육, 인식개선 교육
- 설립연월 준비중
- 소재지 경기도 양주시

더불어 각종 상담, 심리치료, 멘토링 등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생활의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적 자립 지원을 하고 마지막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들만의 소통 공간을 마련해 사회적 자립 지원을 제공하는 계획이다.

비영리단체의 수익구조에 대한 한계 극복하다

그러나 창업과정에서 어려움은 물론 있었다. 시작 자체가 비영리단체였기 때문에 봉사의 개념에 무게를 두고 운영하다보니 별다른 수익이 없이 후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플리마켓과 같은 작은 행사나 개인 후원을 통한 수익으로 단체를 유지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해결방안을 찾던 차에 수익사업과 후원사업을 동시에 해나갈 수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립청포도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나아가 사회적기업으로서의 기반을 준비하고자 한다. 비영리단체의 수익구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 체계를 탄탄하게 준비해서 요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립교육과 그 수익을 통한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의 기틀을 마련해주는 선순환의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에 현재 창업지원기관을 통한 창업 멘토와의 멘토링이 마무리된 상태이며, 법인 인가를 위한 정관과 관련 서류들을 정리하는 중이다. 그중에 단체명에 관련해서 이름이 너무 길고 어렵다는 멘토의 의견을 수렴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립청포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하고, 사업의 포커스도 자립과 인식개선 교육으로 정하고 구체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길 대표는 “창업을 진행하면서 조직을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어려움이 있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설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무엇보다도 ‘사회적협동조합’과 관련한 지식이 거의 없다 보니, 이전까지 익숙했던 구조를 협동조합의 구조로 변경하는데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고 전했다.

협동조합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다

이 과정에서 창업지원사업을 통한 전문가 멘토링의 도움이 컸다. 자세하고 세심한 도움을 통해서 정관과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었고,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회계 관련한



궁극적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보호종료아동들을 중심으로 한 건강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이들뿐만 아니라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큰 꿈입니다.

교육이나 협동조합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등이 사업 구상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창업이라고 함은 이제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영리단체 때보다 본격적으로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 이 일에 실천적인 경험과 열정을 쏟아 부어야하며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보호종료아동들과 관련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명감 같은 것이 더욱 생기는 것 같습니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및 문제 인식과 관련해 사회적인 관심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다는 자립청포도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많은 보호종료아동들에게 든든한 지지체계가 되어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고자 소망한다.



성 및 연인관계 교육에 관한 안전하고 재미있는 학습공간을 만들다 '에키'

팀명 에키
대표 송예지
주요사업 교육 서비스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서울시 은평구

자유롭게 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성과 관련해 잘못된 의사소통, 그리고 오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한국 사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서 관찰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을 주제로 한 대화가 자연스러운 대화 주제로서 꺼려지는 현실을 보며 그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에키는 CEO인 아니아의 개인적인 동기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이다. 아니아는 10대였을 때 부모님이나 학교로부터 충분한 성교육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 스스로 관련 서적을 찾아 시작했다. 아니아는 이 과정에서 운 좋게도 기초에서 심화에 이르는 몇 권의 책을 발견했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와 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여러 책들과 스스로 학습하려는 노력은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고, 의식적으로 존중과 동의를 기반으로 한 성관계를 갖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포르노나 영화와 같은 외부 매체들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아니아의 설명이다. 아니아는 “성교육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이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매체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면서 “그런 순간마다 저와 저의 파트너, 그리고 친구들에게 더 많은 성교육의 필요성 역시 함께 느꼈습니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과 온라인 매체들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고, 아무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이 시기에 에키 프로젝트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느꼈던 것이다.

루시아 또한 아니아와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자랐다. 사촌과 형제들 중 맏이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성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조언을 구할 곳이 없었으며, 많은 순간 길을 잃은 느낌이었고, 그 순간들은 자존감을 잃게 만들었다.

루시아 역시 이 주제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알아가기 시작한 것은 독서와 소셜 미디어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특히 에키가 만들어진 이후 혼자라고 느끼거나 평가 당한다고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느낀 바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 때문에 에키를 더욱 지지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제공

에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에 편안하고 건강하고, 존중하며, 즐거운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툴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수 천명의 사람들에게 성과 개인적인 관계들에 있어 팀원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전달하고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포괄적인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가치가 중심이 되고 팀 내에서 권리와 책임이 동등하게 분산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플랫폼은 커뮤니티 안에서 공유되고 특정한 소유자를 갖지 않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그것은 무언가 혁신적인 것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협동조합 설립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민주적 구조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치려는 동기에 기본이 된다고 생각해서다. 또한 애플리케이션을 공동 설계하면 서로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 다양한 솔루션을 함께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쉽게 성교육에 접근하기를 바라

에키는 성교육과 연인관계 교육에 대해 배우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이 쉽고 개인화된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더불어 궁극적인 목표는 iOS와 Android와 같은 시스템을 위해 구축된 네이티브 앱을 개발하는 것이다.

송예지 책임자는 “모바일 앱 개발 프로세스에서는 아이디



사용자들이 독학적이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게임화된 앱을 통해, 친밀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플랫폼은 각 사용자의 연령과 요구에 맞게 조정되며, 현재 교육이나 온라인 자원이 다루지 않은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을 시작 지점으로 유럽으로 플랫폼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어를 성공적인 앱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목표를 정의하고 제품 로드맵을 분석하고 준비했다”면서 “피드백을 받고 특징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잠재적 사용자와 테스트한 아이디어의 두 가지 프로토타입 앱을 개발했다”고 전했다.

결과물은 내년 2월중 첫 번째 MVP앱에 출시될 예정이며, 내년 10월 내 Full Launch 진행될 예정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성교육과 연인관계 교육을 제공해 사람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성관계 교육을 제공받고 존중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에키는 고품질의 삶의 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쉽게 성교육에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GREEN

환경과 바른 생태계를
생각하다

나우 메이킹 협동조합

레더리프 협동조합

문화예술제작소 공터 협동조합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협동조합 벌스데이

협동조합 옴피

(가칭)뉴에이지 사회적협동조합

(가칭)숲이랑 사회적협동조합

곤츠

미지의 에너지



NOW MAKING BRAND GUIDELINES

V1

P10

작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화장품 협동조합을 꿈꾸다 '나우 메이킹 협동조합'

천연 화장품 제작과 재능기부를 하다

2020년 3월, 담미원이라는 이름으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한 나우 메이킹 협동조합은 천연 화장품과 천연 화장품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등을 운영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났다.

서미주 팀장은 화장품 브랜드인 'mo.ment'이다. 육나영 팀원은 화장품 산업전문을 전공했고, 김용건 팀원은 마케팅을 맡고 있다.

나우 메이킹 협동조합은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천연원료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화장품 텀블러를 사용해 일회용 사용을 줄이고 화학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천연화장품을 제작 중이다.

“매일 쓰는 기초제품에 대해 내가 직접 만들고 좋은 재료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로운 소비를 만들고 싶었어요. 또한 기초수급자, 노인, 다문화 가정, 생활제품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재료로 샴푸, 린스, 비누 등 만들 수 있게 원데이 클래스를 하며 재능 기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창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서미주 대표의 말이다.

꿈임없는 선택 과정, 힘들지만 보람돼

그러나 창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며 결정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정해진 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답을 만들며 나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팀원들과의 소통이 힘들

법인명 나우 메이킹 협동조합
대표 서미주
주요사업 화장품
설립연월 2021년 10월
소재지 대구광역시 서구

기는 했지만 창업을 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애로사항이었다고 서 대표는 전했다.

서 대표는 아직은 작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화장품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다른 협동조합인 서울우유, 농협처럼 말이다.

이를 위해 나우 메이킹 협동조합은 스토리텔링,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만의 의미를 전달하는 제품을 기획 중이다. 하지만 조합이 추구하는 것과 고객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협동조합으로서의 의미를 조합해 3개의 의미를 함축시키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원, 외주 디자인 업체 등과 수많은 질문을 던져 의미를 찾아냈고, 지금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아무것도 없던 백지에 의미있는 그림들 그려져

이 과정에서 창업지원사업이 큰 도움이 됐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백지 같은 느낌이었지만 대구강사협동조합의 멘토들께서 많이 도와준 덕분에 생각했던 의미의 그림들이 그려져 나갔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힘들기는 했지만 보람되고 뜻깊은 경험을 했다.

서 대표는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조합원끼리의 모임에 불과했을지도 모른다”며 “지원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는 계획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지원금, 창업멘토링 등 창업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배워야 했던 청년들의 지원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어떤 누군가는 현재의 우리를 보고 협동조합의 의미와 이름 하나만 지었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많은 시간과 소통으로 나우 메이킹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이어서 더욱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나우 메이킹 협동조합은 그동안 의미 없는 제품들은 많이 나올 수 있었지만 제품 하나하나 의미를 만들어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야 그 첫발을 내딛었다고 표현한다.



청년이라면 한번은 해야 하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니깐요.



선인장 가죽 공예 제품으로 비거니즘 문화의 확산을 돕다 '레더리프 협동조합'

선인장 가죽과의 만남, 조합 설립으로 이어지다

레더리프의 이예은 대표는 건축을 전공했지만 현재는 선인장 가죽 관련 기획 일을 진행하고 있다.

레더리프는 비거니즘의 확산을 미션으로 조직됐다. 이를 통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의 가죽이 아닌 선인장 가죽을 소재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우연히 선인장 가죽에 대한 소개한 기사글을 보게 됐었어요. 관심이 생겨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 나도 모르게 가죽을 구매했지요. 생각보다 대량의 가죽이 배송되어 이 가죽을 어떻게 사용할까 고민하며 그 과정을 SNS에 공유했어요. 이렇게 선인장 가죽과 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예은 대표의 말이다.

이예은 대표는 선인장 가죽을 사용하는 과정을 공유하며 자신이 만든 상품을 펀딩해 보기로 결정한다. 당시 휴직 중이었기에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 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한 펀딩은 레더리프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창업이라는 어려움 속 목표가 되어준 지원사업

자신이 취미로 하던 소소한 일에 점점 재미를 느낀 이예은 대표는 회사 창업을 결정하게 된다.

“사실 소소한 사업이었기에 창업을 준비하며 사업적으로 힘든 점은 없었다. 솔직히 말하면 별 의지 없이 시작한 사업이었기에 구성원들의 마음을

법인명 레더리프 협동조합
대표 이예은
주요사업 선인장가죽을 이용한 공예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모으는게 많이 힘들었어요.”

이예은 대표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지원사업이 끝날 때까지 생존하자’라는 간단하지만 중요한 목표를 수립했다.

이렇게 진행된 협동조합 창업은 10월 협동조합 설립 신청서를 제출하고 11월 최종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을 진행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험난했다. 무엇보다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

멘토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고, 비슷한 과정을 겪은 선배들도 존재하지 않았다. 구글링 또는 법무법인 등 전문가의 유료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지만 정보를 얻고 취합하는 것은 매번 어려웠다.

비거니즘 문화 확산에 도움 되고파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지원사업이 9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지원사업에서 제공한 지원금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또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도 끝까지 창업에 성공해야겠다는 동기가 생겼어요. 지원사업이 진행 되는 동안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최근 레더리프의 제품이 잡지 2곳에 소개됐다. 큰 성취라고 부르기에는 아쉬움이 있지만 레더리프를 통해 비거니즘 문화가 대중 매체에 언급될 수 있었기에 나름 보람있는 성과였다는 것이 이예은 대표의 설명이다.

창업을 준비하고 기업을 운영하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하지만 이예은 대표는 자신의 목표가 회사의 목표가 된 만큼 비거니즘 문화의 확산에 일조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비건이 될 순 없지만 의식적으로
동물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옳다고 느껴지는 문화가 공유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마술 공연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다 '문화예술제작소 공터 협동조합'

다양한 환경 콘텐츠를 제작하다

지난 2021년 5월 정지희 대표 외 마술사, 업사이클링 강사, 그림책 놀이 강사 등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문화예술제작소 공터는 환경의 소중함을 마술이라는 퍼포먼스와 Eco-play로 보여주고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협동조합이다.

퍼포먼스 마술공연과 다양한 재활용품을 활용한 새활용 놀이도구 제작, 놀이체험 활동 등을 사업 분야로 설정하고 '코끼리 공장'과 '우시산'을 롤모델로 삼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지희 대표는 환경활동가는 아니지만 마술사로 결성된 팀의 장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환경 콘텐츠를 만들면 어떻게 고민하던 중 창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물리적인 거리로 인해 소통이 힘들었다고 토로한다. 3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술사로 구성된 팀인데다 울산에 대표사 업장이 있다 보니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이다.

이에 3개월 정도는 격주로 2박3일 함께 숙박하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를 통해 완성된 환경 가치 교육프로젝트를 실행한 후 콘텐츠를 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환경의 소중함을 알리고 있다.

마술사의 시선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다

문화예술제작소 공터는 마술사의 시선과 생각을 통해 재미있는 콘텐츠

법인명 문화예술제작소 공터 협동조합
대표 정지희
주요사업 환경가치교육 콘텐츠
설립연월 2021년 9월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를 제작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프로젝트 플랜을 구상하면서 제작 및 실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많은 시간을 소요했지만 큰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러던 중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의 멘토링을 통해 방향을 찾고 프로젝트 기획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도움을 받았다.

"각자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술사들로 인력을 중요함을 느껴 4명의 마술사가 모여서 무언가를 하자고 계획하던 중에 지원사업에 채택되었습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마술로 환경 콘텐츠를 만들어 조금이라도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정지희 대표의 말이다.

더 다양한 퍼포먼스로 환경 보여줄 것

문화예술제작소 공터의 조합원들은 더 다양한 마술과 콜라보된 업사이클, 리사이클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현재 조합원들 모두가 업사이클 지도자 자격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더불어 환경에 관한 교육 콘텐츠를 마술 퍼포먼스, Eco-Play로 만들어 아이들이 체험형으로 공연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퍼포먼스로 환경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 문화예술제작소 공터의 꿈이다.

이론으로 배우는 환경의 중요성 보다는 직접 체험하며 알게 되는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공터는 사람들에게 환경의 소중함, 올바른 분리배출법에 대해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마술사가 가진 강점 표현만으로 자연스럽게 환경의 소중함을 보여주면 재밌게 즐기면서 재활용품을 활용한 새활용의 환경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지킬 수 있게 알려 주는 것이 목표이다.



우리는 환경활동가가 아니라서 이론으로 사람들에게 환경의 소중함, 올바른 분리배출법에 대해 어렵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마술사가 가진 강점 표현만으로 자연스럽게 환경의 소중함을 보여주면 재밌게 즐기면서 재활용품을 활용한 새활용의 환경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구를 지킬 수 있게 알려 주고 싶어요.





파주해를 하늘에 띄워 기후 위기를 극복하다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기후 위기에 대해 대응하는 개인의 활동을 생각하다

태양광발전기업 운영,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 운영, 지역의 협동조합신문 종사자, 온라인 유통업 등 다양한 활동을 하던 이들이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쳤다.

이들은 ‘시민들이 주도하여 햇빛발전을 확대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미션 아래 재생 에너지 생산 및 이와 관련된 교육 문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고, 개인들이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햇빛발전협동조합 결성을 하게 되었어요.” 임현주 대표의 말이다.

이들은 창업에 뜻을 모은 이후, 실질적인 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창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계와 법인 등록 등 행정 작업에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들었다. 손에 익지 않은 일을 하다 보니 생각지 못한 시행착오도 발생했다.

팀원들의 열정, 조합 설립의 바탕이 되다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은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조합 설립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지원사업의 일부인 재정 지원으로 리플릿 제작과 등기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받아 자신들의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갈 수 있었다.

물론, 창업을 준비하며 어려운 점도 많았다. 코로나 등으로 대면 활동이 불

법인명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대표 임현주
주요사업 태양광 설치 및 재생에너지 교육 문화활동
설립연월 2021년 10월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가능했던 까닭에 발기인을 모으기도 어려운데다 홍보차 기획했던 ‘햇빛장’이 무산되어 아쉬움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미팅 이후 매주 만나면서 뜻을 조율하고, 준비 팀원 모두 태양광 발전에 대한 교육을 받는 등 조합원들의 열정은 파주해가 조합을 설립하는데 매우 큰 힘이 되었다.

1만 조합원을 가진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을 꿈꾸며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창립은 지난 10월 헤이리의 한 카페에서 창립대회를 가졌다.

파주해는 이때 파주 출판단지 내 민간 건물에 ‘파주해 1호기’를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을 밝혔다. 만약 파주해의 계획대로 파주해 1호기가 설치된다면 70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의 파주해는 17명의 조합원이 함께 하지만 중국에는 48만 파주 시민들에게 우리 조합이 널리 알려져 1만 조합원을 가진 명실상부한 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이 되길 꿈꾸고 있다.



일류는 세상을 지키지만, 삼류는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멋진 삼류, 뭉친 우리가 지구를 살리자.





꿀벌을 통해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다 '협동조합 벌스데이'

꿀벌이 사라지고 있다

“우리 협동조합 벌스데이는 꿀벌이 사라지고 있는 심각성을 우리 아이들과 이웃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벌스데이 이경준 대표의 말이다. 벌스데이의 주요 사업 모델은 ‘꿀벌 교육 및 도시양봉’으로 꿀벌의 생김새 및 생태 주기별 특징 등에 관한 강의를 통해 도시 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꿀벌이 환경에 담당하는 역할에 대해 알리고 있다.

꿀벌의 중요성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인류에게 필요한 전 세계 100대 농작물 중 71%가 꿀벌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식물에게 꿀벌을 없애서는 안 되는 존재이다. 하지만 이러한 꿀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꿀벌이 사라지면 다양한 농작물들이 멸종하고 이러한 상황은 인간의 위기와 연결된다.

'척척박사 꿀벌강사' 교육생 주축, 협동조합을 건립하다

벌스데이는 2020년 서울시 사회적경제활성화 2.0 성동구 주민기술학교 '척척박사 꿀벌강사' 교육생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조합이다. '척척박사 꿀벌강사' 교육을 이수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협동조합을 구축해 꿀벌 강사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에 자연스럽게 벌스데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립된 벌스데이이지만 처음 진행하는 협동조합 창업인 만큼 어려움도 많았다. 일반회사, 혹은 주식회사 등과는 다른 설립방식에 창업 과정에서 고려할 것도 생각할 것도 많았다.

법인명 협동조합 벌스데이
대표 이경준
주요사업 꿀벌 생태 교육
설립연월 2021년 10월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경준 대표와 조합원들은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통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적극적인 조언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

“창업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지원기관의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설립에서 어려운 점은 정관에 대한 이해인데, 이 부분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 주신 점이 좋았습니다. 지원금도 회사 설립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경준 대표가 말했다.

사업에 참여하면 이경준 대표는 발기인을 모으고, 출자금을 마련하여 조합 설립에 총력을 다했다. 설립 이후에는 조합원들의 역할 분담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벌스데이는 10월 중 사업자등록을 마무리하고 조합 이사장을 비롯하여 각자 역할이 나누어 활동하고 있다. 성동구의 지원으로 사무실 구축을 완료했으며 협력기관을 통해 온오프라인 꿀벌 강의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통해 직접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완료한 만큼 조합 설립이 완료된 지금 이 대표와 직원들은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꿀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꿀벌과 환경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는 꾸준히 꿀벌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모두를 행복하기 만들기 위한 협동조합이지만 주식회사든 창업의 본질은 수익을 창출하고 해당 조직의 영속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벌스데이는 우리 환경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회사로서의 안정성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업사이클링 제품 통해 환경의 가치를 설명하다 ‘협동조합 옴피’

친환경적 제품 통해 환경문제 해소에 기여하다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도자기를 통한 환경문제 해소와 지역 문화 발전과 사회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현지 대표의 말이다.

지난 5월 조직된 협동조합 옴피는 깨진 도자기 업사이클링, 재활용 흙을 만들어 생활 제품제작 및 교육적 도자기키트 개발 등을 통해 도자기 제조 판매, 친환경적이며 도자기 제조를 통해 플라스틱 미사용을 권장하며 환경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모였다.

또한 도자기 만들기를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해 타 예술활동에 비해 접근하기 힘든 도자기 제작 활동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현지 대표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버려지는 도자기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면서 “그러던 와중 대구시 내에서는 도자기를 일반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는데 매립처리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알게 됐다”고 조합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깨지거나 버려지는 도자기를 업사이클링해 새로운 제품, 또는 작품으로 제작하면 업사이클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도 기여하고 또한 심미성을 가진 작품으로도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 게 시작이었다.

하지만 청년들로 구성된 팀에게 의욕과 아이디어, 젊음의 패기는 있었지만 막상 실천 가능한 지원금이 부족했다. 도자기 제조를 위해 재료를 구매하거나 가마소성을 하는 비용 등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고민하던 중 협

법인명	협동조합 옴피
대표	이현지
주요사업	친환경 도자기 제조
설립연월	2021년 9월
소재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알게됐고, 같은 목적을 가진 팀원들이 있어 지원하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었다고 이 대표는 전했다.

“현재 팀원들과 협동조합에 대해 기본 교육을 이수한 후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도자기 제조에서부터 판매, 소비자와의 연대감, 환경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관심 분야와 목적이 다양하다 보니 하나씩 목표를 잡아 달성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금방하고 저버리는 협동조합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친근하게 느껴지는 협동조합으로 크고 싶습니다.”

도자기 제품 판매 및 원데이 클래스 운영

협동조합 옴피는 대구시청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마치고 협동조합 사업자 등록을 앞두고 있다. 등록을 마친 후에는 자체적으로 흙을 제작해 도자기 제품을 만들고, 판매를 위한 패키지 제작, 제품촬영, 온라인 마켓 사업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원데이클래스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한 도자기 만들기 교육키트를 개발했다.

하지만 제조 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주 사업 수단이기엔 소비자 조사 및 판매처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토론했다. 우선 자체적인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며, 많은 홍보와 협동조합을 알리기에 적합한 클라우드 펀딩도 계획 중에 있다.

이현지 대표는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의 역할이 컸다고 말한다.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협동조합 과정을 함께할 수 있었고 도자기 판매처를 위한 정보도 제공해주 큰 힘이 됐다.

이 대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우리들만의 법인이 설립되었다는 점과 함께 지향하는 목표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 큰 수확”이라면서 “우리 팀원들이 원하는 친환경적인 업사이클링 도자기를 만들어 도자기 업사이클링에 대해 생소한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기쁨”이라고 강조했다.

공예품에 대한 인식 전환을 공유하다

더불어 협동조합 옴피는 업사이클링 제품이 비싸거나 질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식 전환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업사이클링 제품, 재활용 용품의 제작방식을 홍보하면서



창업에 대해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교육부터 사업비 지원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함께 성장해주는 창업지원기관에 감사를 느낍니다.

환경을 생각한 과정이라고 전달한다면 도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핸드 메이드 공예품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것이라 자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필수품에서부터 시작해 다양한 문화 예술적인 제품, 작품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공유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면서 공예품에 대한 인식도 높이고 환경보호에 대해 직접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망했다.



청년들을 중심으로 기후 위기 대응 활동에 참여하는 '(가칭)뉴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

마음 맞는 청년 3명, 환경 문제를 논하다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환경 문제 등을 알리고 인식시켜 함께 활동을 할 인재 등을 모으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가칭)뉴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뉴에너지') 이인호 대표의 말이다.

뉴에너지는 2021년 8월 마음이 맞는 청년 3명이 모인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9월 6일 에너지 분야 및 청년 사회적협동조합 지원사업에 발탁됐고, 예산 지원까지 받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비록 현재 사무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서울시 청년인턴사업을 겸해 환경연합건물에서 사무실 공간을 빌리고 있지만, 곧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떠오르는 창업아이디어 등을 정리해 실현 가능성을 두고 법인 설립까지의 과정을 올해 목표로 두고 있다.

뉴에너지의 구성원 중 토목을 전공한 팀장은 환경과 건축이 주된 전문분야이며, 홍보팀장은 환경공학을 전공해 환경을 살리기 위한 기술과 홍보물을 만들어 내고 있다. 협동조합에서의 근무 이력이 있는 기술팀장은 서울시 주최 환경에너지 분야 PM 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동조합, 그리고 에너지기술이 전문분야이다.

이처럼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설립 이후에도 무궁무진한 활약을 기대해도 좋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에너지 분야 사업 추진 및 일자리 상담 사업 진행

팀명	(가칭)뉴에너지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이인호
주요사업	전기·가스·충기·수도 사업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

뉴에너지는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우리가 직면한 환경문제를 알리고 인식시켜 함께 활동을 할 인재를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게 미션이라고 말한다. 또한 전태일 열사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세상을 떠난 김용균군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취업불황과 에너지 분야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고 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와 관련 있는 사업 등을 추진 및 목표로 두고 있으며, 젊은 청년들에게 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 상담과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인력을 지원해 소셜 업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주 모델로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청년 협동조합, 에너지 협동조합에 업무를 지원해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을 모델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년층에게 에너지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또한 힘쓰고 있다.

“저희는 에너지 분야 관련 사업이기에 직접적으로는 에너지 사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진행하려는 사업이 에너지 분야와 융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행하려는 사업이 청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 구상되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물론 생각지도 못한 아이템도 만들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성격 등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업지원사업 통해 예산 도움 및 전문지식 쌓고 있어

뉴에너지가 마음을 모으게 된 이유는 간단하다. 현 정부에서 에너지 관련 정책이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그 혜택은 소위 중장년층이나 상위층에게만 돌아가고 있어 청년층에겐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뉴에너지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활동은 아직 현재진행형이다. 수익으로 끌어내기 어려운 부분 등이 있는 게 현실이기에 좀 더 사업 아이템의 보완과 구성을 하여 청년들의 참여도를 끌어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발기인을 더 모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 대표는 “아이디어는 넘치지만 이를 통해 수익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경영적 부분이기에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경영을 생각해내는 부분은 저희에게 큰 과업”이었다면서 “이는 서울시민발절협동조합연합회의 조언과 컨설팅을 받고 고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만 조율이 된다면 성공을 향한 궤도는 얼추 갖춰진 상태”라고 자신했다.

특히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이 없어 진행되기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마라.
끊임없이 생각하고, 움직이고
노력하라. 성공은 운이지만 그 운은
행동해야 비로소 얻어진다.

어려운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창업 교육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진 부분 등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다만, 협동조합 조성에는 큰 금액과 함께 부지도 필요하며, 차후 지원사업에선 이 같은 부분 등을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뉴에너지는 주변 이웃에게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선한 기운을 전파해 좀 더 우리 사회가 청렴하고 깨끗하고 맑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뉴에너지는 0에서 1을 만들어 내며 협동조합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 앞으로 이들의 활동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이유다.



공공기관·기업 지원을 통해 숲체험 환경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내다 '(가칭)숲이랑 사회적협동조합'

소통하고 마음을 나누면 꿈은 이루어진다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함께 소통하고 공부하고 마음을 나누면 꿈은 이뤄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칭)숲이랑사회적협동조합(이하 '숲이랑') 나은경 대표의 말이다. 2021년 4월 첫 발기인 모임을 가진 숲이랑은 2021년 5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창업팀에 선정되며 11월 설립인가를 신청한 상태다.

숲이랑은 숲 체험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태감수성을 키우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구환경을 회복하는데 일조하는 것이 목적이다.

숲이랑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숲·생태·환경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자체 공모사업, 공공기관 프로그램,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연구, 개발, 제작 사업에 참여하며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학교와 공공기관, 지역아동센터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그들의 주요 사업은 숲·생태 체험교육, 기후·환경 교육, 텃밭 교육, 독서 교육, 강사양성 교육, 교재교구 개발 및 제작, 친환경 제품의 유통 및 판매의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숲체험, 생태환경교육, 기후환경교육, 도시농업교육 전문가인 나은경 대표를 비롯해 김경숙, 김해숙, 이효정 팀원들이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환경과 기후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환경과 기후에 대한 관심, 조합설립의 계기가 되다

조합 설립 전 나은경 대표는 개인적으로 또는 동아리를 만들어 숲·생태

- 팀명 (가칭)숲이랑 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나은경
- 주요사업 숲·생태·환경 체험교육
- 설립연월 준비중
-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체험교육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후 문제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공공단체, 교육단체, 법인단체 등이 체험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의뢰가 증가하면서 진지하게 법인 설립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마침 숲·생태·환경 부문에 대한 관심과 감사 자질을 갖추었지만 기회를 찾지 못해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들을 강사로 양성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에 회사를 설립하기로 했어요.” 나은경 대표의 말이다. 숲체험 환경교육은 어린 학생들의 생태감수성과 정서를 함양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교육이다. 예전에 비해 지자체와 교육기관들이 숲체험 환경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예산이 넉넉지 않아 일부 학교 또는 일회성 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운 실정이다.

숲이랑은 자신들이 조합을 만든다면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내어 더 많은 학교, 더 많은 학생, 특히 숲체험환경교육에서도 소외되기 일췌인 취약계층의 시민과 아동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조합 결성을 결심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진행하던 나은경 대표와 팀원들은 발기인 모임을 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막상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니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알지 못해 답답함을 느꼈다. 이때 운명처럼 지원사업이 공모 중임을 알게 됐다.

숲이랑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었다. 앞으로의 발전과 미션을 위해 사업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도 궁급했으며 무엇보다 올해 안에 조합 설립신고를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숲이랑은 사업에 참여하며 라이프매직케어 협동조합의 도움으로 조합 설립을 위한 멘토링을 지원받아 협동조합의 개념을 익히고 운영방법과 사업모델 등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고 사업계획서와 정관을 작성 중이다. 조합원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만큼 구성원들 사이에 창업의 목적과 목표를 두고 이견이 있었지만 서로의 상황과 생각을 이해하면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조합을 구현할 수 있었다.

나은경 대표는 “막연히 조합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원사업 덕분에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고, 설립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기업은 자원의 소비를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이익을 창출



우리 조합은 생태환경의 보전에 기업을 동참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생태환경교육의 변화는 물론 시민들의 생태감수성과 환경보전 의식을 바꾸는 나비효과를 가져올 것예요.

하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때문에 기업이 생태환경의 보전에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실천하도록 독려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숲이랑은 자신들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자신들의 노력이 생태환경교육의 변화와 생태감수성과 환경보전 의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굳츠’

폐장난감에서 시작된 아이디어, 매거진 발간으로 연결되다

11월 설립 예정인 굳츠는 지난 3월 이요라는 팀을 조직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해 왔다.

‘굳츠’의 아이디어는 매년 버려지는 수많은 폐장난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 아이들의 지루함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들은 폐장난감 업사이클링 기술을 활용한 가구 장난감을 제작해 폐장난감 문제의 해결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자신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매거진 제작을 우선하기로 결정한다.

“저희 가구 장난감은 여느 조립식 가구와 달리 가구를 조립하는 아이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재를 가볍게, 그리고 둥글둥글하게 디자인해 안전한 형태로 제작할 계획이에요.” 최지연 대표의 말이다.

굳츠의 가구 장난감은 조립 방식에 따라 의자도, 책상도 될 수 있는 다양한 가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작된 제품은 앉는 습관을 자연스럽게 갖도록 하여 훗날 아이가 적응해야 하는 책상 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이러한 가구 제작을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굳츠의 목적에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팀명 굳츠
대표 최지연
주요사업 문화·예술 매거진, 디자인 스튜디오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조합 설립·운영의 실무를 배우다

굳츠의 설립을 결심하고 조합원을 모으던 최지연 대표는 가구 장난감으로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취미 생활을 현대인에게 가져다주는 것을 목표로 예산 지원 및 멘토링을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했다.

팀원을 모으고 주 고객층을 아이들로 변경한 후 예산 문제로 가구 제작에 제약이 생겼다.

“가구 제작이 주 목적이지만 사람들이 우리 팀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우리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해 우리 팀이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만든 후에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매거진팀으로 전환했어요. 창업을 하면서 사업 아이템을 고정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이 매우 힘들더라고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굳츠 팀은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머릿속에서 창업을 그리는 것과 실제로 창업을 하기 위해 뛰어난 사람의 행동과 마음가짐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SNS 매거진 통해 고객들에 가치 전달

굳츠는 웹/SNS 매거진, 자신들이 발간하는 매거진 주제에 맞춰 제품을 디자인하고 그 가치를 설명하고 콘셉트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소개할하고 펀딩 등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12월 중 매거진 창간호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SNS매거진은 11월 15일에 첫 업로드될 예정이다.

매거진에 맞춰 준비한 제품 플로깅백은 2차 샘플까지 나왔고, 11월 중순에 최종 샘플이 제작되는 동시에 양산에 들어간다.

이후 12월에서 1월 사이에 펀딩 진행을 위해 네이버 해피빈에 전달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학습과 병행에 준비하다 보니 어려움도 많지만 몇 달 동안 디자인했던 제품이 실재가 되는 순간, 상품의 질이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등은 창업의 어려움을 잊게 만든다.

현재 굳츠의 제품들은 부산항만공사, 울산 장생포 고래박물관 기념품숍, 부산 비콘그라운드 플라스틱 업사이클제품 판매장, 대구경북 고속도로 휴게소 다섯 곳의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장에 입점이 확정된 상태다.



우리의 제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으로 화두를 던져줌으로써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어요.
 더불어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고, 그
 자극을 바탕으로 일상의 소박한 가치를
 사랑하면서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태양광 폐패널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해 사회취약계층을 돕다 '미지의 에너지'

팀명 미지의 에너지
대표 배은지
주요사업 국내 태양광 폐패널의 재사용 사업 및 개발협력사업과 연계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

태양광 폐패널 활용한 에너지 전환을 꿈꾸다

“한국의 태양광 폐패널을 동아프리카 지역으로 수출해 해당 지역에서의 활용을 촉진하고, 사회 취약 계층인 개발도상국 현지인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속가능한 인프라 전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태양광 폐패널의 자원 순환과 에너지 전환 및 복지 실현을 미션으로 삼고 있는 미지의 에너지는 지난 2021년 4월에 조직됐다. 팀원 모두 국제개발 협력, 비영리, 에너지, 기후환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 온 바 있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얻게 될 지식 및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팀의 미션 실현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NGO에서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박근선 팀원이 NGO를 운영하며 아프리카의 다양한 사회 문제가 에너지 인프라의 부족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파악하게 되면서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게 됐다는 게 배은지 대표의 설명이다.

활동 중인 단체 및 지역을 대상으로 태양광 에너지 보급을 고민하다 재생에너지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사회 취약계층을 도우며 기후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모색하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동료들을 모집해 창업 활동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다. 두 명의 팀원이 해외로 파견을 나가게 되었는데 안건을 결정하고자 주 단위 회의를 진행하는데 시차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 상황도 큰 영향을 주었는데, 패널을 설치할 국가인 우간다의 코로나 상황

도 사업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기 때문에 코로나 동향에 주도면밀하게 관찰해야 했다.

배 대표는 “한국에서는 잉여 자원으로 분류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할 수 있다면 자원 활용의 측면에서도 개발협력 및 비영리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해 창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 결과, ‘개발도상국 폐패널 보급 사업’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을 돕고, 기후변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창업지원사업 통해 협력 부분 확인할 수 있어

현재 미지의 에너지는 한국 소재에 있는 폐패널을 공급받아 우간다로 운송할 방법을 모색중에 있다. 이런 과정에서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팀, 멘토 등을 만나 조언도 구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미지의 에너지는 예산과 팀 결속 등 현실적인 문제를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의 컨설팅을 통해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배 대표는 “저희 팀은 아직 법인 설립 전이고, 파일럿 프로젝트도 처음 시도해보는 분야이다 보니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시도’해보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고 전했다.

에너지 사각지대에 에너지 복지 실현이 목표

미지의 에너지의 사업모델은 사회, 지역 공동체, 더 나아가 개발도상국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버려지는 태양광 폐패널의 활용처를 모색해 자원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버려지는 자원의 양을 감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태양광 폐패널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하고, 폐패널을 새로운 지역에서 재활용함으로써 지역에서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우리의 사업은 사회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인식 개선하는데 앞장서며, 기업이 ESG 경영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사업모델을 통해 개발도상국과 같은 에너지 사각지대에 에너지 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 대표의 말이다.



창업은 팀의 내외부 소통과 협력이 정말 중요한 과정이라고 느꼈습니다.
비슷한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분들을 만날 수 있어 정말 뜻깊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 잠재적 타깃 지역이 급증하고, 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인해 태양광 폐패널 수량 또한 계속해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했을 때, 두 가지 요인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미지의 에너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ARE

돌봄을 통해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돕다

도토리 마을방과후 사회적협동조합

부산진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하게 협동조합

(가칭)경남거제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가칭)나빛 평생교육 사회적협동조합

(가칭)대전 다누리 사회적협동조합

(가칭)사회적협동조합 놀잇다

꿈나무팀

(가칭)위인사회적협동조합

(가칭)징검다리사회적협동조합

꿈꾸는우리

물만남사람들





대안적인 초등돌봄으로 지속가능한 돌봄 및 교육 개발을 꿈꾸다 '도토리 마을방과후 사회적협동조합'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도토리마을방과후

“사람과 마을이 키우는 방과후 사회적협동조합, 우리 모두의 힘과 응원해 주는 많은 사람들 속에 곧 탄생합니다!”

도토리마을방과후의 김점순 대표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앞두고 한 말이다. 도토리마을방과후는 서울 마포구 성미산마을의 유일한 공동육아부모협동조합 초등방과후교실이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0여 명의 아이들이 하교 후부터 저녁 7시까지, 방학 때는 아침 8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함께 생활한다.

공동육아 경험이 풍부한 5~6명의 교사들은 아이들이 서로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마을의 여러 인적, 물적 자원과의 연계를 돕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도 교사와 더불어서 방과후 운영의 주체로 힘을 보태고 있으며, 아이들을 함께 성장하고 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놀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로 키우는 따뜻한 이웃과 어른, 친구가 있는 곳, 아이가 진정 아이답게 자라는 곳, 바로 도토리마을방과후입니다.”

지원사업 통해 조직을 돌아보고 더 큰 꿈을 꾸다

기존의 도토리마을방과후는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모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조합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지속가능한 조합운영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사회적 가치와 의미 있는 활동들

법인명 도토리 마을방과후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점순
주요사업 어린이집 사업
설립연월 2021년 10월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을 만들어내기로 결심하고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없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생소한 조직체에 대해 조합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배워나가는 시간들이 부족했다.

현재는 이러한 어려움을 온라인으로, 소규모 만남 등으로 극복해 나아가고 있다.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은 도토리마을방과후가 현재까지 어떤 모습으로 운영되어 왔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중요하고도 큰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자칫 실무적으로만 치우칠 수 있는 것이 창업 과정인데, 사업을 통해 조합 구성원들이 다함께 사회적협동조합의 비전과 미션을 고민하게 되었고, 조직의 변화를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여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마을이 함께 아이들을 키우다

도토리마을방과후는 올해 6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 10월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이후의 비전을 함께 논의했으며 11월 설립 인가 완료로 목표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도토리마을방과후는 공동육아를 기반으로 한 초등방과후로서 부모들의 다양한 운영에 참여해 아이들의 또래 관계 맺기를 돕고 마을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대안적인 초등돌봄으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도토리마을방과후의 이러한 활동은 부모들이 참여하고 마을공동체가 함께 돌보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초등방과후 모델 확립하고, 공동체 중심의 따뜻한 사회분위기 확산을 통해 정부 주도의 돌봄,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중심의 자생적이며, 지속가능한 돌봄과 교육모델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초등방과후를 넘어선 중등방과후 모델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쉬고, 건전한 또래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토리마을방과후와 함께 마을의 다양한 단체, 기관, 모임 등과 연계하여 이웃,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의 행복한 방과후가 무엇보다 기대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놀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곳,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로 키우는
따뜻한 이웃과 어른, 친구가 있는 곳,
아이가 진정 아이답게 자라는 곳, 바로
도토리마을방과후입니다.



사회적 육아의 생태계를 넓히다 '부산진구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꿈꾸다

인구감소와 돌봄공백, 아동학대 등 요즘의 육아 이슈를 굳이 꺼내지 않더라도, 육아는 개별 가정의 책임영역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영역으로 전환되어야 함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부산진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기에 이와 같은 공동육아가 최선의 돌봄이라고 생각하고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이다. 공동육아를 기반으로 한 보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산진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육아 생태계 확보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공동육아의 돌봄은 돌봄에서 끝나지 않고, 아이가 살아갈 마을과 함께하고자 하는 에너지를 형성해요. 우리는 우리가 다져온 공동육아의 힘으로 마을과 함께 사회공동체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회적 육아는 공동체형성과 공·보육제도의 확립을 기반으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송은하 대표가 힘주어 말했다.

조합 설립으로 보·교육 질 향상 및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

기존에 캄마콩콩어린이집을 운영하던 부산진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송은하 대표와 팀원들은 조합 설립을 통해 사회적 육아의 생태계를 더욱 넓힐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적 지위가 생기게 되면, 교사와 졸업생,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동 보육이 가능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운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

법인명 부산진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송은하
주요사업 보육사업
설립연월 2021년 8월
소재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보·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적 지원의 폭이 넓어지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앞서 캄마콩콩어린이집은 언급한 비영리 단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원리와 유사하게 운영되어지고 있으나, 법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호적이 없는 상태의 협동조합이어서 대표자 명이나 전반적인 행정적 처리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팀원들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16년차인 캄마콩콩어린이집의 역사와 전통에 부합하는 법적지위와 공공성 확보, 안정적 운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고민했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이해도가 다른 조합원들을 위해 풍부한 경험자의 조언이 필요했다. 다행히 2020년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에 가입하게 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사업에도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지원 사업 참여 전부터 조합원간의 합의로 설립 전반에 관한 계획이 논의되어 온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조합 설립을 완료할 수 있었다.

연대의 힘, 육아 '함께 해요'

상반기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하반기 사업자등록 완료는 물론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위해 부산진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누구보다 열심히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운영 전반이 열악한 상황이라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서 사업비의 지원으로 미션비전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시기에 조합의 16년 역사를 담아 낼 수 있는 캄마콩콩만의 기록 책자를 만들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고자 하는 조합원들 덕분에 많은 부분 힘이 났어요. 미션비전워크숍을 진행함에 있어서 코로나19 확산 등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적극 참여하여 정관에 우리만의 미션비전 선언문을 만들어 내며 다시 한번 우리 조합의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국의 다른 창업팀들과 온라인 상으로라도 만나고 소통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성과였다. 각 조합마다 고민과 즐거움을 공유하고 서로 좋은 에너지를 주고 받으며 연대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7월 25일 부산진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했으며 8월 26일 부산진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았다. 9월 6일 부산지방등기국



힘든 상황에서도 창업팀들을 위한 팀코치들의 물심양면 지원과 한 달에 한번씩 창업팀들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연합회 지원팀 덕분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조합 설립을 통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에 설립 등기 서류를 제출한 이후 절차를 준비 중에 있다. “힘든 상황에서도 창업팀들을 위한 팀코치들의 물심양면 지원과 한 달에 한번씩 창업팀들과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덕분에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조합 설립을 통해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부산진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앞으로 내 아이를 맡기는 공간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나와 내가 사는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며, 더 많은 부모와 교사,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동육아운동을 알리고,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의 방향을 알리는 정책제안에 함께 힘을 실으며, 연대를 통해 더욱 발전하는 조합이 되기 위해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갈 예정이다.



발달장애 가족이 기획부터 참여해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복하게 협동조합'

발달장애 가족에게 최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다

“문화와 예술이 발달장애 가족의 삶을 채우는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든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연중 공백없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행복하게 협동조합은 지난 2021년 4월 협동조합 설립 준비모임을 한 후 7월 창립총회를 개최했으며, 9월 협동조합 설립을 완료했다.

팀원들은 사회복지사, 유치원 정교사, 행동지도사 등의 자격을 갖췄다. 김덕화 대표는 총괄·기획을 맡으며 언론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하고 있으며, 박정미 이사는 재무·회계를 담당하며 운영 총괄과 홍보마케팅 역할을 하고 있다. 안수정, 김새봄 이사는 프로그램 운영과 디자인을, 이송미 감사는 기획·콘텐츠 개발과 프로그램 진행·교육 등을 하며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다하고 있다.

행복하게 협동조합은 다양한 예술영역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통해 발달장애 가족에게 최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또한 부모가 기획, 운영,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 가족이 서로의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행복하게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 사업모델은 유·초등학생 발달장애가족을 대상으로 꽃자왈 숲 탐방 및 숲 놀이 등을 하는 '꽃자왈 탐험대', 청소년·성인 발달장애가족을 대상으로 텃밭 분양과 농사체험을 하는 '게으른 농부', 발달장애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부모 학습 프로그램인 '성장하는 부모',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여행코스 컨설팅을 진행하는 '요란한 제주여행' 등이 있다.

법인명 행복하게 협동조합
대표 김덕화
주요사업 발달장애가족 문화체험 지원사업 등
설립연월 2021년 8월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발달장애 가족들이 모여 사업을 논의하다

행복하게 협동조합의 창업 계기는 아주 특별하다. 이미 조직원들은 제주도 발달장애 가족 커뮤니티에서 만나 오랫동안 깊은 유대관계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3~5년 이상 방과후학교, 발달장애아동 동아리, 가족 동아리 등에서 같이 활동했다.

그러던 지난 2019년 발달장애가족이 모여 돌하르방미술관에서 '휴자파리'(제주어로 휴장난이라는 뜻)라는 프로그램을 소규모로 진행하다가 2020년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원하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에 공모했고, 발달장애가족이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체험활동을 하는 취지에 공감해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이어 2021년에도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년간 40여 가족, 120여 명이 매주 일요일마다 미술관의 마당과 숲에 모여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즐거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조금 더 큰 꿈을 꾸게 됐습니다. 발달장애 부모들이 직접 협동조합을 만들어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직접 참여하면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스스로 만들어보려고요.” 김덕화 대표의 말이다.

그러나 창업이나 사업이라는 것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처음에는 너무 막막했다고 했다.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지만 이것이 수익화가 될지, 사업 아이템이 될 수 있을지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무엇보다 법인 설립이라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다”면서 “그러던 중 꿈고래부모협동조합의 SNS에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지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발달장애아아들이 일상 누릴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현재 행복하게 협동조합은 법인 설립이 완료된 상태다. 더불어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지원비를 가지고 즐거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준비 중이다. 11월 초에는 발달장애학생 일상요리 수업을 5회기 진행할 예정이다.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협동조합 단체를 만들겠다는 생각이 확고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을 계속 운영하면서 협동조합 설립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서류작업이나 관공서 업무가 조금 버거웠으며, 지



과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하기를 꺼리지 마시고, 또 과정의 어려움에 부딪혀 좌절하신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반드시 풀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한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함께 풀 수 있는 동료와 멘토님들이 계시니까요.

원사업 기준에 맞춘 지출과 증빙, 정산 또한 어려웠다. 그러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전국의 발달장애 관련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도 공유하고, 공감도 하며 큰 공부를 했다. 현재 행복하게 협동조합의 사업은 발달장애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주 사업이지만, 이후에는 어떤 사업을 더 할 수 있을지 다른 팀의 사업모델을 보면서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행복하게 협동조합은 앞으로 제주도에 발달장애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리고 부모가 이 세상에 없는 미래에도 우리 아이들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부모와 교사가 협동해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다 '(가칭)경남거제공동육 아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육아 이념과 운영방식에 동의하는 구성원들이 모이다

(가칭)경남거제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이하 '경남거제공동육아')은 공동육아 이념과 운영방식에 동의하는 둘 이상의 구성원들이 모여 자조·자주·자립·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준비중이다. 성·지역·계층·혼인상태 및 신체·정신의 장애에 따른 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며, 공동육아의 이념을 실천하여 공동육아 정신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우리사회가 보다 밝은 모습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팀 구성원은 강현지, 신이서, 이현민 3인이다. 전원 올해 경남거제공동육아조합의 운영진에 속해 있어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할 팀원으로 선발했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강현지 조합원은 경남거제공동육아조합의 5년 차 조합원이다. 2년간 운영 소위원회에 소속돼 이사 및 소위원 활동을 하여 조합에서 운영되는 사업 및 규정 등을 담당, 조합의 한해살이 흐름과 전체적인 터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

강현지 조합원은 올해 법인 내의 전국 공동육아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인과 소통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이서 조합원은 경남거제공동육아조합의 창립 멤버이자 5년 차 조합원이다. 5년의 기간 중 2년 동안 교육소위원회 이사직을 맡았다. 이사직을 맡은 기간 외에도 계속 교육·홍보 소위원 활동을 통해 조합원 교육의 필요성을 잘 알고 공동육아의 교육과정을 진행했다.

- 팀명 (가칭)경남거제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강현지
- 주요사업 공동육아어린이집 운영
- 설립연월 준비중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이현민 조합원은 경남거제공동육아조합의 3년 차 조합원이다. 운영소위원회와 홍보소위원회의 소위원 활동을 하였고 올해 홍보이사직을 맡고 있다. 지역 내에서 유일한 공동육아조합이 올바르게 자리 잡고 인식될 수 있도록 설명회 및 상담 등을 통해 꾸준하고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 필요해 창업 선택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부모와 교사가 협동해 열린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교사에게는 교육과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게 목표다. 부모는 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참여함으로써 보육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조합은 공동육아가 대안적 삶의 공간을 만들되 하나의 특수한 실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모델이 될 만한 현실적·보편적 틀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함께 참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지금의 경남거제공동육아조합을 창립하고 기틀을 다져온 이전 운영진들로부터 앞으로 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꾸준히 전해 들었고, 현재 조합원들 역시 그 의의에 동의함으로써 협동조합 창업 사업을 선택한 것이다.

강 대표는 “이번 사업은 법이 없어 임의단체로 있던 공동육아조합을 법인화하는 과정”이라며 “그동안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격을 띄고 있었지만 단체의 정체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및 확정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 내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을 신설을 목표로 설정했다. 현재 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심사 등기 전 서류 검토 중인 상태이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공간

하지만 창업 준비 과정에서 걸림돌도 있었다. 이미 임시단체로 5년 차에 접어들면서 운영이나 재정적으로 많이 안정적인 상태가 됐는데, 또다시 사회적협동조합을 신설해 새로 꾸려가야 된다는 것이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강 대표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조합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었다”면서 “특히 미션 비전 워크숍은 같은 조합 생활을 하는 조합원들끼리도 평소에 나눌 수 없었던 생각이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보육시설은 꼭 필요하다. 부모



현재 안정적인 공동육아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 사업을 통해 공동육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면 후발로 생겨날 사회적협동조합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이 어린이집 이용에 고려하는 공공성, 투명성, 안정성 등에 대해 부모들의 불안함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조합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공간이자, 교사들이 신뢰를 받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을 부모·교사가 함께 협력하여 원을 운영함으로써 공공성, 투명성, 안전성,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설립목표를 두어 사회적협동조합 및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 아동들에게 맞춤형방과후 프로그램으로 공동육아 돌봄 체계를 구축하다 '(가칭)나빛 평생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장애 아동 부모들의 소모임에서 시작하다

(가칭)나빛 평생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나빛')이라는 '공동체가 미래'라는 신념하여 사회복지사, 교육교사, 방과후 강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모였다.

방과후 돌봄, 틈새 돌봄, 일시 돌봄 등 돌봄 사업은 물론, 발달재활, 교육청 치료지원, 맞춤방과후 프로그램 등 바우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모여 방과후 돌봄을 자생적진행하고 있었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장애를 가진 내 아이들과 무언가 함께 프로그램을 한다는 차원에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재정난 등 어려움이 닥쳐 왔어요” 김정열 대표의 말이다.

당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나빛의 부모님들은 소모임으로 장애아동 방과 후 돌봄을 이어간다면 앞으로 지속적인 돌봄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의견은 직접 단체를 만들어 공동육아 돌봄 체계를 구축하자라는 것으로 이어졌고, 조합 설립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지원사업 참여, 조합 설립의 발판이 되다

조합을 설립하기로 결심한 나빛은 맞벌이 및 취약계층의 장애아동 및 형제자매 돌봄을 주요 사업 모델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 팀명 (가칭)나빛 평생교육 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김정열
- 주요사업 장애아동 돌봄
- 설립연월 준비중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삼았어요. 조합을 설립하며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는데 꿈과 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이 지원사업의 전반을 잘 지도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빛은 지원사업 참여 가운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 지원은 물론, 빔 프로젝터를 지원받아 비대면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사업계획서 작성에 도움을 받았다. 지원사업에 함께 참여하며 팀원에 대한 공동체 의식도 높아졌다. 지원사업에 참여한 시간 하나하나가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통합 돌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 형성에 도움

앞으로 나빛은 돌봄, 치료지원, 장애아 가족 사례관리 및 휴식지원, 부모 교육 및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 사회서비스 교육기관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정된 가정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나빛은 자신들의 활동이 아동학대 및 방임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자신들이 주체가 지역 간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와 방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 장애아동, 다문화 가정에 돌봄을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이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고 싶어요. 공동육아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비장애 통합 돌봄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애 부모들이 모여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내다 '(가칭)대전 다누리 사회적협동조합'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장애 부모들이 한 뜻을 이루다

지난 2011년 장애 부모들이 모인 소규모 친목단체에서 시작한 (가칭)대전 다누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다누리')은 2018년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계기로 사회복지기관 설립을 계획했다.

이후 2020년 10월 장애 당사자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장애인 가족 협동조합 계획 및 관련 교육 이수를 마쳤다. 지난 9월에는 사회적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했으며, 11월 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다.

다누리의 조합원들은 모두 장애인 부모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천현옥 팀장은 사회복지 시설 경력 20년의 사회복지 시설 전문가로서 직업훈련 교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전문상담원 등으로 활동했다.

박미영 팀원은 동그라미 심리센터장을 역임한 상담 심리 전문가로 특수아동 지도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다문화상담 1급, 미술치료 1급 등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 이은경 팀원 또한 특수교육을 전공한 사회복지사이며, 유성연 팀원은 청소년 상담, 성폭력&가정폭력 상담 등을 하는 상담 심리 전문가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

다누리가 한 뜻을 모은 데에는 이유가 있다. 바로 장애인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누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다누리의 팀원들은 장애 아이를 양육하며 최종 증 장애 자녀 양육 문제와

팀명 (가칭)대전 다누리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천현옥
주요사업 지역사업(돌봄, 자립자활 준비 등)과 기타사업(일자리 창출 등)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대전광역시 중구

편중된 부모 관심 밖 비장애 자녀의 교육, 그리고 부모의 피로감 등의 문제를 느끼게 됐고,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관심으로 이야기하고자 창업을 준비하게 됐다.

“막상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지만 최종증 장애 자녀가 있기 때문에 팀원 모임이 어려웠고, 장애 유형이 다양해 일원화된 해결책을 모색하기 어려웠어요.” 천현옥 팀장의 말이다.

조합 설립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조합원 전원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중증장애가 있는 엄마들은 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교육 참여에 어려움을 겪은 것도 애로사항이었다고 전했다.

창업지원사업 통해 많은 도움 얻어

하지만 팀 창업 과정에서 함께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며 실제로 설립 신청 접수까지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많은 보람을 느꼈으며,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주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 답변과 필요한 멘토까지 연결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이들은 조합 설립을 위해 지역 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생 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주간활동 서비스, 돌봄교육, 장애인 가족 커뮤니티케어 등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 구성원의 평생 돌봄 교육을 완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업모델은 장애인 복지, 가족 복지, 장애인 고용 일자리 확대, 장애인 가족 구성원 심리 정서 지원 등의 분야로 복지, 고용, 교육, 돌봄 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다누리는 앞으로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장애 아동과 그 부모들을 위한 행복한 일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창업 준비하면서
얻은 게 많아요. 목적과 가치에
함께 동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의 어려움과 소중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통해 삶의 질을 높이다 '(가칭)사회적협동조합 놀잇다'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이다

“학령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의 강점, 적성을 발견해 진로로 연결되도록 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놀잇다 김유미 대표의 말이다.

발달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로 구성된 놀잇다는 2018년 11월에 조직됐다. 놀잇다의 김유미 팀장은 발달장애 관련자격(놀이, 인지, 미술 치료사) 및 사회 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다년간 방과 후 활동 및 공모사업, 경기 꿈의 학교를 통해 발달장애 아동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했다. 더불어 공동체 네트워크 활동 및 정책제안 활동으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활동에도 다수 참여했다.

팀원들 또한 발달장애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며 발달장애 아동 관련 활동에서 보조강사로 참여했으며, 다년간 공모사업 및 경기 꿈의 학교의 운영에 참여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다.

놀잇다는 발달장애학생 교육 및 활동 제공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여가·문화 활동 연구 사업과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돌봄 및 체험활동을 제공한다.

그동안 비영리단체로 활동하며 자체활동 및 공모사업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했고, 단체의 성장과 더불어 법인으로의 자격을 갖추기를 희망해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게 됐다는 게 김유미 대표의 설명이다.

팀명 (가칭)사회적협동조합 놀잇다
대표 김유미
주요사업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교육, 돌봄 및 체험활동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창업지원사업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높여

그러나 협동조합 창업이 처음이다 보니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와 관련 자료가 부족한 것과 더불어 서류작업 등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가 문을 두드린 곳은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이었다.

김유미 대표는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의 컨설팅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육을 통한 팀원들의 역량도 강화할 수 있었다”면서 “조합설립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특히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에서 코칭하는 창업지원 사업은 발달장애 관련 업종으로 특화된 코칭팀이라 함께하는 창업팀이나 선배 창업팀의 사례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김유미 대표의 말이다.

현재 놀잇다는 정관 및 서류작업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창립총회일도 확정된 상태다.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놀잇다의 활동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모델을 창출 및 운영자금 마련 등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로 협동조합 창업에 있어 팀원들과 회의 등 의견교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다보니 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웠다.

김 대표는 “지원사업을 통해 MTA 교육과정에 참여함으로써 나와 팀원들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는 과정이 있어 오히려 팀으로서 더욱 돈독한 관계가 됐다”면서 “사업을 통해 팀의 정체성을 보다 확고하게 확립할 수 있었고, 행정적인 절차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 기여하길

놀잇다는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발달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지역사회 안에서 평범한 이웃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에 놀잇다에서는 발달장애인 대상 문화·예술 등의 교육, 활동을 통해 개인의 강점, 적성을 발견하고 성인기의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의 사회적 소외 문제를 놀이 및 여가활동을 매개로 하여 발달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긍정적 가치관 공유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모든 문제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를 통한 공감입니다.

더불어 지역 공동체들과 협업을 통해 비장애인들과 소통하며 작게는 비장애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크게는 정책제안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게 김 대표의 포부다.



자연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양육 환경을 만들다 '꿈나무팀'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네트워크 구축을 꿈꾸다

2021년 5월 꿈나무팀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목표로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

팀원은 총 5명으로 김영미 팀장은 공동육아어린이집 꿈나무놀이터의 교육이사로 활동 중이며 창업팀 내에서 외부 소통, 사업 내용 구성, 조합원 교육, 신규 조합원 모집, 홍보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팀원은 김단희, 서일주, 심연경, 서정필로 팀원에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예비조합원으로서 손을 보태어 준 장효연과 김은주씨도 꿈나무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꿈나무팀은 “자연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아이들과 어른들의 놀이와 삶의 터전”을 세우기 위한 조합 설립에 집중해 왔다.

어린이집 사업은 보육 사업이자 지역 사회의 복지서비스 사업이기도 하다. 지역 내의 영유아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보육을 제공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이지만, 이를 통해 아동의 보호자의 행복을 증진하고 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꿈나무팀은 영유아가 자연, 지역사회와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스스로의 성장 속도에 맞춰 자랄 수 있도록 불필요한 개입 없는 자유놀이를 수호한다.

또한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로환경과 자기성장을 지원하고 보호자의 양육과 자기계발을 또한 돕고 있다. 나아가 구성원 모두와 그 환경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구성, 유지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큰 도움

팀명	꿈나무팀
대표	장효연
주요사업	어린이집 사업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우리는 꿈나무놀이터 어린이집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이 기꺼이 고기동에 찾아오고, 또 자연을 찾아 고기동에 정착하기로 한 가정이 믿고 영유아 보육을 우리 터전에 맡기며, 터전과 함께 육아와 삶을 함께하는 1차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었지요. 물론 고기동에 살고 있지 않은 조합원들도 인근 지역에서 고기동을 오가며 공동체를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꿈나무팀은 기존 임의단체로 운영되던 공동육아어린이집에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창업을 결심한다.

하지만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에서 법인의 법적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 조합 설립을 준비하면서 기존 임의단체 구성원들 간의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행정적 어려움 앞에서 여러 번 설립 자체가 무산되기도 했어요. 이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해 조합 설립 과정에 대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김영미 팀장의 말이다.

꿈나무팀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실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가장 큰 목표로 뒀다. 현재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류 일체를 제출하는 단계까지 완료했고 그 과정에서 지원기관인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매순간 도움을 줬다.

마침내 정관을 수립하고 창립총회를 했던 순간은 아직도 벅찬 감동으로 남아있다. 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이디어 개진으로 온오프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신규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조합 설립에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되었다.

“향후 사회적협동조합의 인기가 나오고 등기가 완료되어 조합 설립을 완료하고 ‘나고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일원이 되어 연합회의 발전과 협력에 기여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꿈나무놀이터 통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될 것

꿈나무팀은 협동어린이집 꿈나무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꿈나무놀이터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보육권리선언을 바탕으로, 보육의 3주체가 건전하고 행복하게 참여하는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이다.

“우리는 꿈나무놀이터 어린이집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이 기꺼이 고기동에 찾아오고, 또 자연을 찾아 고기동에 정착하기로 한 가정이 믿고 영유아 보육을 우리 터전에 맡기며, 터전과 함께 육아와 삶을 함께하는 1차적인 공동체가 형성되었지요. 물론 고기동에 살고 있지 않은 조합원들도 인근 지역에서 고기동을 오가며 공동체를 풍요롭게 해줄 것입니다.”

꿈나무팀은 그 터전에서 조합원 행사, 교육을 점차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며, 지역공동체 안의 다른 단체들과 함께 지

역행사, 모임을 만들어나가며 지역을 하나로 묶는 중심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어른도 서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장해나가며, 돌봄커뮤니티란 원활한 노동 제공을 위한 보조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하는 마을 단위의 삶이라는 생각에 함께 도달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장애인 사회 참여 및 복지 분야 연구 개발을 돕다 '(가칭)위인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다

2019년의 마지막 달에 만들어진 위인협동조합은 장애인 사회참여 및 복지분야 연구개발업을 하며 장애인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다.

창업 2년을 앞둔 지금,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공동생산을 통한 사회통합을 지향하며, 장애인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 및 사회서비스 개발을 목적으로 조합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요 사업모델은 ▲ 연구개발업 ▲ 교육사업 ▲ 컨설팅사업으로 위인 협동조합은 장애인 연구자와 장애인이용자(리빙랩)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 사업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영역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장애인 당사자의 연구활동 및 접근성 등을 위한 교육사업 및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단체경영, 모금, 조직 운영 투명성을 대상으로 조언하는 등 다양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합의 정체성을 위해' 조직 변경 결정

위인협동조합은 조합 설립 후 2년 간 조합의 장애인 당사자와 공동 생산하는 사회통합을 지향하고, 시각장애인 리빙랩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왔다.

하지만 2021년 조합의 주요 목적이나 정체성인 사회적 가치 창출에 집

팀명	(가칭)위인사회적협동조합
대표	황인매
주요사업	연구개발업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꿈꾸는 모두의 조직!
그것이 (가칭)위인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중하기 위해 조합원 모두의 공감을 얻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결정했다.

“굳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해야 조합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장기간 가졌습니다. 과정이 쉽지는 않았으나 조합에 대한 조합원 개인의 기대와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거리감을 좁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조합원 모두가 함께 공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황인매 대표의 말이다.

조직 변경을 결정하면서 위인협동조합은 조합이 만들어진 지 2년의 시간 동안 외부의 객관적인 기준과 시각에서 조합원 각자의 기대감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앞으로 조합이 어떻게 가야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를 경쟁하고 창업지원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공감하게 되었다.

이에 실제 조직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부터 조직변경에 필요한 실제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사업아이디어를 얻는 도움을 받게 되었다.

리빙랩 운영으로 장애인 사회 참여, 복지정책에 기여

위인협동조합은 사업 참여를 통해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전문성과 자신들의 조합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함께 인지하고 발견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황인매 대표는 “조합원들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장애인과 함께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우리 조합의 고유한 가치, 즉 장애인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실행할 수 있었어요. 실제적인 활동이 가능한 리빙랩 운영을 통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정책의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황인매 대표는 지금까지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이 만들어준 사회에서, 수혜자의 입장으로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장애인이 수동적이고 시혜적 차원의 대상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변화에 참여하고, 장애인의 문제를 장애인 스스로가 해결해하는데 위인협동조합이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위인협동조합은 자신들의 작은 날개짓이 나비효과가 되어 지역사회와 수많은 사회조직들이 변화할 수 있는 시작점

이 되길 기대한다. 위인협동조합이 조직변경 절차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합원 각자의 생각과 기대를 솔직하고 나누는 과정을 중요시했기 때문이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인식하면서도 조합을 통해서 모두가 이루어갈 수 있는 공동의 가치를 세운 것이 지금의 (가칭)위인사회적협동조합이 우뚝 설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물론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기도 하지만 시작점을 만들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다 '(가칭)징검다리 사회적협동조합'

인문학 모임, 아동복지를 위해 나서다

아동복지를 위해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징검다리는 2008년 인문학 모임에서 시작됐다.

사회복지, 상담, 부모교육, 아동보육 등의 전문가가 모였던 이 모임은 기회가 될 경우,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2020년 마을 만들기 사업, 비폭력 대화 모임, 어린이날 축제, 주민자치동 보장협의체 활동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마을에서의 기반을 마련하던 이들은 2021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결정한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일이 가정만의 일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권경심 대표의 말이다.

징검다리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 함께 생활하고 도우며 사회성을 기르고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경험적 교육을 지향하고 더불어 보호자의 안정적인 사회활동을 돕고자 한다.

아동복지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합 설립을 결정하다

징검다리는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와 상담소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징검다리지역아동센터는 학기중과 방학중 모

팀명 (가칭)징검다리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권경심
주요사업 아동복지(지역아동센터)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두 오전 9시부터 오후7시까지 운영된다.

이 곳에서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며, 문화체험, 심리정서활동, 지역사회 연계활동 등을 지원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역할을 찾고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을 준비하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을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 대한 학습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 돌봄을 수행할 경우 효율적인 역할 분담에 대한 멘토링이 필요했어요.”

이에 징검다리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지원사업 참여와 함께 창업팀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 사회적협동조합 발기인 구성, 이해교육, 미션비전워크숍, 토론회, 창립총회 등 상당부분 진행이 완료되었고 현재 보건복지부 인가만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교육 및 행사 장소를 섭외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교육을 받으면서 당초 함께 하고자 했던 조합원의 이탈이 있었고 가치만으로 함께 할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않은 않았다.

팀빌딩, 모둠 등 다양한 의견이 모일 수 있는 행사를 대면 형태로 치르지 못한 점 등 못내 아쉬운 점도 많지만, 조합설립을 눈 앞에 둔 지금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가치를 이뤄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느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지역 사회를 도울 수 있는 성취 이룰 것

징검다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조합 설립을 위한 모든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인가만을 남겨두고 있다.

“팀 창업 과정에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징검다리는 조합 설립 이후 가치를 함께하는 조합원들이 모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보호와 교육, 상담, 부모교육을 통해 아동의 성장과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도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할 것이다.



팀 창업 과정에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공동육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로 바른 육아를 꿈꾸다 '꿈꾸는우리'

바른 육아를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생각하다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과 함께 하며 ‘생각만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행하자’라는 것을 가장 크게 배웠습니다.” 꿈꾸는우리의 김효림 대표의 말이다.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지속과 현실에 맞춘 발전을 꿈꾸고 있는 꿈꾸는우리는 공동육아의 안정적인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꿈꾸는우리는 올해 5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 23년 전인 1998년부터 강북구 우이동에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효림, 홍지원, 김원종 등의 조합원이 꾸려나가고 있는 꿈꾸는우리는 전세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던 터전이 매매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사용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했다.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고려 했으나 이미 여러 번 현실적인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을 통해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진행해 보자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팀명 꿈꾸는우리
대표 김효림
주요사업 교육서비스업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

지원 사업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넓혀

부푼 마음을 안고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변신을 꾀했지만, 전 세계를 침체의 늪으로 빠뜨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은 조합 설립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조합원들과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휴원 명령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긴급보육을 하면서 시간적, 체력적으로 힘들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에 참여하며 목표로 삼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의지를 더욱 강해졌다.

혹시나 지원사업 기간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해도 조합원들이 한 자리에서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 하고 어느 정도의 결론을 이루어내기를 원했다.

이를 위해 전 조합원이 줌으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강의와 공감 대화 강의를 듣고, 모듈에 참가해 대화하는 역량을 키워 소규모나 일대일로 조합원들과 만나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사업의 특성상 원아 모집을 위해 전단지과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에 집중한 가운데 함께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렸다.



지역 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토대 마련할 것

꿈꾸는우리는 11월 6일과 7일, 마침내 전 조합원이 참가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으며 미션비전 워크숍을 통해 의견을 통합하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어려웠지만 공감대화 강의, 전단지과 홍보영상을 위한 홍보비 지원,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임차료와 식대 등등의 금전적인 지원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4차에 걸쳐 진행된 모듈을 통해 대화와 소통, 문제 해결을 위한 생각의 체계화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팀 코치와의 교류, 사회적협동사업에 대한 강의 등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꿈꾸는우리는 당초 목표로 삼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조합원들과 더욱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합 설립의 당위성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터전의 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계기를 맞았다.

우리가 해야 할 결정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20년간 이어져 온 강북도봉지역 공동육아의 정신이 이어져 지역 아동들이 본연의 모습 그대로 존중받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보, 어린이집의 활동 등은 반드시 이루어 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같이 연계하여 활동을 확장시키고 함께 공동체적인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세상에 한 걸음 다가가는 물길을 열다 ‘물만난사람들’

발달장애인의 평등한 세상살이를 지원하다

“세상을 마중하는 물로서 손을 내밀겠습니다.” 물만난사람들 주용기 대표의 말이다.

물만난사람들은 지난 2021년 5월 과천시 ‘사회경제적 창업교육 사회서비스 특화과정’ 교육 수료 후 지역주민들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세상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물길을 열어가자 창업을 준비했다.

교육 서비스가 주요 사업 모델로 주용기 대표, 심명순 총무회계, 신지현 감사, 강보애 기획, 김정하 마케팅, 한정희 홍보 등의 팀원으로 구성돼 있다. 협동조합 창립 후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공감 나들이’와 ‘수어 교실’, ‘회원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진행한 상태다.

현재 성공적인 진로설계와 청년직업체험, 장애인·장애인 가족 및 소외계층 대상 상담 지원, 장애인식 개선 실천 프로그램 개발·운영, 취약계층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정보제공과 교육,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실천운동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사업분야로 설정했다. 주용기 대표는 발달장애인의 평등한 세상살이를 지원해온 권익옹호 활동가의 경험과 장애가 있는 자녀의 사회진입에 헌신해 온 가족 당사자 등의 자조 노력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활동을 추진하고자 지원사업에 참여했다고 했다.

“시민사회경제활동을 토대로 하여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을 위한 교육(자격증 취득 등) 및 장애·비장애인의 통합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 팀명 물만난사람들
- 대표 주용기
- 주요사업 발달장애인 사회적응 훈련 및 일자리 교육
- 설립연월 준비중
-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구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도권 내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지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창업지원으로 사회적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 스스로 마련해

현재 물만난사람들은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계속 모색 중이다. 그러나 조직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직 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성원들의 목표 의식이 흔들리거나,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분변동 시 참여기회가 제한되는 점 등이 어려웠다고 했다. 또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대면 활동을 기반으로 해 코로나19로 크게 제약됐다고 했다.

주 대표는 “이러한 애로사항에도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교육을 지원해온 권익옹호활동가의 경험과 장애인 가족 및 당사자 등의 자조노력을 결합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사회적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 수 있었다”고 전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공감 이루다

특히 협동조합 창업 과정에서 설립단체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을 시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은 게 가장 힘이 됐다고 했다. 더불어 경험이 풍부한 꿈고래놀이터 부모협동조합을 통해 현실적, 실질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의 주체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확인하거나 강화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 제도권의 공식적인 지원 등을 더욱 폭넓게 확보함으로써 목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주 대표는 설명했다.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공감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시설의 이용 경험과 이웃과의 만남의 기회를 확대해 모두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는 물만난사람들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



시민경제활동을 토대로 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통합은 평범한 이웃으로서의 공감, 일상생활의 공유 그리고 동료에 대한 믿음으로 성취할 수 있다.



CULTURE AND ART

문화예술 사업으로
지역에 녹아들다

- 나눔소리 협동조합
- 따뜻한사진가 협동조합
- 문화예술협동조합 덤
- 예술로위더스 사회적협동조합
- 오르골 협동조합
- 협동조합 손에손에
- 협동조합 영상집단 봄날
- 협동조합 컨티뉴이티
- (가칭)다함쿵 사회적협동조합
- (가칭)상상생생 사회적협동조합
- (가칭)스민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 문화예술 인큐베이팅 그룹 품





위기에 봉착한 전통문화예술 청년예술인이 해결하다 ‘나눔소리 협동조합’

법인명 나눔소리 협동조합
대표 손영철
주요사업 공연기획, 국악기 리사이클, 전통문화예술강사 육성&파견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경기도 부천시

폐국악기 리사이클해 문화소외기관에 후원하다

“위기에 봉착한 전통문화 예술을 살리기 위해 청년예술인들이 모였습니다.” 나눔소리 협동조합 손영철 대표의 말이다.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나눔소리 협동조합은 국악 공연자와 국악 강사 등이 모여 ‘전통문화 예술공연 사업’과 처리 방법이 어려운 폐국악기를 수거해 문화 소외기관에 보급하는 ‘폐국악기 리사이클 사업’, 전통문화예술교육을 연구하고 교육기관에 파견하는 ‘전통 문화예술 강사 육성&파견 사업’ 등을 진행한다.

특히 공공교육기관에서 방치된 국악기를 리사이클해 버려지는 국악기의 비중을 줄이고 교육기관에서는 새로운 악기를 추가구매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중점에 두고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폐국악기를 수거해 분해, 사용 가능한 부속품과 여러 부속품 등을 수집해 악기를 재조립하여 문화소외기관에 재활용 국악기를 후원하려는 게 목표다.

“팀원 구성원 전원이 예술 강사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사들로부터 학교 내 방치된 국악기가 너무 많아서 해결방안 문의가 잦았다고 해요. 학교 내에 버려지는 국악기, 방치된 국악기, 고장 난 국악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지요. 이를 시작으로 여러 의견을 모으게 되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어요.”

위기에 봉착한 전통문화예술, 공동체 조직으로 맞서다

그러나 현재의 전통문화예술계는 크나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악을 배우고 보존하고자 하는 젊은 예술인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가고 우리의 미래가 될 아이들은 저출산 시대와 치열한 교육열에 밀려 문화예술을 접하고 배워나갈 기회를 잃어가고 있어서다.

심지어 지역문화 예술은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청년예술인들이 더 이상 열정과 의지만으로 현실을 이기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는 게 손영철 대표의 말이다.

이에 직원(노동자), 생산자, 후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문화소외 계층의 창조적인 문화활동과 문화공동체를 실현하는 공공의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활동기반(일자리 창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년예술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모였다.

하지만 협동조합 창업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그러던 와중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데의 도움 덕에 설립과정부터 체계적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중들에게 추억이 되고
 즐길 수 있는 전통 문화예술,
 우리 나눔소리가 선사하겠습니다.

현재 나눔소리 협동조합은 12월 이내로 협동조합을 창립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에는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준비 중에 있다.

손 대표는 “창립을 준비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팀원들과 자주 소통하지 못한 점이 제일 어려웠다”면서 “하지만 하나의 목표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즐거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진과 영상 촬영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을 펼치는 '따뜻한사진가 협동조합'

사회공헌에 뜻이 있는 사진가·영상 작가들이 모이다

따사모는 지난 2018년 6월 19일 서울시 50+중부캠퍼스에서 '사진활동가:렌즈로 담은 따뜻한 세상' 수료 후 결성된 조직이다.

따사모는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라파엘 클리닉', '서울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서울시 그룹홈 지원센터' 등에 사진을 통한 재능기부를 해왔으나, 재정적인 문제로 확장이 어려워 고민이 많았다.

그러다 결정한 게 협동조합 설립이었다. 그동안의 역량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영업활동으로 재원을 확보해 더욱 많은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자고 뜻을 모은 것이다. 이에 따사모는 졸업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행사 사진 및 영상 촬영, 소상공업체 및 사회적기업 제품 사진 촬영 등을 사업 모델로 정했다.

"사회공헌에 뜻이 있는 사진가 및 영상 작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공헌 기회를 발굴·제공하며 지속적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고 제공하는 게 따사모의 목표입니다." 조병희 대표의 말이다.

창업 과정, 순탄치 않았지만 창업지원 도움 커

그러나 창업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다. 지난 2020년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고 '협동조합 관련 교육'을 받은 뒤 자체적으로 설립 준비를 해왔으나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올해 초 서울시 50+중부캠퍼스 공유사무실 입주를 계기로 서울시

법인명 따뜻한사진가 협동조합
대표 조병희
주요사업 사진·영상 촬영 및 교육
설립연월 2021년 10월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50+재단에서 창업교육을 받았고, 이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어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의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조 대표의 설명이다.

조 대표는 "지원사업을 기반으로 협동조합 설립준비와 초기 시장 진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사업을 진행해 협동조합이 설립되는 대로 초기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따사모는 지난 9월 17일에 협동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했으며, 10월12일에 마포구청으로부터 설립신고서증을 수령했다. 현재 발달장애인학교의 졸업사진 및 앨범제작과 관련, 학교 측과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촬영일자, 촬영방법, 졸업앨범의 규격에 대해 확정했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연주단의 프로필 및 연주회 촬영을 완료하고 사진책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소상공협회 관계자 등과도 향후 사업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하는 중이다. 이처럼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신나는조합의 창업지원이 많은 도움이 됐다.

창업 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과 설립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매일 담임 멘토링을 진행해 진행 상황을 체크한 것은 물론 예산 지원을 통해 사진 촬영에 필요한 조명 장비와 프린터 등 필수 장비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역량 확보하는 것이 목표

이를 통해 사진·영상 재능기부를 하는 '사진활동가' 커뮤니티에서 사진·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영역에 진입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향후 사업수익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했다.

조 대표는 "사회공헌에 뜻이 있는 사진가 및 영상작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공헌기회를 발굴 제공하며 지속적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의 뜻이 이웃, 지역 공동체로 퍼져나가 서로를 존중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전한 따사모의 앞으로의 발걸음이 더욱 기대된다.



사회공헌에 뜻이 있는 사진가 및 영상작가들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사회공헌기회를 발굴 제공하며 지속적 사회공헌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하고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양평지역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전문가가 협업해 상품화하다 '문화예술협동조합 덤'

법인명 문화예술협동조합 덤
대표 김종렬
주요사업 문화예술 교육, 기획 등
설립연월 2021년 8월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문화예술 분야의 시니어들이 뭉치다

문화예술협동조합 덤은 지난 2020년 5월 가톨릭상지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현 돌쇠갤러리 대표인 김종렬 대표를 주축으로 그래픽디자인 담당의 김중업 이사, 공업 디자인 담당의 유용범 이사, 금속공예의 황의균 이사, 그래픽디자인의 안재복 이사가 뭉쳐 만든 협동조합이다.

경기도 양평 지역의 문화예술 분야(조각, 공예, 디자인, 예술기획) 전문가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양평지역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활성화해 문화예술도시 양평 만들기에 기여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협동조합 덤은 △지역민 대상 예술가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실행 △지역의 공공시설물 군소업체의 생산 및 판촉관련 디자인 지원 실행 △농어촌 및 어르신, 군부대 등 문화예술 소외계층 문화예술 활동 지원 △양평의 치유시설에 치유를 목적으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 실행 △양평지역 방문 관광객에게 문화예술 체험활동의 상품화 및 관광 문화상품 개발 등을 주요 사업 모델로 설정했다. 현재 5인의 팀원들은 시각예술, 공공조각, 공예, 그래픽디자인, 문화예술 기획 분야의 최상위 전문가로 구성돼 시각예술 분야 교육, 전시, 기획, 디자인 및 제품 개발 등 대민 지원사업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이들이 모인 이유가 뭘까?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은 60대 후반으로, 양평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지난 2020년 5월부터 매월 2회 정례모임을 갖고 체계적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추진 중이었다.

문화예술 관련 사업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 봉사적 성격

이 크기에 정부의 문화예술 분야 주민지원사업을 응모해 추진할 계획을 세웠고, 신나는 조합에서 실시하는 창업 프로그램에 응모 및 선정돼 협동조합 설립을 이룬 것이다. “문화예술 협동조합 설립으로 5인 팀원의 예술적 전문성을 활용한 지역민 문화예술 프로그램 진행으로 문화예술의 고장 양평 만들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고령의 나이와 실무 경험 부족으로 도움 절실해

현재 문화예술협동조합 덤은 신나는 협동조합의 창업지원과 5인 팀원의 적극적인 지지로 창업지원 선정 및 시니어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지난 9월 23일에는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5명의 의지를 한 뜻으로 모으는 데는 시행착오가 있었다. 5인의 예술가들은 일반 다른 직종보다 고집이 세고 사회성이 부족하기에 객관적 사고와 기업체로서 협동조합 추진을 위한 팀원들의 이견을 이해시키며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점이 힘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창업 및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는 많았으나 고령과 평생 작품활동의 경험만 가지고 사업에 임하다 보니 사업 전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무 회계 마케팅 분야 등에 도움이 절실했다.

창업지원사업의 교육 통해 기반 조성

이에 창업지원사업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 교육을 지원 받았고 이를 통해 작품활동 외에 자신들의 재능을 활용한 지역사회 문화예술 나눔에 대한 뜻을 모아주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여기에 △양평 문화예술 평생교육 및 대중화로 문화예술의 도시 시민이라는 자긍심 고취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 발굴 및 협업으로 일거리 제공 및 수익 창출 △문화예술 소외계층에 문화예술활동 기회제공 및 성취감 고취 △양평지역 군소업체의 디자인 지원으로 지역 군소업체 산업의 활성화 △농촌 지역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으로 농가 수익 창출 증대 △요양원 및 장애시설 등 치유 산업에 예술을 접목한 예술치료산업 발전 △관광산업 연계 예술 프로그램 개발로 양평 홍보 및 관광산업 활성화 등의 진행하고 있다. 또한 타 문화예술 협동조합과 협약 공동도 추진 중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문화콘텐츠 기획을 진행하고 있는 문화예술협동조합 덤은 자신들의 창업이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적 불황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축심리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가장 큰 사회적 관심사이기에 은퇴한 시니어에게 협동조합 창업을 통한 사회의 적극적 구성원으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점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타 분야의 시니어분들도 자신의 평생 경험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예술 사업으로 지역에 녹아들다 '예술로위더스 사회적협동조합'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다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즐기므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아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경숙 예술로위더스 이사장의 말이다.

노원구 일하는 여성들의 네트워크 모임인 '여성희망동행'으로 시작된 예술로위더스는 드림스타트와 부모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후 2019년 3월 문화예술 교육 강사들로 구성된 '예술로위더스' 사회적협동조합 준비모임을 시작하고 지난 4월 24일 예술로위더스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팀원 모두 그림과 공예, 미술심리, 책읽기 등의 분야를 맡고 있으며 기관이나 공모를 통해 지원금을 받아 공공성을 확보해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으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목표는 정했지만 실제로 이를 실행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원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던 취약계층이 주도가 되는 당사자 협동조합을 준비했으나, 막상 당사자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 포기하려 했다.

그러다 협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낀 강사들이 중심이 되어 협동조합을 만들면 그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다중이해 협동조합을 생각하게 됐다는 게 이 이사장의 설명이다.

“아무래도 수업하는 강사님들이라 보니 행정을 전문적으로 하거나, 협동조합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협동조합 창업 준비 과정에서 애

법인명 예술로위더스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이경숙
주요사업 문화예술 프로그램(체험, 교육)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로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준비 기간이 길다보니 조합에 뜻을 같이 해주신 분들이 지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작게나마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 창업지원 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원사업 통해 구체적인 사업 실현 가능해

예술로위더스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두루뭉술한 콘텐츠를 구체화시키고 조합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했다. 현재 인허가를 거쳐 법인 설립 준비 중에 있다.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면서 뿌듯한 일도 있었다. 수업을 준비하면서도 지치지 않게 소소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과정을 통해 마을활동가로 발을 들여놓은 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술로위더스가 사람과 마을을 연결해 준 수호천사가 된 것이다.

이 이사장은 “그동안은 사업모델이라고 하면 단순히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컨설팅을 통해 사업모델이란 협동조합이 사업을 어떻게 제안해야 하는가에 대한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재능기부가 아닌 하나의 사업체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화안전망으로 성장할 것

'예술로위더스'는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을 비롯해 마음이 힘든 분들이 문화예술에 집중하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근육을 키우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문화안전망 역할로 함께 성장하는 것이 목표다.

그중에서도 '여성'의 자아존중감, 자기정체성 확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성 자신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가족이나 내 주변을 지켜내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예술로위더스는 지역 사람들이 원할 때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다.

그리기를 하고, 책을 읽고, 공예를 만들고, 뜨개질도 하는 문화예술 울타리를 만들어 골목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예술로위더스의 내일이 기대되는 이유다.



나를 갈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지 말고,
서로서로 녹아들어서 우뚝 서는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글로벌 문화시장에 경쟁력 있는 음악콘텐츠를 제작하다 ‘오르골 협동조합’

우리 전통문화를 전 세계인들에게 알리다

2018년 초 ‘작곡그룹 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음악콘텐츠 제작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오르골 협동조합은 음악 작업, 공연제작 등을 해오며 이런저런 변화를 겪었고 지금의 멤버 구성으로 지난 2020년 연말부터 협동조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윤현명 팀장은 ‘작곡그룹 축’의 대표이자 총괄·운영을 맡고, 작·편곡 및 다수 악기를 연주하며 3D그래픽까지 담당하고 있다. 최정혜 ‘그리다’ 대표는 애니메이션·무대배경영상·홍보물 등을 제작하며 베이스기타와 건반 연주를 맡고 있다. 박한결 작곡가는 작곡그룹 축의 멤버이자 건반 연주자,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화림 ‘음악콘텐츠제작기획 LIM’ 대표는 전반적인 기획·행정을 맡음과 동시에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정화 ‘올라(Ola)’ 대표 또한 작곡가이자 타악 연주자, 사운드 엔지니어로서 활동하고 있다.

오르골 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전통문화를 전 세계인들에게 이미지 메이킹하고, 브랜드화할 수 있는 공연, 음원, 영상, 애니메이션 등의 음악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라이브 스튜디오인 ‘Uncolored’ 설비와 운영을 함과 동시에 다양한 인재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협동조합 웹 플랫폼을 제작하고 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윤현명 팀장은 “하나의 음악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는 여러 분야의 인체가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예술인·전문가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이루

법인명	오르골 협동조합
대표	이화림
주요사업	공연·음원·영상 등 음악콘텐츠 제작
설립연월	2021년 7월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고 있다면, 작업의 효율이 증가하고 콘텐츠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인들의 삶의 질 높일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

동시에 예술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

하지만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과 절차가 어렵게만 느껴져 선 불리 창업을 시도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설립 과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지원사업을 신청한 게 촉발점이 됐다.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입니다. 그리고 공연장 운영과 지원사업 수행, 기타 외주 업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기업체로 만드는 것이 그다음 목표입니다.” 윤 팀장의 말이다.

앞으로 오르골 협동조합은 웹 플랫폼도 제작해 대중들에게 조합과 조합의 활동에 대해 알리고, 조합원끼리 서로 협업할 수 있는 온라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점차 조합의 규모를 늘리고 콘텐츠 제작 프로세스를 다져서 글로벌 문화 시장에 내놓을만한 경쟁력 있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오르골 협동조합은 지난 7월 30일 등기를 완료하고, 8월 26일 협동조합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라이브 스튜디오인 ‘Uncolored’는 음향·무대 설비가 모두 갖춰져 10월 15일 개관했으며, 웹 플랫폼은 현재 기획 및 기초적인 제작 단계에 있어 11월에 프로토타입을 완성될 예정이다.

네트워크 형성 통해 성장하는 예술환경 구축

이 과정에서 힘든 점도 물론 있었다. 무엇보다 오르골 협동조합은 광주에 소재를 둔 팀인데 대전에 소재한 목원대학교 산학협력단까지 사업 수행을 위해 매번 이동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또한 협동조합의 형태에 맞는 실질적인 운영 노하우, 경제적인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구체적인 성장 방법과 루트, 제도적으로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인사·노무·세무·회계 업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알기 어려워 현재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한 번에 등기 서류가 통과돼 법인 등기가 완료됐을 때 가장 뿌듯했으며, 그동안 열심히 설비를 해왔던 소규모 공연장이 개관까지 해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했다.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는 ‘오르골 협동조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악콘텐츠 제작사로 자리매김하는 그날까지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윤 팀장은 “이같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의 복잡한 과정과 수많은 서류를 단계적으로 안내해줬기 때문”이라면서 “초기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라이브 스튜디오와 웹 플랫폼을 개발하는 데에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고마워했다. 광주지역 예술인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서로 협업하며 함께 성장하는 예술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오르골 협동조합은 웹 플랫폼이 구축됨에 따라 네트워크의 지역적 한계가 허물어지며 우리나라 각지의 예술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협업하기를 바라고 있다.

나아가 세계의 예술인들이 물리적 제약 없이 플랫폼 내에서 서로의 작품을 공유하고 함께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 안에서 다양한 예술인들과 함께 글로벌 문화 시장에 경쟁력 있는 음악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 오르골 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말한다.



국내 no.1 문화기획사를 꿈꾸다 ‘협동조합 손에손에’

지역민 문화 향유를 위한 콘텐츠를 만든다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이 없었다면 협동조합 설립이 몇 개월은 더 늦어졌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설립 후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 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방면으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협동조합 손에손에 박석영 이사장이 지원사업에 참여한 소감을 말했다.

포플라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시작해 11월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협동조합 손에손에는 ▲지역민의 문화향유 증진 및 문화 이탈을 방지하고 관광 콘텐츠를 증대 ▲로컬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로컬예술인의 자급자족 모을 구축 ▲ 지역에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 등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우리는 지역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국내 no.1 문화기획사를 꿈꿉니다. 공연기획, 전시기획, 축제기획, 박람회기획, 행사 대행 등의 활동을 물론, 문화예술 기반의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을 통해 로컬 예술인의 자생적인 수익 구조를 완성하고 생계유지를 위한 다양한 모델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합 설립을 생각하다

박석영 이사장은 대학교를 다닐 때 비영리 임의단체를 만들어 팀원들과 함께 전시 및 공연을 만들면서 문화예술 콘텐츠에 관심을 가졌다.

3년간 매달 2개의 전시와 1개의 공연을 만들면서 졸업 후 꼭 창업을 하여 더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고 생각했다.

법인명 협동조합 손에손에
대표 박석영
주요사업 공연기획, 축제기획, 행사대행
설립연월 2021년 10월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특히 서울과 지방의 문화예술 격차를 느끼고 ‘지역에서 재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창업을 준비했다.

대학생 시절부터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며, 공연과 전시를 기획해 왔지만, 작년 처음 포플라를 사업자등록 하고 나서는 또 다른 어려움이 많았다.

각종 서류와 직원들 4대 보험, 입찰 등 처음 접해야 하는 것들을 적용하고 배우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창업을 진행하던 박석영 이사장은 일반 개인사업자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형태가 협동조합임을 느꼈고, 설립을 계획하던 중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이 마침 나와서 지원하게 됐다. 설립준비를 위한 비용과 설립과정에서의 도움부터 설립 후 관리 및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라 공지를 보자마자 바로 지원했다.

손에손에는 사업에 참여하며 정관 작성부터, 사업계획서, 수입지출예산서 등 협동조합 창업 전반에 필요한 서류작성과 설립과정 전반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창업 선배, 멘토로써 실전 팀도 배울 수 있었다.

박석영 이사장은 “협동조합을 이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지만, 설립과정의 복잡함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는데, 지원사업이 설립부터 후속관리, 멘토링과 네트워킹까지 지원해주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4IR 어워드 스마트융복합 문화콘텐츠 부문 대상 수상

손에손에는 9월 창립총회를 마치고, 10월에 설립신고, 공증, 설립등기를 진행했다. 11월에는 사업자등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창립총회를 마치고, 창업 전 과정에서 서울에서 융·복합 공연이 개최한 손에손에는 다 같이 모여 공연을 진행하면서 시너지가 배가 된다는 것을 체감했다. 이러한 공연의 경험은 앞으로 손에손에가 진행할 다양한 사업의 거울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손에손에이지만 지난해 매출 5,800만원에서, 10월 현재 매출이 2억 4,000만원 가량 상승하며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2021 4IR 어워드의 스마트융복합 문화콘텐츠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으며 2022년 진행할 대형 뮤지컬, 콘서트, 페스티벌 등의 계약 또한 이루어졌다.

앞으로 손에손에는 세종을 중심으로 충청지역에 새롭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보급하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를 나눌 수 있는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이 없었다면 협동조합 설립이 몇 개월은 더 늦어졌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설립 후에도 여러 문제가 발생 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방면으로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 및 영상제작 인력이 모여 권익을 도모하다 ‘협동조합 영상집단 봄날’

협업하여 직접 소통하는 전문가 크루

영상집단 ‘봄날’은 2021년 4월 조직되어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 조합원들은 대부분 연출, 제작 인력으로 ‘함께 나누는 영상제작’을 미션으로 기존의 기존 홍보물 혹은 교육영상 등을 미니 드라마화, 숏폼 영상 제작 등을 제작하고 있다.

기존 영상 제작현장에서 실제 제작에 참여하는 영상인들이 추후 발생하는 이익으로부터 소외되고, 대부분의 영상 제작인들이 비정규직이며 계약직이 대부분이다.

“직업적 불안정성 때문에 작품과 작품 사이, 계약과 계약 사이의 공백 기간을 수입 없이 지내야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봄날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대표의 말이다. 때문에 봄날은 ▲ 영화 및 영상제작 인력이 모여 권익 도모 ▲ 숙련된 영상제작인력이 영상 제작 및 교육 ▲ 지역주민 취약계층 대상 영상서비스 ▲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영상 창작 및 인력육성 ▲ 불안정한 고용구조 개선을 위하여 영화인 일자리 창출을 조합설립의 목표로 삼고 있다.

지원사업 참여,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높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는 봄날은 영상제작에는 전문가들이지만 협동조합에 대해 낮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사업에 참여하며 협동조합의 창업과정 및 협동조합의 이해도를 높일

법인명	협동조합 영상집단 봄날
대표	김성기
주요사업	영상제작 및 영상제작 교육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은 영상집단 봄날이 앞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고 있다. 직업적 특성상 다른 작품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참여율이 떨어지는 면이 있어 창업을 속도나 더디어 지기도 했지만 협동조합 창업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예비 조합원들의 노력은 이어졌다.

협동조합 영상집단 ‘봄날’이 일으킬 나비효과

봄날은 창업 준비 과정 중에 3회 분량의 미니드라마를 만들며 자신들의 사업 모델이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더디게 진행되는 듯 보이지만 다행히 창업 준비 과정에서 창업팀의 이름으로 일을 수주하고 실제 작업을 끝내 성과를 낼 수 있었어요. 이때가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입니다.” 김성기 대표의 말이다.

봄날은 지난 11월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완료했다. 협동조합 인가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행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봄날의 자신들의 협동조합 설립이 영상 제작인들에게 하나의 큰 나비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문영상 제작 집단의 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되면 무엇보다 영상 제작인들의 일자리와 이익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인들의 재능을 통해 지역 내에서 영상제작에 대한 교육과 높은 수준의 영상문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봄날이 소수 몇 사람만 참여하는 조합이 아니라 수많은 영상인들이 함께하는 거대한 제작집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래되고 잘못된 영상업계의 관행들이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비록 더디게, 모두가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지만 무엇보다 큰 한걸음으로 영상인들의 권익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봄날의 미래를 응원한다.



영상인들의 재능을 통해 지역 내에서 영상제작에 대한 교육과 높은 수준의 영상문화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봄날이 소수 몇 사람만 참여하는 조합이 아니라 수많은 영상인들이 함께하는 거대한 제작집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래되고 잘못된 영상업계의 관행들이 고쳐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다양성 영화 문화를 확대하다 '협동조합 컨티뉴이티'

법인명 협동조합 컨티뉴이티
대표 남가원
주요사업 영화 굿즈 판매, 배급, 상영, 제작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협동조합 컨티뉴이티는 2019년쯤부터 알고 지내던 조합원들이 함께 영화 관련 활동을 하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보자고 다짐하고 설립한 조합이다.

팀원들은 각자 영화 연출과 제작, 배급, 상영 등 세부적인 분야의 관심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데 남가원 팀장은 영화 연출과 제작·상영회 기획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감정원 팀원은 영화 연출·제작·배급·상영을, 이승우 팀원은 제작·촬영·배급·상영을, 장주선 팀원은 영화 연출·제작·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모든 팀원들이 영화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다른 영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굿즈 스토어 운영을 위한 영화 관련 굿즈 개발을 공통적 관심으로 두고 있다.

이에 협동조합 컨티뉴이티는 영화 굿즈 스토어 운영 및 상영, 배급, 제작 활동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해 운영하며 지역의 다양성 영화 인식 증진 및 독립영화 산업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며 지역을 기반으로 독립영화 관련 문화 형성을 확장시키고 다양성 영화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켜 지역의 문화 다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영화를 즐기는 문화'를 확대해 지역 영화들의 배급, 제작 및 홍보를 맡을 수 있는 다중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남가원 대표는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영화 굿즈 스토어 운영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커뮤니티 시네마의 영화 굿즈 스토어 비즈니스 모델을 참고했으며, 상영 및 영화 배급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영화

상영회를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지역 영화 배급까지 시도하고자 하고 있다.

더불어 영화 제작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을 위해 목적에 따라 영화 및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납품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 예정이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화 제작과 수익체계를 만든다

이들이 영화 관련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한 데에는 영화에 대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남가원 팀장은 독립영화를 직접 연출해보고 싶다는 꿈으로 대구지역의 작고 큰 독립영화 현장에서 경험을 쌓다 지금의 팀원들을 만나게 됐다고 했다.

감정원 팀원은 "서울에서 상업영화 등의 현장경험을 많이 쌓고 고향인 대구로 돌아와 지역 영화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연출과 제작 등에 관심을 가지고 배급에 대한 고민도 했다"면서 "팀원들이 모이진 이후에는 궁극적으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영화를 할 수 있는 수익체계를 만드는 것, 영화 향유 문화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한 결과,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있었다. 우선 마음이 맞는 팀원들을 모으고 의견을 조화하는 사항에 어려운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팀원들 모두 궁극적인 목표는 같지만 세부적으로 관심이 있는 영역과 사업 방향을 정하는데 많은 토론이 필요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는 팀원들을 모두 모아 창립총회를 공고한 상태이며, 곧 창립총회를 앞두고 있다.

남가원 팀장은 "협동조합 창업 과정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를 잘 모르고 있었기에 생소한 것이 많았으나 하나씩 도움을 받아 해나가고 있다"면서 "모든 팀원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궁극적으로 공통의 목표를 상기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활동과 그 미래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게 될 때 보람차다"고 전했다.

지원사업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 받아

특히 조합 설립을 준비하며 창업지원사업을 통한 전문가 멘토링의 도움이 컸다. 무엇보다 창업지원금을 통해 초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짤 수 있다는 것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

"지원사업이 있어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길을 틀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해나갈 수 있



우리는 이 협동조합을 시작하는 과정을 통해 이미 성장하였습니다.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영화(film)로운 대구를 위해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협동조합 컨티뉴이티의 성장을 지켜봐주세요!

었던 것 같아요. 협동조합 선배님들의 멘토링 등은 정말 유익한 경험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청년 협동조합 팀들을 만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함께 해가나고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다소 어려울 수 있는 회계 관련한 교육이나 협동조합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등이 사업 구상에 대한 것들을 구체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협동조합 컨티뉴이티는 대구에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한 영화 문화를 향유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만들 권리, 볼 권리, 누릴 권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구의 문화, 특히 영화 문화를 증진시켜 궁극적으로 대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우리의 삶에 예술이 녹아들 수 있도록 '(가칭)다함쿵 사회적협동조합'

공연예술 저변확대 사업을 진행하다

“다함은 사람들이 숨쉬는 공간, 시민들이 예술과 함께 숨쉬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문화공간, 예술단체가 생겨서 다양한 예술장르가 시민들과 녹아들었으면 합니다.”

(가칭)다함쿵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다함')은 대전 동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대전 동구에서 펼칠 수 있는 공연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을 운영하는 문화복합공간을 운영하며 연극, 무용, 음악 등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예술교육과 기획공연, 행사기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대전대학교와 협력하여 관련학과, 복지관과 함께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산학협력을 펼치며 다양한 예술을 시민들이 접하고 우리의 삶이 예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전도시철도공사와 협약하여 지하철 버스킹, 지하철 문화행사, 유희역 공간 활용 등 다중이용공간시설과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창작집단 쟁이 사회적협동조합, 대전동구사회적경제연합회 등 대전 동구의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대와 협력을 통한 공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영리법인에서 비영리예술법인으로 전환을 꾀하다

2016년 설립된 작은극장 다함 협동조합은 문화예술단체이면서 영리법인을 운영하고 있어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전문예술법인 지정의 요건에 맞지 않는 상태였다. 다함의 김영태 대표는 설립 후 영리로 조합원의 이윤

- 팀명 (가칭)다함쿵 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김영태
- 주요사업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등 문화복합공간 운영, 대관, 공연 및 행사기획
- 설립연월 준비중
-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배분이 아닌 지역사회의 공헌적 성격이 더 많은 사업을 영위해 온 단체로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결정하고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조합원의 전원 합의로 진행된 조직변경인만큼 조직원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큰 문제 없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다만 정관, 세부사업계획서 등 서류 작성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고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가 문화예술단체의 특수성에 맞는 주 사업과 기타 사업의 설정,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문화예술법인 설립에 맞는 정관의 목적 등을 컨설팅해 주어 조직 변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조직의 정관, 재정계획, 인력 관리, 사업계획 등을 다시 한번 돌아켜 보는 계기를 가졌다. 이를 통해 팀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차기년도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통해 2022년 대전광역시 지정의 전문예술법인에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다함은 다음 단계인 사회적기업 인증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예술 접합점을 만든다.

다함은 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문화공간을 기반으로 한 공연 및 행사기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문화예술인, 기관과 함께 공연 창작 및 제작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 중이다.

“다함의 미션은 ‘더 많은 동구 주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문화예술 기회 확대’예요. 대전 동구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더 많아지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예술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김영태 대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다함은 공간운영, 공연 창작 및 제작, 공연 및 행사기획 등을 주요 사업 모델로 삼아 문화공간은 대여해 주고, 연중 기획공연을 통한 공연을 유통하며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공연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화공간으로 작은극장 다함 공연장, 다들 연습실, 다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설화와 역사 등을 소재로 한 공연을 창작 및 제작하여 대전 동구의 은어송 설화를 극화한 연극 ‘은어송 이야기’와 충남 도청 관사촌 소재의 미스터리 연극 ‘새는 날아가고’ 등을 제작했다. 또한 도



(가칭)다함쿵 사회적협동조합의 미션은 ‘더 많은 동구 주민이 일상에서 접하는 문화예술 기회 확대’예요. 대전 동구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 더 많아지기 위해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예술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시철도공사와 연계한 지하철 공연 버스킹 ‘거리滿歌’와 대전 동구의 공연전문예술축제 ‘가오페스타’, 가오동의 아트 프리마켓 & 버스킹 ‘가오장’도 다함의 노력으로 탄생했다. 김영태 대표와 직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통해 대전 동구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을 자주 일상에서 접하는 시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바람이다.

또한 다함뿐만 아니라 더 많은 문화공간, 예술단체가 생겨서 다양한 예술장르가 시민들과 그들의 일상에 녹아들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

창작인형극으로 환경과 생태를 이야기하다 '(가칭)상상생생 사회적협동조합'

팀명 (가칭)상상생생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지현
주요사업 시나리오 창작·출판, 캐릭터 개발, 공연 등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작인형극으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하다

“개인의 역량을 사회적 역량으로 승화하여 이웃과 함께 나아가는 어른들의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상상생생은 지난 2017년 6월 '상상생생인형극단'으로 창립해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50+재단 등에서 인형극과 강좌를 진행했으며, 올해는 '행복 인형이 갑니다' 인형 만들기 프로그램과 '작은도서관-책으로 읽는 생태이야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지현 대표는 기획 및 제작 역할을 맡으며 '초록이 우물에 빠진 날', '무지개 천사들' 등의 극을 집필한 바 있다. 또한 숲 해설가, 목재교육전문가 등의 자격도 갖추고 있다. 팀원들 또한 인형 의상 디자인 및 제작부터 작곡·음악·음향 담당, 창작극 출판·인쇄물 등 캘리그라피 담당, 작가, 총무·회계 등을 맡고 있다.

상상생생은 창작인형극으로 일거리 창출과,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 형성과 더불어 창작인형극을 통한 콘텐츠 개발과 시니어의 협동 작업으로 개인의 성장 욕구 충족과 경제적 활동을 참여하고 생태, 환경을 주제로 한 창작인형극 공연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공연 및 공연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공연 영상제작사업을 추진 중이며, 인형캐릭터 개발·제작 교육 및 판매, 시나리오 창작·교재 출판사업을 주요 사업모델로 설정했다.



시니어의 경험을 글로 표현하고 공연하다

상상생생이 창업을 준비하게 된 것은 인형극을 통해서였다. 시니어의 경험과 삶의 가치를 글로 표현하고, 글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직접 인형으로 제작해 인형극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활력 있고 의미 있는 여가생활을 즐기는 어른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이자 일터를 마련해 보자는 꿈을 꾸게 된 것이다.

그러나 꿈과 현실은 달랐다. 김지현 대표는 “열정은 있지만 아는 것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직접 몸으로 부딪혀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는 것이 즐거우면서도 힘든 과정이었다”며 “앞서 나아간 분들의 경험과 조언이 필요한 상태에서 협동조합 지원사업은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현재 상상생생은 지난 9월 15일 문화예술체육부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인형극 단원들의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경험을 하게 됐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행복 선물하는 것이 목표

무엇보다 창업지원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서류 작성법은 물론, 교육을 통해 세무, 노무, 네트워크 등 많은 것을 도움 받았다.

이를 통해 현재 상상생생은 창작동화극 9편 중 '무지개나라 천사들' 1편을 그림동화책으로 만들어 전자책으로 완성한 상태며, '무지개나라 천사들' 인형극을 영상 제작해 유튜브에 업로드한 상태다. 상상생생 단체의 팸플릿 또한 제작했다.

앞으로 환경, 생태 주제의 창작극을 그림 동화책으로 제작해 시리즈물로 만들고, 그림 동화책을 바탕으로 컬러링 북, 캐릭터 인형 개발, 공연 등의 사업으로 확장하고 싶다는 상상생생은 회원들의 능력 발휘와 함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작은 행복을 선물할 예정이다.



개인의 역량을 사회적 역량으로 승화하여 이웃과 함께 나아가는 어른들의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서로가 스며들어 연결고리가 된다 ‘(가칭)스میم문화예술 사회적협동조합’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구상하다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스میم은 문화예술 플랫폼 운영 및 네트워크, 콘텐츠 기획 및 개발 조직이다.

손의도 대표를 중심으로 한 6명의 조직원들은 다수의 문화예술사업 기획 및 촬영 경력과 공예작가 및 예술인들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지속적인 창작 활동 및 경제활동이 가능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가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까닭은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해 해당 지역만의 특화된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공해 지역 주민들이 문화예술에 친밀하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조합 설립의 목적을 묻자 손의도 대표가 말한다.

이를 위해 스میم은 문화예술인들과 협업해 지역의 인적, 물적, 문화적 자원을 조사하고 연구해 문화예술 콘텐츠 및 상품을 개발하고 또 판매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일거리를 창출하고 활동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지역만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다

스میم은 지역에서 청년문화예술인들과 꾸준히 협업을 하는 과정에 청년예술인들이 개별적으로 버티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

- 팀명 (가칭)스میم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 대표 손의도
- 주요사업 문화예술플랫폼 운영, 네트워크,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설립연월 준비중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환경을 백분 활용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지속가능성 확보할 예정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이 모여 지속적으로 교육받으며 성장하며 함께 하기에 스میم의 가능성은 누구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스میم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인 창원, 그 중에서도 특히 진해 지역은 문화예술의 공급과 향유기회가 많이 부족했다. 이에 스میم은 지역의 특화된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문화예술인들과 지역만의 콘텐츠 및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것은 곧 그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알리고 주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스میم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지원기관을 통해 자신들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 특히 비즈니스 영역에 대해 심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몇몇 성공 혹은 실패 사례를 케이스스터디 하며 벤치마킹하고, 개선점을 찾았다. 이렇게 완성된 사업 초창기 시스템은 스میم이 더 큰 목표를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청년 문화 사업으로 지역에 활기를 더하다

현재 스میم은 지역 주민들과 주민과 관공서 등 지역 사회와 협업 구조 마련에 힘쓰며 사업 모델 모색을 위해 예비 사업들을 실행 중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위한 서류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

“창업을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과 주민들이 저희의 활동을 필요로 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모습과 구성원들이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는 모습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میم은 자신들의 활동이 주민들 및 지역 사회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역 청년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공유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 확대함으로써 고령화가 심화되고 사업이 쇠퇴한 구도심 지역에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으로 활력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스میم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마무리 하고 사업 확장을 위해 정부지원사업 등에 도전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체 지역의 용역 및 입찰사업을 소화하여 수익의 증대를 꾀하고 있다.





청년예술가 네트워크로 젊은이들을 위한 무대를 만들다 '문화예술인큐베이팅 그룹 품'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창작 그룹의 필요성을 생각하다

1988년 마당극단으로 설립된 극단 현장은 2021년 새로운 조직체계의 변화를 꾀하던 중 문화예술협동조합 컨설팅을 받으며, 새로운 조직 형태의 구성으로 변경하여 설립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후 지금 시대에 필요한 예술가들의 협력조직으로서 태어나기 위해 문화예술인큐베이팅 그룹 '품'을 2021년 5월 조직하고, 청년예술가 네트워크를 통해 젊은 예술가들이 설 무대와 창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품은 젊은 예술가들이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예술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 왔다.

"젊은 예술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체계도 필요하지만 내부로 부터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기존 동인제 구조의 폐쇄성, 비민주성을 탈피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창작 그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규보 대표의 말이다.

이에 품은 자신들의 극단 현장을 예술지망생들은 대상으로 하는 인큐베이팅 센터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창작 그룹간의 결합과 협업을 통해 많은 청년예술인들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청년예술가 네트워크를 통한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확인하다

품이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청년 예술인력의 창작과 관련

팀명 문화예술인큐베이팅 그룹 품
대표 이규보
주요사업 예술장르, 역할 간 네트워크를 통한 청년 인큐베이팅 플랫폼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 멘토링과 예술지망생들의 소통 공간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느낀 품은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한다.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면서 개별 일정들로 지속적 모임이 어려웠어요. 수익형 사업이 아니다 보니 미래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컸고요.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초기 목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컨설팅 받으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규보 대표의 말이다.

실제 품은 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자신들의 협동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했다. 또한 다른 협동조합들의 준비 과정들을 공유하며 자신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보충·보완하며 체계적인 조합 설립을 준비할 수 있었다.

청년예술가들이 꿈을 펼칠 플랫폼을 꿈꾸다

현재 품은 지원사업을 통해 교육연극 교안개발 워크숍, 4회의 창업교육 멘토링, 3회의 교육 참가 등을 통해 자신들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원사업과 관련된 전체교육에 참가하며 다양한 사람들의 창업 계획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창업아이템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인큐베이팅 센터로서의 모델링 사업을 시도하며 추후 수익사업인 교육연극의 모델개발에도 도움을 받았다.

현재 계획 중인 품의 주요 사업 모델은 ▲ 문화예술 인큐베이팅 플랫폼 구축 : 기존 공간 활용 및 주변 예술단체의 공간 네트워크 ▲ 장르간 매칭 : 타장르와의 다양한 결합을 통한 창작과정 지원 ▲ 창작 기부멘토링 지원 : 선배예술가들의 축적된 경험 공유 ▲ 창작훈련 아카데미 개설 : 조합원들의 필요에 의한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 구성 ▲ 창작물의 무대화 지원 : 다양한 피드백 과정을 통한 창작물의 무대화 ▲ 조합원 상담 및 문화예술 정보 플랫폼 :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온/오프라인 상담과 정보제공 등이다.

특히 타 조합과의 연대를 통한 창작의 다양성 확보와 지역 사회에 대한 창작물 발표를 중요시 하고 있다.

"우리는 젊은 예술 인력들의 장르간·인적간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해 쉽게 사장되기 쉬운 아이템들이 현실성 있게 완성되고, 그것들이 예술환경을 바꾸길 원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지역민들의 정서 함양과 예술적 참여



우리는 젊은 예술 인력들의 장르간·인적간 네트워크 공간을 제공해 쉽게 사장되기 쉬운 아이템들이 현실성 있게 완성되고, 그것들이 예술환경을 바꾸길 원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결과적으로는 지역민들의 정서 함양과 예술적 참여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고 있어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청년예술가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품의 행보를 응원한다.

WORK

안정적이고 차별없는
일자리를 만들다

글로벌미용강사협동조합
폴크디자인협동조합
(가칭)다시합시다 사회적협동조합
(가칭)단비 사회적협동조합
(가칭)사회적협동조합 품에
(가칭)해늘 사회적협동조합
서울돌봄과살림



다문화 여성들과 한국 미용 인재들이 함께해 미용 교육 실행하다 '글로벌 미용강사 협동조합'

다문화 이주민들 대상으로 미용 교육 실행하다

“다문화 이주민 여성으로 이뤄진 글로벌 미용강사 협동조합은 구성원들이 자국민에게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대전미용교육취업창업지원센터에서 동구애 글로벌미용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이다영 대표는 글로벌 미용강사 협동조합 설립 준비를 거쳐 지난 9월 28일 창립총회까지 마친 상태다.

글로벌 미용강사 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중국·태국·베트남·필리핀 등 다문화 여성들과 한국 미용 인재들이 함께해 한국에 이주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미용 교육을 실행, K뷰티의 해외 진출 시 미용 통역가로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창립됐다.

교육 및 취업, 창업 지원 등 정보 제공을 통해 다문화, 이주민 여성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국가별 미용 강사 양성을 통해 자국민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겠다는 포부다.

코로나19로 인해 추진계획에 지연이 생겼지만 이를 기회로 삼아 강사 출강사업의 지속성을 높여 고용안전 확보 및 다문화 가정의 미용 교육 시스템 구축, 미용 교육 제공 및 취업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력했다.

이에 현재 이사장을 포함한 다문화 미용강사 회원들은 글로벌 미용강사 협동조합 이사진들과 K뷰티 교육에 몰두하고 있는 상태다.

법인명 글로벌 미용강사 협동조합
대표 이다영
주요사업 미용강사
설립연월 2021년 10월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의사소통 어려움 있으나 멘토링 통해 협력

다양한 국적 출신의 조합원이 만나 처음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미용 기술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해 나간 것이 가장 보람있었다는 글로벌 미용강사 협동조합. 그 예로, 자격증 취득 과정에 있어 어려운 기술을 서로 멘토링 하며 협력했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사실 협동조합 설립 준비에 있어 비용 발생에 대한 부담이 컸다”면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으로 인해 부담이 현저하게 줄어들어 활동에 어려움을 덜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무엇보다 글로벌 미용강사 협동조합은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제1회 다문화 미용봉사의 날 진행(21.09.28) △문화예술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뷰티산업의 발전을 위한 대전문화예술네트워크 협동조합과 업무협약(21.10.19) △한국헤어디자인협회에서 진행하는 공모전 참여(21.10.26) △80여개의 미용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뷰티컴퍼니 협동조합

과의 업무협약(21.10.26) △다문화 가정의 방과 후 수업, 미용 교육 등 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대덕구 다문화 가족센터와 업무협약(21.10.28) 등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전했다.

팀을 통한 시너지 효과 통해 이주 여성에게 도움될 것

“개인의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지만 개인이 모여 협동을 하는 것은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팀으로 보여주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대한민국의 다문화 이주민 여성이 큰 소리를 낼 수 있고 나아가 사회, 지역 공동체에 모범을 보인다면 그것이 나비효과가 되어 많은 이주 여성의 사회적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글로벌 미용강사 협동조합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문화 이주민 여성이 한국 사회 내에서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나아가 미래 다문화 여성의 인권이 더욱 개선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여전히 달리고 있다.

비록 지금은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지만 점차 여러 마리의 나비의 날개짓이 되어 대한민국의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공동 프로젝트, 디자이너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새로운 미래를 꿈꾸다 '폴크디자인협동조합'

프리랜서 디자이너들, 조합원이 되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에게 행정, 교육, 공간, 솔루션 및 방법론, 마케팅, 협업 네트워킹 등 실질적 지원을 통해 수익성 향상 및 사업화 추진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디자인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미션을 가지고 설립된 폴크디자인협동조합은 2021년 3월 조직됐다.

디자인과 프로젝트 PM을 맡고 있는 팀장과 팀원 4명으로 이루어진 폴크디자인협동조합은 디자인 컨설팅, 브랜드 디자인,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디자이너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폴크디자인협동조합의 박건애 디자이너는 제품 패키지 디자이너로 16년간 일을 한 디자이너다. 팀원들 모두 디자인 관련 업계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쌓아온 이들이다. 이들은 회사를 퇴직하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홀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유지비용이 크다보니 많이 망설여지게 되더라구요. 그러한 이유로 요즘 흔한 공유오피스를 이용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처지의 조합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신청서에 저희 조직명이 성수디자이너스였거든요. 단어 그대로 성수동에서 만난 디자이너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입니다.”

이렇게 만난 폴크디자인협동조합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들이 수주하기 힘든 공공이나, 민간의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여 함께 진행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디자이너의 실무교육 지원, 서로의 경험을 공유들을 통해 디자이너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법인명	폴크디자인협동조합
대표	박건애
주요사업	디자인
설립연월	2021년 10월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원사업으로 조합의 미래를 구체화하다

이들의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참여는 ‘함께 재미 있는 것을 해보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께 만들어 가보자’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한 조합원의 추천으로 이루어졌다.

박건애 대표는 “사실 협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협동조합을 창업하면서 협동조합이 우리와 같은 프리랜서들에게는 적합한 조직 형태라는 확신이 들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조직형태 구성, 사업의 구체화, 조직의 미래를 지속적으로 그려보기 시작했다.

개인 사업자라면 스스로 결심만 한다면 일주일만이라도 사업자를 낼 수 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여러 사람이 주인이 되는 회사인 만큼 논의사항도 많고 절차도 복잡하다.

지원사업을 참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처음 조직을 구성하던 처음의 마음을 유지하면서 조직형태를 갖추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폴크디자인협동조합의 설명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접한 폴크디자인협동조합은 점점 사업을 구체화하며 입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조합 설립에 대해 필요한 모든 것에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매달 있었던 멘토모임에서 멘토님이 사업의 큰 방향을 잡아주어 길을 잃지 않고 지원사업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다.

작은 웅덩이, 큰 바다를 꿈꾸다

처음에는 공통점에 끌려 함께 하기로 한 조합원들이었지만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서로의 차이점을 느끼면 어려움도 있었다. 서로의 작은 차이를 알아가는 과정이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미래를 함께 그릴 수 있는 중요하고 귀한 시간이었다.

창업을 준비하며 네이밍 워크샵에서 처음 계획했던 성수디자이너스 협동조합에서 폴크디자인 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폴크디자인 협동조합의 폴크(POLK)는 영어 Pol이 어원으로, 스코틀랜드 말로 ‘작은 웅덩이’라는 의미다.

“작은 웅덩이가 모여 큰 바다를 이루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담은 이름이에요. 네이밍을 하고 보니, 저희 창립 조합원들의 이니셜이 모두 담겨있어 ‘우린 운명이야~’라며 무릎을 탁 쳤어요.”

폴크디자인협동조합은 최근 협동조합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성동구에 있는 서울디자인타운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유능한 디자이너가 대접받고 일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경력단절이 되었거나 다른 업계에서는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로서는 시니어가 되어버린 선배 디자이너들에게도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목표이자 꿈입니다.

쇄협동조합과 첫 미팅을 진행하였고,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성수동에 위치한 또 다른 인쇄업체와 장기적인 업무 협약을 위하여 준비 중이다.

폴크디자인이 꿈꾸는 세상은 유능한 디자이너가 대접받고 일하는 세상이다. 또한 박건애 대표와 같이 경력단절이 되었거나 다른 업계에서는 한창 일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디자이너로서는 시니어가 되어버린 선배 디자이너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조합 설립을 통해 큰 꿈을 꾸고 있는 폴크디자인협동조합의 미래를 누구보다 응원한다.



신중년들, 다시 모여 뛰다 '(가칭)다시합시다 사회적협동조합'

전기, 전자, 기계 분야 퇴직자들, 뭉치다

2021년 6월에 조직되어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다시합시다 팀원 대부분이 전기, 전자, 기계 분야의 직장에 종사하다 퇴직한 신중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 그러나 늘어난 수명과 높아지는 고령인구의 비율과 달리 직장에서의 체감 정년은 50세 전후에 머물고 있다.

은퇴 후 일자리를 희망하는 5060 신중년이 생산 가능 인구의 1/3에 달하고 있지만, 이들이 축적한 전문지식과 새로운 일자리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시합시다 는 냉·난방기 및 세탁기 분해 청소와 청소 등을 주 사업 아이템으로 취업 취약계층인 신중년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창업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다

다시합시다 는 정부지원 일자리 사업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냉, 난방기 분해 청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의 사업 모델의 경쟁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모여 뜻을 모아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구상하게 되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조합 설립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다시합시다 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이 자신들의 목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

팀명 (가칭)다시합시다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이승학
주요사업 냉·난방기 및 세탁기 분해 청소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단했다. 사업 중 코로나 19 등으로 인해 창업 과정 등 많은 부분이 늦춰졌지만 다시합시다 는 현재까지도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이라는 목표 아래 조합원 각자가 자신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

다만 이승학 대표를 포함한 조합원들이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생소한 부분이 많았던 까닭에 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모든 부분이 낯설었다.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알아가면서 뜻이 맞지 않아 중도에 이탈하는 조합원도 있었다.

기존의 위탁 사업에서 조합 설립을 통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려다 보니 사무실 임대 등에 들어가는 자금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이룬 것과는 별개로 대표 한명의 주도가 아닌 조합 예비구성원 모두가 의견을 교환하고 뜻을 모아가며 창업 과정을 진행해나가는 부분은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다.

창업 후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 제공할 것

다시합시다 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창업에 필요한 노하우를 전수받고,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며,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 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기회가 얻었다.

"지원기관인 라이프매직케어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설립 과정, 회계에 대한 강의, 창업 과정에 대한 멘토링 케어 등 창업과정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어 조합 설립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합시다 는 지난 11월 12일 마지막 발기인 모임을 진행하고 11월 19일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다시합시다 는 취업 취약계층인 전문직 퇴직자 신중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하고, 정부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사회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냉, 난방기를 무료로 청소하며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기관인 라이프매직케어가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정의, 설립 과정, 회계에 대한 강의, 창업 과정에 대한 멘토링 케어 등 창업과정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도움을 주어 조합 설립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신나게 일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삶의 터전을 꾸리다 '(가칭)단비 사회적협동조합'

일자리 구축과 소규모 농민의 상생을 목표로 하다

2016년 발기인들이 모여 세워진 단비협동조합은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발달장애 청년이 신나게 일하고 부모가 안심하는 삶의 터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장애, 비장애인이 파트너로 협업하는 환경구축 ▲ 발달 장애 청년을 위한 착한 일자리 구축 ▲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통한 소규모 농민과 상생 등을 목표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협동조합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발달장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구축해 온 단비는 지난해 발달장애 청년 매년 1명 고용, 장애 및 비장애인이 신나게 일하는 2:1 협업환경 구축, 고객이 신뢰하는 브랜드 구축 등을 통해 착한 식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

'단비 방앗간' 발달장애 청년들의 자립을 돕다

단비 협동조합의 1호 사업장인 '단비 방앗간'은 장애 청년들이 마을에서 함께 일하고 생활하기 위한 곳이다.

주요 상품은 저온 로스팅 고급 식용유지류(생들기름, 참기름, 들기름), 저온 로스팅 곡물 간편식류(귀리쉐이크, 검은콩 선식 등), 비건 한식 디저트류(그루텐프리 떡꾸키, 떡케이크 등) 등으로 DIY 체험농장 및 위탁 생산도 가능하며 방앗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중이다.

단비 방앗간에서 판매하고 있는 기름과 곡물류는 100%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전, 옥천, 보은, 금산의 소규모 농민이 재배한 로컬

팀명 (가칭)단비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현우
주요사업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통합 환경 구축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대전광역시 동구

푸드 원재료를 공급받아 대전 동구에 있는 단비 방앗간에서 직접 기름과 곡류 가공품을 생산한다.

모든 곡물은 다섯 번 씻고 저온 건조한 뒤 저온 로스팅, 착유하여 발암물질에도 안심할 수 있으며 판매로 얻은 수익은 전액 발달장애인 자립을 돕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단비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진행하게 된 까닭은 의외로 명확하다.

"단비는 일반 협동조합의 형태지만 실질적인 운영을 살펴보면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 등 사회적협동조합의 운영 방식을 이미 채택하고 있었어요. 때문에 조직변경의 필요성과 설득에 과정이 순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우 대표의 말이다.

지원사업 통해 조직 전반을 분석하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것이 조직의 정체성과 조직 형태에 부합하기에 정기 총회를 통해 조직 전환을 결정했다.

다만 이미 설립 후 운영되고 있는 법인 형태에서 조직을 변환하는 것은 행정과 회계 관계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았기에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다.

고민하던 김현우 대표와 조합원들은 법인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전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 행정 서류 준비, 재무 건전성 등 다양한 조인과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

단비는 사업 참여를 통한 조직변경을 통해 설립 후, 5년째 되는 조직 전반을 총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를 통해 다시 한번 단비 설립 초기의 목적을 복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노령화와 1인 가구 증가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변화 촉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 청년의 사회 통합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장애청년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국가 조직 외에도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자발적인 발달장애 부모, 발달장애인 당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고할 수 있는 기업 혹은 기관들이 필요하다.

단비는 자신들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이 이러한 주체들에게 새로운 사례를 보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신중한 걸음을 걷고 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임에도 보여주지 않는 것까지는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비가 그러한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간호·간병 분야의 일자리 사업으로 고연령 여성·저소득 취약계층을 돕다 '(가칭) 사회적협동조합 품애'

팀명 (가칭)사회적협동조합 품애
대표 이용대
주요사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재활 인력 사업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부산광역시 진구

간호·간병 분야 인력공급업이 주요 사업

“부산간병협회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고자 결정할 때 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조합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조직변경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의 멘토링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변신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부산간병협회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가칭)사회적협동조합 품애(이하 '품애')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에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등록 서류를 접수한 상태다.

품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중 재활서비스의 지원인력인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의 인력을 병원에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조직 변경, 취약계층의 고용과 고용유지에 더 큰 도움

품애는 간호·간병 분야의 일자리 사업을 통해 고연령 여성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고용형' 사업을 진행하며, 고연령 여성과 저소득 계층을 직원화해 직원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에도 집중하고 있다.

조직 변경 이전 부산간병협회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진행하던 품애는 인력공급업이 부가치세 납부의 대상임에 따라 병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의 재활 부분 간병

응역사업에 대한 망설임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품애는 조직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경할 경우, 부과세 부분이 면세되어 재활병원에서 간병응역사업 제도를 받아들이기 더욱 쉬울 것이라고 판단해 조직 변경을 결정하고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일반 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취약계층의 고용과 고용 유지가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사회의 사회적 사업에 큰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이용대 대표의 말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을 넘어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다

이렇게 지원사업에 참여한 품애는 협동조합의 이해, 여러 선생님들의 멘토링 및 각종 교육을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를 이해하고 나아가 사회적기업까지 이 해하는 계기를 얻었다.

조직 변경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종 조직 변경이 완료된 이후, 품애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정관 그리고 사업내역서상 사업을 간병에 한하고 있지만 향후 가사·파출 및 동행사업 등 각종 돌봄사업에 진출하여 사회적협동조합을 넘어 사회적기업으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간극을 좁히다 '(가칭)해늘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처음 두레라는 이름으로 조직된 (가칭)해늘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해늘')은 사회복지사 및 활동보조인 등 자격을 갖고 있는 5명의 팀원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해늘은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을 이루고, 훈련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 사회에 적응하도록 도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사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해늘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있는 거리의 한계를 확인하고,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견을 좁히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의 사회적응훈련을 진행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하며 함께 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신지연 대표의 말이다.

지원사업, 사업의 방향성·운영의 지속성 확립 도와

해늘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 목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장애인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는 것이었다.

“성인 장애인이 되고 나면 부모의 돌봄에 한계가 있어요. 때문에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삶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제한적이고 사회적으로 장애에 대한 이해가 적어 지속

팀명 (가칭)해늘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신지연
주요사업 사회적응훈련, 부모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상담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경기도 고양시

적인 취업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원사업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 싶었어요.”

해늘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지원기관인 에이치비엠 사회적협동조합의 도움으로 ▲ 사업 계획 및 예산에 대한 방향성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 ▲ 향후 협동조합에 운영에 대한 지속성 및 방향성 등을 확립할 수 있었다.

사업이 거의 마무리된 지금, 사회적응훈련 중 하나인 두레 농구교실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교육을 시도했으며, 부모 교육 사업을 통해 아이들의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장애인들이 당연한 삶을 살도록 돕다

“사업을 통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일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개선되는 것을 느꼈어요. 현재 해늘은 설립 인가를 신청한 상태로 앞으로의 활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늘은 장애인들이 평생 일자리를 지속하여 장애인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해늘의 활동의 바탕에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편견을 벗어나 세상을 당당하고 자유롭게 자신만의 걸음을 걸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현재 장애인의 취업지속정도는 평균 2년으로 매우 짧은 기간을 유지하고 있어요. 해늘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을 다각화해 사회적응도 높이고 경험도를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여성 일 자리를 창출하다 '서울돌봄과살림'

변화와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의 일터로 키우다

서울돌봄과살림은 1966년 서울YWCA에서 시작한 돌봄서비스가 모체로 5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돌봄서비스 파견 조직이다. 2013년 5월 1일 서울YWCA에서 사업단을 구성해 유료직업소개소형태로 돌봄서비스 파견업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조합원들 모두 사회복지와 직업상담 훈련을 받은 분들로 구성돼 있으며, 가사·간병·아기 돌보미·산후조리사 영역의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회원들을 교육하고 파견, 관리하고 있다.

서울돌봄과살림은 이용 회원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와 도약을 꿈꾸는 사람들의 일터로 키워나가는 것이 목표다. 또한 섬김을 통해 여성의 삶과 일터를 키워나가며 생명과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미션이다.

서울돌봄과살림의 사업분야는 세부적으로 △가사돌보미 △아기돌보미 △세이프맘 △산후조리사 △간병사 △돌봄서비스 제공 등이며, 구인구직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다.

돌봄 서비스는 서울YWCA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성을 갖춘 구직회원들로 구성했으며, 매년 건강검진(B형 간염 등 전염성 병 검사)을 받은 신체 건강한 분들로만 이뤄졌다. 또한 매월 1회 보수교육 및 전문심화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봉사활동·동아리활동 등 다양한 자치활동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팀명 서울돌봄과살림
대표 -
주요사업 돌봄 서비스 제공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자발적 참여 의지 고취 어려워

서울돌봄과살림은 가사근로자법 도입에 따른 법인격체 사업장 형태로의 전환과 돌봄서비스의 공공영역으로의 사업 확대 필요성을 인식해 협동조합 창업을 준비하게 됐다. 여기에는 돌봄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구직회원들에 대한 직업 인식 개선 필요도 고려됐다.

하지만 협동조합에 대한 기초교육이 없어 지원이 필요했으며,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전환 및 자발적 참여 의지 고취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윤리적 소비창출을 할 수 있고, 취업 취약계층인 중장년들의 자립경제를 도와줄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원사업 통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 높아

현재 서울돌봄과살림은 조합원이 될 직원들과 후원 조합원이 될 법인 참여자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끌어내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 과정과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한 지식전달은 물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창업을 위한 멘토링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생길수록 사업팀을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주인의식이 생긴 것을 볼 때 보람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성공적으로 협동조합 창업을 이뤄 공공영역에서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서비스 직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에게 주인의식을 불러일으킨다면 전국 25여개의 YWCA 돌봄서비스 사업체들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돌봄서비스가 단순한 수익창출을 위해 앍을 기반으로 매칭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취업취약계층의 중장년 여성들에게 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일으킬 수 있게 교육을 제공하며 일 자리를 알선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을 기반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합을 만들어 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REGIONAL BASIS

다양한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의 한 축을
담당하다

강원생활체육협동조합

고도협동조합

미나리협동조합

숲속식탁 협동조합

예술이음플랫폼 협동조합

울산클린존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굿스니저

협동조합 따손

(가칭)가치울림 사회적협동조합

(가칭)상상나래 사회적협동조합

여행하다

(가칭)하모니 협동조합

(가칭)해녀와바다 사회적협동조합

동구씨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산악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하다 '강원생활체육 협동조합'

스포츠 분야의 전문가들이 뭉치다

산악스포츠 클라이밍 트레일러닝 산악스키를 기반으로 스포츠의 저변 확대, 스포츠 강의와 대회유치 등의 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생활체육협동조합은 조합 설립을 통해 지역 생활스포츠의 활성화를 꿈꾸고 있다.

클라이밍을 무대로 강원도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강원도 대표팀 감독을 역임한 트레일러닝 국내랭킹 1위인 김지섭 선수와 프리스타일 평창올림픽 해설위원인 김주용 선수로 구성된 조합원들은 산을 무대로 활동하던 선수들만 만큼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고 현재 하나의 목표를 향해 걸어 나가고 있다.

이들은 현역 선수로서 활동을 하며 각자의 분야에서 눈에 띄는 업적을 남긴 선수들이었지만, 막상 선수생활을 마무리 짓고 나니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수생활의 연장으로 강습을 하고 팀의 감독을 맡아 활동하던 이들은 일반인이 자연스럽게 스포츠에 참여하도록 돕고 자신들이 좋아하던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던 중 창업을 결심하고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일반인들의 스포츠 참여를 위한 조합설립을 결심하다

막상 조합 설립을 결심했지만 당시 강원생활체육협동조합의 조영순 대표는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고, 김주용 선수는 스키교실에 참가하고 있었음 김지섭 선수는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있었기에 각자 시간을 내어

법인명	강원생활체육협동조합
대표	조영순
주요사업	생활체육전반적인 사업
설립연월	2021년 8월
소재지	강원도 원주시

모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때문에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평소 자신들이 잘 모르던 분야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창업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서류와 관련된 절차와 작성 등은 지원기관인 콤비협동조합 컨소시엄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

"조합설립을 위한 등기를 발급 중인 지금, 아직까지 특별한 성과는 없지만, 창업 과정 전반에서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사실과, 내가 좋아하는 산악 스포츠를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몹시 설레입니다."

강원도 스포츠 대중화와 선수육성에도 도움줄 것

곧 조합 설립을 앞둔 강원생활체육협동조합은 앞으로 전문 스포츠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일반인들이 스포츠에 더욱 친숙해 지도록 돕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포츠를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원주 트레일러닝 대회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닝 강습회를 시작으로 클라이밍 겨울 산악스키교실 등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강원생활체육협동조합은 자신들의 날개짓이 강원도 스포츠의 대중화와 선수육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회유치로 강원도 스포츠 사업에 이미지 하고 싶다는 그들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내년에는 원주 트레일러닝 대회 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레일러닝 강습회를 시작으로 클라이밍 겨울 산악스키교실 등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생활체육 지도자분들을 영입하려고 합니다.



소상공인들의 사업 성공을 위해 공간과 능력을 마련하다 '고도협동조합'

법인명 고도협동조합
대표 김지홍
주요사업 서비스, 디자인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지역 활동가들과 협업하며 가치를 발견하다

고도 협동조합은 지난 2019년부터 지역 농부 및 활동가들과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다양한 활동과 가치를 발견하게 됐고, 이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주체로써 공간과 능력을 마련하고자 조합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소상공인들의 온라인판매를 위한 제품 사진 촬영과 온라인 판매를 위한 실시간 방송 공간 대여 및 촬영을 지원하는 고도 협동조합은 경남 지역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한 소식지 발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고도 협동조합은 발기인 구성이 완료된 상태이며, 10월 창립총회 까지 끝낸 상태다. 현재 사무실 임차와 설비 구축을 진행 중이다.

고도 협동조합은 사업을 위해 김해 시내 스튜디오 공간을 마련함과 더불어 촬영 등의 장비도 구축했다. 현재 쿠킹 스튜디오 시설을 확보한 상태다.

또한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들과의 라이브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환경부 지정 사회적기업인 조이비와 협업 방송을 진행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국토부 지정 사회적기업인 정우플로우와 촬영을 끝냈다. 부산 대표 기업으로 선정된 (주)코봇과도 촬영을 진행했다.

더불어 지역 전문가 데이터 확보 및 공유가 가능한 홈페이지도 제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튜디오 예약 및 지역 전문가 정보를 지역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네트워크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협업 필요해

고도 협동조합은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토로한다. 네트워크의 한계 돌파를 위한 지역기관들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지역 활동가 및 청년 소상공인들의 의견 전달을 위한 창구도 필요하다는 것.

“지역 청년 활동가 및 지역 활동가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지역 내의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협업 아이디어 모색 기회 필요합니다. 지역 청년 단체 및 청년 농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 활동가들과의 연계도 필요하지요.”

이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로컬의 문화 활성화에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어 지역문화 발전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김 대표는 말했다.



앞으로도 협동조합을 통해 지역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들의 홍보 방안과 브랜드 구축에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푸드 및 청년 농부 등 로컬의 특성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하겠습니다.





광진구의 바른 먹거리 생태계를 만들다 '미나리협동조합'

지역 먹거리 생태계 조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린다

“지역이 필요로 하는 바른 먹거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채우기 시작했더니 지역 먹거리 생태계 조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어요.” 미나리협동조합 김연희 대표는 단순한 바른 먹거리 제공에서 벗어나 광진구라는 지역이 진짜 필요로 하는 지역 먹거리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미나리협동조합은 동부여성발전센터의 바른 먹거리 강사양성과정을 이수한 22명 중 10여 명이 1년간 동부여성발전센터의 동아리모임과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그리고 담쟁이협동조합과의 협업과정(50플러스 이모작 중년남성요리교실)을 통해 최종 3인이 모여 지역과 함께 먹거리로 어떤 유의미한 일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동부여성발전센터 기관 내 1층 카페 창업에 지원하며 조직 설립의 발판을 마련하고, 카페를 거점화하여 지역과 함께 먹거리로 삶을 바꾼다는 큰 포부를 5월 10일 카페를 창업했다.

현재 김미정 요리연구가, 김연희 대표 겸 사회적경제 담당, 안은진 한식 디저트 요리전문가가 함께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다. 미나리협동조합은 건강한 먹거리 생태계 조성, 여성의 자립과 성취, 사회적경제 공동체라는 미션을 가지고 운영되며 맞춤형 먹거리 교육 서비스, 카페 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개발 및 판매사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대표는 “바른 먹거리 강사과정을 통해 먹거리 문제점들에 대해 생각을 모으고 지역 먹거리 생태계 조성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며 “지금까지 즐겁게 추구하며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지역과 함께 엮어내서

법인명	미나리협동조합
대표	김연희
주요사업	바른 먹거리 교육사업, 카페사업, 먹거리 상품 개발 및 판매, 유통, 전자상거래 사업, 조합 간 협력을 위한 사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
설립연월	2021년 10월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의 필요를 채운다면 먹거리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창업계기를 전했다.

함께라면 어떠한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

미나리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모였기에 시작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한다. 함께하면 어떠한 문제라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모여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됐다. 그러나 코로나의 벽은 높았다. 막상 카페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은 마음과는 달리 어려운 일여서, 법인을 만들어야겠다는 판단으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사업 참여를 통해 법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로고 디자인과 홈페이지도 만드는 등 협동조합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법인을 만드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느꼈던 조합원 모두는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법인 등기 관련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 한다.

김 대표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법인 등기 관련 과정과 예산을 사용하는데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어려운 과정을 거쳐 모두가 바라던 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전했다.

멘토링 통한 먹거리 사업 진행 기회 얻어

미나리협동조합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먹거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이야기한다. 기존에 막연하고 추상적이었던 생각들을 멘토링을 통해 구체화했고, 사업가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

또 마케팅 컨설팅을 통해 운영 전반에 대해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를 얻은 것은 물론, 메뉴와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지역과 연대를 통한 먹거리 관련 사업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김 대표는 “먹거리 사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변화해야한다”며 “중년인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막상 뛰어들어보니 할 일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먹거리 생태계를 만드는 일은 문화사업이다”라며 “작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 지역사회와 지역 공동체, 이웃들과 함께 행복한 밥상, 건강한 식재료와 바른 먹거리 교육을 함께한 지역밥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꿈이다”라고 전했다.



혼자선 할 수 없었던 일, 함께하면 가능하다.

미나리협동조합은 먹거리 생태계를 만드는 것에 가치를 두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고 있다. 직장맘과 1인 가구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지역의 광진행복중심생협과 협업해 밀키트를 생산 공급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함께하는 밥상을 만들어 보는 일, 중년남성들이 스스로 밥상을 차리는 요리교실을 제안하는 일, 이러한 다양한 활동에서 미나리협동조합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미나리협동조합이 이루고자 하는 꿈. 그 건강한 꿈이 이뤄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하다.



양평의 건강한 먹거리를 이용해 행복을 제공하는 '숲속식탁 협동조합'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다

“양평의 산과 들에서 자란 건강한 먹거리로 드시는 분들의 행복을 만들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수제도시락과 쿠키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숲속식탁 협동조합은 지난 2020년 9월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숲속식탁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다 지난 6월 협동조합 설립까지 완료한 상태다.

현재 양평의 산나물 등 임산물을 이용한 수제잼과 페스토를 개발하는 것과 더불어 수제도시락을 판매하고 있으며, 양평군 특성상 암환자 요양원이 많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채식·비건 김치와 비건 만두·해독스프 등을 판매하고 있다.

팀원들은 모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로 조직됐다. 채송미 대표는 레시피 개발 및 상품기획 등 총괄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전공했으며, 친환경 재료를 이용한 요리 외 식생활교육을 해왔다.

또한 영양사 자격증과 한식조리사, 전통음식조리능력사, 아동요리지도사, 궁중요리, 사찰음식, 전통음식 등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으며 지역특산물, 제철음식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및 강연을 하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농림부장관 표창을 받은 바 있으며, 저서로 '땅따이의 친환경 요리 교실', '한살림요리', '한살림집밥' 등이 있다.

조경송 팀원은 20년간의 직장생활 후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 기후위기, 식량 주권, 농업 등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주

법인명 숲속식탁 협동조합
대표 채송미
주요사업 수제잼, 수제도시락, 쿠키클래스 등
설립연월 2021년 5월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부로, 현재 회계·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최미영 팀원은 양평군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한식과 양식 조리사 자격증이 있다. MBC아카데미 홍보물 제작 및 편집, 디자인 등으로 15여 년간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아 다양한 홍보활동 및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박성애 팀원은 한살림 조합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친환경 먹거리,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지킴이를 자처하며 관내 시민활동가들과 연대하고 있으며, 유통·영업 총괄을 담당한다. 최정숙 팀원은 자연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숲해설가 교육을 수료한 바 있으며,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에서 식생활 교육강사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 지역 단체들과 연대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농산물 소비 증대를 위해 창업하다

숲속식탁 협동조합 설립은 양평에 거주하며 한살림 생활협동조합에서 소모임과 자주 공부모임을 통해 서로 알게 된 팀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밥상은 신토불이의 원칙에 있음을 공감하며 건강 요리에 대한 남다른 애착과 열정으로 소통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작물이야말로 우리 몸에 이로운 것임을 원칙처럼 지키고 삶에 적용하고자 지역의 산마늘 생산 농가, 표고버섯 농가, 더덕을 생산하는 농부들의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식재료를 구입했어요. 채송미 대표를 주축으로 다양한 건강 요리를 공유하던 중 이제 단순히 내 가족의 밥상을 책임지는 주부의 입장에서 나아가 지역과 사회를 건강하게 변화시키고, 함께 가게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동조합이란 형태로 창업을 해보자는 생각들이 모여 준비하게 됐습니다.”

공익을 위한 협동조합 다짐

하지만 협동조합이란 개념도 없던 터라 용의와 법적인 절차, 회계 등 학습해야 할 것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한다. 결국, 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이들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채송미 대표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법인화 과정, 지원사업비 사용 등 여러 가지 궁금점들에 대해서 문의할 때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줘서 큰 힘이 됐다”면서 “법무사 없이 법인화 과정을 구성원들이 해낸 것도 큰 보람이었다”고 말했다.

아직 영업이나 매출에서는 성과가 미비하지만 사업을 할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의 나물, 표고버섯, 더덕 등을 생산하는
농부들께 직접 식재료를 구입해 다양한
가공품을 만들어 팔면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소비자에게겐 질 좋은 가공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모두의 공익을 위해
함께 가고 싶어요.

수 있는 기틀을 만든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는 숲속식탁 협동조합은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함께 성장하고 나아갈 예정이다.



신기술과 전통이 결합된 콘텐츠로 지역에 자부심을 더하다 ‘예술이음플랫폼 협동조합’

다양한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다

예술이음플랫폼 협동조합은 지역의 애니메이션, 영상 촬영, 도자기 제조, 로컬푸드, 수경재배, 3D 프린팅,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모였다.

자신들이 활동 중인 지역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운영으로 해당 지역에 새로운 신기술과 전통을 융합해 신 관광단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예술이음플랫폼은 말 그대로 다양한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기 위한 조합이에요. 4차 산업과 6차 산업의 로컬 수경재배 및 지역 행사를 융합해 지역민들이 직접 K물결을 이끌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술이음플랫폼은 행사와 상품들의 온·오프라인으로 플랫폼은 물론, 지역의 자부심과 지역 콘텐츠 창작 활동 전개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홍보 및 마케팅을 통해 전통 공예와 4차 산업을 연결하고 있다.

지원사업 통해 3D융복합 시제품 제작

4차 산업과 6차 산업의 융·복합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예술이음플랫폼은 지난해부터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했다. 5명의 조직원을 모아 사업 참여의 취지를 설명하고 올해 사업에 지원하게 되었다.

이예진 대표는 “사업에 참여하며 3D 융복합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다”며 “사업에 참여하며 받은 컨설팅과 멘토링을 통해 협동조합에 대해

법인명 예술이음플랫폼 협동조합
대표 이예진
주요사업 3D 융복합 로컬 콘텐츠 스튜디오
설립연월 2021년 10월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자세히 알게 되어 조합을 설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사실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찾고 마음이 맞는 조직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마음이 맞는 창작자 5명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면서 로컬 콘텐츠를 3D로 다양하게 해석하는 주요 사업 분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창업을 준비하며 지역 이벤트에 참여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로컬 팜파티였는데 로컬 농장과 수경재배 프로그램 그리고 3D 기술과 융·복합된 베이킹, 도자기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했어요. 당시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풍성한 지역 행사였다고 평가했었어요.”

지역민 중심의 로컬 문화 형성에 도움될 것

예술이음플랫폼은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생각했던 ‘지역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운영으로 새로운 신기술과 전통이 결합된 콘텐츠로 지역이 관광단지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협동조합으로 성장’이라는 목표에는 한 발 더 다가섰다.

현재 예술이음플랫폼은 현재 3D를 사용해 6차 산업인 농업과 수경재배라는 콘텐츠를 융복합해 체험행사에 쓸 수 있는 로컬 수경재배 키트를 제작하고 있다.

예술이음플랫폼은 신기술인 3D와 농가를 이은 이 상품을 통해 자사의 정체성을 한눈에 드러내는 성과를 이룰 수 있을 바라고 있다.



예술이음플랫폼은 유튜브, 애니메이션 융·복합 스튜디오, 6차 수경재배 관련 아이템, 지역 팜파티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크리에이터 기업과 협력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지역민 중심으로 독특한 문화 창조 해나가고자 합니다.





개별 자활기업의 영업활동 한계를 광역자활기업으로 극복하다 '울산클린존 사회적협동조합'

개별 자활기업 대표들이 모이다

자활기업 4곳 대표자 및 광역자활센터 종사자의 동의로 설립된 울산클린존 사회적협동조합은 자활기업을 규모화하여 공동영업 및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미션이다. 또한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연대강화 및 지역 내 청소기업으로 규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사장인 배홍범 자활기업 (주)우리환경개발 대표이사과 조합원인 정원근 자활기업 명품청소박사 대표, 이정희 자활기업 (주)고래의꿈 공동대표, 정훈규 자활기업 맑은세상 대표, 박주영 울산광역자활센터장이 뭉쳤다.

울산클린존 사회적협동조합은 광역자활기업 활동(울산시 및 5개구군 지자체 공동영업활동)과 새울원전 인근 점포임대에 따른 프로포절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 사업들을 통해 청소를 통한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자리매김함은 물론이고 자활기업 및 광역자활기업 홍보 또한 하겠다는 포부다.

그렇다면 지역자활센터에서 개별 자활기업으로 최소 3~4년 정도 운영한 대표자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개별기업으로 영업 활동함에 사업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계가 느껴져 광역자활기업을 운영하게 됐고, 광역 차원의 영업활동을 통해 공동영업·공동이익을 추구, 개별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홍범 대표의 말이다.

법인명 울산클린존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배홍범
주요사업 청소·위생관리용역업
설립연월 2021년 9월
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창업자원으로 임대료·홈페이지 제작 완료

하지만 협동조합을 창업하기란 쉽지 않았다. 다행스럽게도 티치포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컨소시엄의 도움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을 완료했으며, 신규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에 따른 임대료 또한 지원받을 수 있었다. 더불어 법무사 및 등기수수료 등 수용비 또한 지원받았다.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해 준 덕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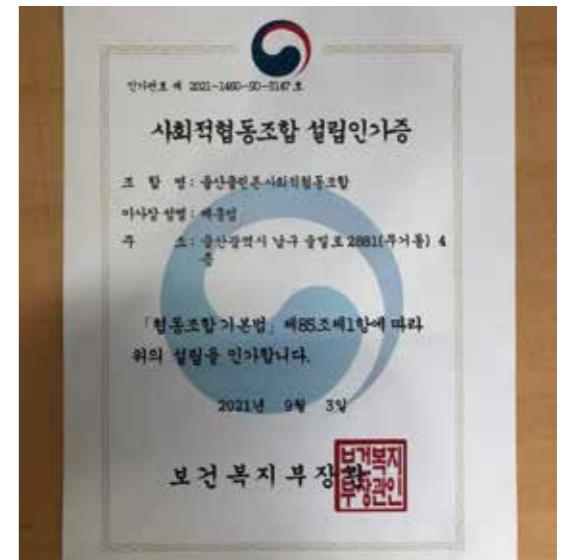
현재는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후 광역자활기업 인증이 남아있는 상태다. 또한 신규사업장을 임대함으로써 현재 복지부에서 주소변경 인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주소변경 인가 이후 법인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다.

배 대표는 “아울러 광역자활기업 인증 이후에도 영업활동을 수행해서 공동의 이익을 발생해야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면서 “울산의 광역자활기업 1호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수사례로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자활기업을 규모화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할 터. 아직 영업활동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이후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아직 어떤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영업 및 활동에 대한 한계를 가진 자활기업들이 모여 사회적협동조합 즉 광역자활기업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단위의 영업활동을 통한 사업 수주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별기업으로 영업 활동함에 사업의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계가 느껴져 광역자활기업을 운영하게 됐고, 광역 차원의 영업활동을 통해 공동영업·공동이익을 추구, 개별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착한 기업과 착한 소비자의 연결고리가 되다 ‘협동조합 굿스니저’

지역 사회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하던 조합원들, 의기투합하다

굿스니저는 2019년 10월 과천시 ‘사회적경제활동가(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6인의 발기인 모임이 2020년 9월에 출범하면서 태동했다.

굿스니저의 조합원들은 마케팅, 디자인, 방송작가, 스타일링, 보건 교사 등 전문 직종에서 일을 하다가 육아를 통해 경력 단절된 여성 또는 현직 프리랜서로 구성되어 있다,

자녀를 키우는 엄마이자 주부로서 지난 9년 간 지역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육아와 정보를 공유하며 관계를 형성해 온 이들은 2019년 과천시 사회적경제 강사 과정을 수료를 계기로,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에 의기투합했다.

이렇게 뭉친 이들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판로 개척, 유통 및 교육서비스 등을 통해 환경과 건강에 유익한 윤리적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굿스니저는 과천 지역의 소비자로 구성된 굿리뷰어그룹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고 함께 사용한 결과를 사회적경제 기업에 전달한다. 굿스니저가 판단할 때 입소문 제품이라 판단되면 굿스니저 채널을 통해 관련 제품의 리뷰를 진행해 상품 홍보와 기업의 성장을 돕는다.

“굿스니저가 하는 일은 소수의 인플루언서의 의견을 소개하는 것과는 달라요. 다수의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고 그 의견이 모여 만드는 진짜 좋은 사회적경제 제품을 소개하는 굿파인더가 저희의 역할이에요.” 최지연 대표의 말이다.

법인명 협동조합 굿스니저
대표 최지연
주요사업 광고기획/제작, 서비스, 교육
설립연월 2021년 10월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에 앞장서다

최근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고,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해 그 이익을 사회로 환원하는 착한 사회적경제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실생활 경제에서 이런 바람직한 기업의 좋은 제품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않다. 소비자 입장에서 환경에 대해 관심이 있어도 사회적경제기업을 몰라서, 제품을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굿스니저는 착한 기업과 착한 소비자의 연결고리로서 ‘좋은 입소문으로 양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면 어떨까’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최지연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창업가육성가프로그래에 참여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마케팅에 대한 어려움과 현실을 알고 있었다. 이에 사회적경제 제품을 소비자와 연결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머릿속에만 있었던 사업의 구조와 아이디어를 현실화하고 싶었어요. 이를 통해 협동조합굿스니저로 법인을 설립하고, 지역 내 굿프로 리뷰어를 구성해 1차 프로젝트를 테스트해 보았어요.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한 아이디어가 실제 사회적경제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해 나가고 싶습니다.”

작은 입소문으로 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마련하다

굿스니저는 2021년 5월 HBM사회적협동조합과 함께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보다 체계적이고 빠르게 조합 설립과 인가를 진행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굿스니저는 2021년 10월 1일 협동조합 설립 신고를 완료하고 12일에는 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현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친환경 제품을 생활용품 위주로 선정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프로리뷰어 모집해 사용하며 자신들이 세운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다들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는 주부이다 보니 일과 가정을 양립하며 시간을 일정하게 투자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정관을 배우고, 공증을 받는 과정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세상을 배우는 면에서는 오히려 재미있는 경험이 되었어요.”

사업에 참여하면서 교육 때마다 다른 팀들의 사업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그 자체만으로도 큰 경험적 자산이 되었다. 팀의 Why와 개인의 Why를 지속적으로 고민하면서 팀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짜여진 필드편 교육 프로그램은 신규



굿스니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제로웨이스트 제품, 친환경적 제품에 대한 입소문 내고 있어요. 우리의 작은 입소문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환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소비자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찾고, 기업에서도 제품을 생산할 때 친환경을 기준으로 둔다면 더할 나위 없는 나비효과가 될 것입니다.

팀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리의 작은 입소문이 더해지고 더해져서 환경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소비자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찾고, 기업에서도 제품을 생산할 때 친환경을 기준으로 둔다면 더할 나위 없는 나비효과가 될 것입니다.”



엄마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사회를 희망하다 '협동조합 따손'

봉사활동으로 시작해 수익창출의 기회를 잡다

“엄마의 따뜻한 손길로 세상과 마을을 어루만지겠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블랙홀 봉사단이란 이름으로 공모사업과 주민편의사업을 진행하던 따손은 지난 8월 협동조합 설립을 계기로 돌봄센터와 가사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났다.

사회에서 주로 교육 분야에 종사하던 회원들이 그간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공헌해 보고자 봉사단체를 만들어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됐다.

그러다 봉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이에 창업을 준비하게 됐다는 게 신승란 대표의 설명이다.

신 대표는 “막상 협동조합 설립을 하겠다고 알아보았지만 창립 과정이 기관의 승인도 받아야 하고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것도 많아 순수 회원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웠다”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했고, 이에 공모사업에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다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따손은 로고 완성, 조합원 선임을 거쳐 지난 8월에는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진행했다. 이후 정관 완성과 함께 등기 등록 및 발급, 사업자 등록증, 협동조합 통장개설 등을 완료했다.

- 법인명 협동조합 따손
- 대표 신승란
- 주요사업 돌봄·가사 서비스
- 설립연월 2021년 9월
-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이들은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에 참여,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 또한 조합원들의 수익 창출과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도 목표에 두고 있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은 생각보다 힘든 과정이었다. 관련 기관에 내야 할 서류가 많고 진행과정 또한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또한 협동조합 설립 시 행정적인 절차가 행정사나 법무사 등 전문 인력에 맡겨야 하는데 대항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었다. 그러나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알게된 강사분의 지원으로 비용 지출 없이 완료하게 되었으며 조합원 구성 시 이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순조롭게 창업 과정이 진행될 수 있었다.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협동조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신 대표는 “엄마와 함께 만드는 건강한 사회, 아이와 노인이 함께 하는 따뜻한 삶과 조합원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비전으로 출발을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멘토와 협업,
상생의 빛나는 성과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돌봄센터 설립, 가사서비스 제공,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목표를 둔 협동조합 따손은 지역사회와 이웃에 따사로운 손길을 쥐 점진적으로 따뜻한 이웃 만들기에 시발점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같이 가는 사회, 가치 있는 삶을 만들다 '(가칭)가치올림 사회적협동조합'

팀명 (가칭)가치올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신혜정
주요사업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및 교육 / 사회적 가치 지표(SVI) 진단 및 컨설팅 / 창업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10개의 단체 및 기관, 하나가 되기로 결심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으로 세상을 바꿉니다. 협동조합은 무한 경쟁 시대의 착한 대안입니다.” 가치올림 신혜정 대표의 말이다.

(가칭)가치올림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재양성 및 교육과 사회적 가치 지표(SVI) 진단 및 컨설팅, 창업 인큐베이팅 및 컨설팅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2015년 조직된 광진 교육네트워크는 ▲함께누리 사회적협동조합, ▲광진 담쟁이 협동조합, ▲해오름 사회적협동조합, ▲화유 사회적협동조합, ▲EDS인재교육 협동조합, ▲협동조합 아카데미 쿵, ▲에듀툴킷 사회적기업, ▲코발트 사회적협동조합, ▲에스애플랫폼 사회적기업, ▲동부여성발전센터 등과 6여 년의 시간동안 하나의 길을 걸어왔다.

이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고 공동 리플렛 제작하며 성동광진교육청 LTI 프로젝트 위탁운영, 광진 혁신지구 마을학교 참여, 통일 콘텐츠 및 키트 공동 제작,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콘텐츠 제작 및 시범 강의 공동작업, 2020 협동조합 성장기 활성화 사업 등을 공동 진행한 끝에 2021년 공동법인 설립을 준비했다.

지속적인 사업, 강한 결속력을 위한 공동 법인격 설립

가치올림은 공동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의 법인격 즉, 사회적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교육과 관련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한 수입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조합원들의 불안정한 일자리, 판로 확보의 어려움 등을 겪고 있었어요. 때문에 광진구 내의 교육 네트워크를 만들어 상호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로 비용을 절감하고, 공동 사업 개발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만들자는 공공의 니즈가 부합했어요.” 10개의 연합된 조직을 만들기 위해 신혜정 대표가 설명했다.

연합팀 조직을 결정하자 회사의 설립 과정은 빠르게 진행됐다. 지역 내 교육 관련 기업들이 공동의 니즈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자발적으로 회원사가 구성되었다.

물론, 공동으로 함께 일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서로의 여건과 이해관계에 차이가 있다 보니 갈등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간의 공동 작업을 통해 나름의 매뉴얼이 수립되어 있었던 만큼 연합조직의 설립을 위해 모든 팀들이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조직의 최종 설립을 앞두고 있는 지금 가치올림은 공동법인을 통해 협동조합들을 조직화하고 경제적, 사회적 가치 창출할 수 있었다.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교육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수립하고 자체 고유사업을 구축할 수 있었으며 사회적경제 교육의 저변을 확대한 것은 물론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가치 대한 공감대를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가치올림'

앞으로 가치올림은 공동사업개발팀, 창업인큐베이팅팀, 교육개발팀, SVI연구팀의 4개의 조직팀을 구성해 조합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합원 전체 정기회의와 4개의 조직팀 별 회의를 통해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동영업 및 홍보,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동사업 운영을 위한 공동인력을 배치해 서로를 지원하고 조합원간에 공간공유와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비용 절감과 가격 경쟁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연대하며 공동 콘텐츠 개발과 공동사업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양한 콘텐츠 구성을 위한 관련 교육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자율적인 참여 및 네트워크 확대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가치올림은 다양한 공동사업 참여로 사업의 판로를 개척하고 매출 및 수익 상승을 이루어 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또한 조직들의 개별화된 강점을 융·복합해 상생모델 프로그램 개발 및 공동사업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대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가치올림의 모습을 기대해 주세요. 연대와 협력을 통한 조합원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 그것이 '함께 가치(같이) 올림'입니다



평생 교육과 공생적 돌봄을 통해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다 '(가칭)상상나래 사회적협동조합'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활력 파수꾼이 되다

주민 조직화, 공동체 회복, 여성 창업 인큐베이션, 도농 교류, 먹거리 돌봄 등을 통해 지역의 살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상협동조합은 2013년 8월 상상마실협동조합으로 첫발을 내딛은 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번신을 거듭해 왔다.

상상마실협동조합이라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마을카페 공유' 개업하고 지역의 사랑방으로써 지역을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연결해 왔다.

2014년에는 상상협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유성구 평생학습원 배움사랑방 지정, 마을기업 2차 재지정, 마을부엌 공유 개소,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시 공유공간,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마을리빙랩 사업, 유성구 먹거리기반 어린이 돌봄사업 수행 등을 진행했다.

2021년 유성구 기획공모사업 '돌봄체계구축' 사업 수행 중이던 상상협동조합은 다시 한번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자치적인 조합 활동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다

상상협동조합의 전문 분야는 크게 주민 조직화, 공동체 회복, 여성 창업 인큐베이션, 도농 교류, 먹거리, 돌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상상협동조합은 지역민의 활동, 공동체 네트워크,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돕고 있어요.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기후 위기 시대에 라이프 스타일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임혜숙 대표의 말이다.

팀명	(가칭)상상나래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임혜숙
주요사업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과 교육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상상협동조합은 법인설립 이후, 매년 마을공동체사업, 생태 환경활동, 농산물 직거래, 마을 인재 및 활동가 양성,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션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사업형태는 카페의 모습과 영리법인이었으나 내용적으로는 사회공헌사업과 공공사업을 추진하며 지역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진행해왔다.

이렇게 오랜 시간 활동하다 보니 그 동안 사회적경제, 마을공동체, 시민사회 등에서 활동한 성과를 바탕으로 법인의 정체성을 다시금 정립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여기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돌봄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면서 관계가 단절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를 공공적으로 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되기 시작했다.

임혜숙 대표는 "다양한 이슈들과 더불어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전환을 이끌어내는 대대적이고 공공적인 교육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욕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때문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 변경을 꾀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상상협동조합 구성원들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의 성과를 지역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지역의 조합원들과 외부 전문 인사와 면담한 결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정체성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아 조직변경을 결의했다.

지역사회의 응원, 멤버십의 힘 바탕으로 조직 변경 진행

막상 조직변경을 결의하고 총회를 개최해 맘을 즐기기도 했지만 조합원을 설득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많은 지역민들과 조합원들이 현재의 전환이슈에 대해 공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코로나19로 모임이 힘든 상황에서 일대일 만남과 전화 통화 등으로 조직 전환에 대해 설명 드렸을 때 거의 모든 이들이 흔쾌히 동의했다.

사회적협동조합 세상만사의 도움도 조직변경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줬다. 어떠한 조직이든 정관 마련과 서류준비가 가장 힘든 부분인데 세상만사의 상담을 통해 잘 해결할 수 있었다. 또한, 준비 워크숍, 선진지 방문 등에도 도움을 받았다.

임혜숙 대표는 "조직변경을 결정하면서 조합원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듣는데 지원사업의 도움으로 맘의 부담이 덜했다"며 웃었다.

상상협동조합은 조직변경을 통해 협동조합이었을 때에도



상상협동조합은 지역민의 활동, 공동체 네트워크, 창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돕고 있어요.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서 기후 위기 시대에 라이프 스타일 전환을 돕고 있습니다.

힘써왔던 공공 사업의 진행을 위해 조직에 잘 맞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옷으로 갈아입게 되어 날개를 달았다는 것이 임 대표의 설명이다.

지역사회의 응원과 지지, 그리고 멤버십은 상상협동조합이 다시 한번 새로운 조직으로 정비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상상협동조합은 이 힘을 바탕으로 지역이 되살아나는 활동을 사업으로 연결해 주민들의 평생 교육과 공생적 돌봄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청년공방 상인들이 모여 만드는 여수형 메이커스 굿즈 제작 '여행하다'

팀명 여행하다
대표 남은진
주요사업 여수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기념품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에서의 무형의 추억을 유형화하다

'여행집'이라는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남은진 대표는 현재 뜻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 중이다.

여행하다는 여수에서의 무형의 추억을 유형화해 가져갈 수 있는 여수의 기념품들을 여수 지역 청년 작가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 이를 통해 여수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도와가며 상생하는 청년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한다.

제주도에 있는 모든 기념품숍을 벤치마킹한 여행하다는 여수에 있는 11명의 청년 작가들과 거래처라는 개념이 아닌 함께 여수 기념품을 만들어 나아간다는 '협동'이란 개념이 가장 맞을 듯해 협동조합 설립을 시작점으로 삼았다.

협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책임의 소재를 생각했다는 남은진 대표는 개인 사업자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은 한 사람의 책임으로 끝날 것인가,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만들어나갈 것인가로 구분된다고 말한다.

"여행하다에서 협동조합으로까지의 확장을 생각하기까지 다사다난한 과정들이 많았어요. 막상 기념품을 만들려고 하니, 어떤 상품이 시장성이 있는지 수익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홍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아졌지요."

인터넷을 뒤지거나 제주도 및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도 뚜렷한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지원사원을 찾게 되었고, 지원은 여행하다가 한걸음 한걸음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었다.

지원사업 통해 성장 기폭제 마련

여행하다 지원사업을 통해 분야별 컨설팅을 받으며 조합 설립과 관련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궁금했던 것, 몰랐던 것, 그리고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배울 수 있었으며 이후에는 시제품 지원사업을 통해 구상만 해보고 비용이 많이 들어 만들어보지 못했던 기념품도 만들어볼 수 있었다.

시제품이 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해당 상품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추었는지와 지속적인 제작 여부에 대해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지원사원을 통해 받았던 기념품을 플리마켓 및 여행집이란 작은 공간을 통해 공개하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다.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여행하다가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작가들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기념품을 만들 수 있는 협동조합을 생각해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남은진 대표의 말이다.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청년그룹을 희망하다

기존 개인사업이었던 여행하다가 약 3년간의 협동 개념의 운영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상생할 수 있는 조직구조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서류화하고 역할을 줌으로써 작은 사업체가 아닌 법인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청년그룹이 되고 싶은 게 여행하다의 목표다.

"여수에서 공방을 운영하거나 공방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인생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직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함께 마련해가고 싶습니다." 남 대표의 말이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모이면 하나갈 수 있는 것처럼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서로의 잘하는 부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협동심이 가득한 청년 그룹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현재 여행하다는 '메이드인여수협동조합'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을 준비하고 있다. 여수 관광객의 핫플레이스인 이순신 광장으로 확장이전해 조금 더 큰 공간에서 더 큰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

현재 있는 작가들과 초창기 협동조합 멤버를 구성할 것이고, 이후에는 기념품을 제작해보고 싶은 청년작가들을 양성 및 모집하여 조합원들로 구성할 예정이다. 일러스트나 디자인 청년작가들도 모집하여 핸드메이드 기념품에서 캐릭터 기념품도 제작도 계획하며 더 큰 미래를 그리고 있다.



창업은 너무나 어려워요. 0부터 10까지 다 나의 고민과 손길을 거쳐야 하고 모든 행동의 책임 또한 내가 져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비슷한 분야와 업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조직을 만든다면, 소상공인에서 벗어나 조직이나 그룹이 되리라고 생각해요. 부족하지만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해나가고 싶어요.





숲 체험 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의 심리적 안정을 돕다 '(가칭)하모니 협동조합'

팀명 (가칭)하모니 협동조합
대표 최수희
주요사업 체험활동 및 정서지원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숲 체험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모색하다

(가칭)하모니 협동조합(이하 '하모니')은 '감정노동자와 직장인들을 위한 숲 힐링 프로그램과 유아숲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숲 해설사, 유아숲 지도사, 어린이집 교사 등이 모였다.

최근 숲 체험활동은 극심한 경쟁과 바쁜 일상이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사람들에게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주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숲 체험을 위해서는 적절한 프로그램에 따라 경험 있는 해설자의 안내가 필요하다. 복잡한 생태계의 보고이자 경제와 환경과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자원이라는 숲의 특성 때문이다.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정서적 지원을 생각하다

하모니는 이러한 숲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를 마련하고 다양한 이들에게 숲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모니는 사회서비스형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숲 체험 등을 통해 마음의 힐링을 얻지만 취약계층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모니는 그러한 취약계층에게 웃으며 좋은 숲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최수희 대표의 말이다.

사회복지사, 유아숲 지도사, 어린이집 교사, 숲 해설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활동을 펼치던 조합원들은 사회적 약자, 즉 감정노동자들을 정서적으로 지원하며 힐링할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시작한 하모니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지역 이웃에게 활력을 주는 조합될 것

하모니는 지원사업을 통해 체험활동을 통한 정서 함양, 스트레스 해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삶의 질 향상 등을 돕는 조합 설립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숲 활동을 사업의 중심인 만큼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야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기관방문 및 교육 등의 준비가 원활하지 못했다. 여러 형태의 협동조합을 다니면서 다양한 조언을 듣고 준비하고 싶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럼에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팀을 구성하고, 창업을 위한 교육 과정을 수료했다.

“창업을 진행하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업 교육과정을 통해 조합 설립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최수희 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하모니의 조합원들은 창업을 위한 자격과정을 받고 있으며 정관 작성과 회의 진행을 위해 준비 중이다.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숲 체험활동을 하게 되면 지역공동체 일반인, 장애인, 아동 등 모든 연령층 이웃 지역에 삶의 활력을 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창업을 진행하며 어려움이 많았지만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창업 교육과정을
통해 조합 설립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해녀의 문화와 가치를 알리다 '(가칭)해녀와바다 사회적협동조합'

체험교육을 통해 젊은층에게 해녀 문화를 알리다

“해녀 한 분이 돌아가신다는 것은 해녀 박물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아요.”

해녀와 바다 하지형 대표의 말은 그들의 존재 이유를 그 어떠한 말보다 명확하게 전달한다.

2021년 조직되어 해녀 체험교육, 해녀 문화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는 해녀와 바다는 총 4명의 조합원이 힘을 모아 해녀 문화교육과 체험교육을 기획하고 관련 소품을 디자인 하는 등 해녀들의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지자체와 정부는 도시민을 어촌으로 유입하고 어업인을 양성하는 데에 많은 힘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 그보다 어린 학생들과 젊은 청년들에게는 해녀가 여전히 낯설고 정보가 부족한 직업군이다.

해녀와 같은 나잠어업 문화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지속적으로 관광 사업을 육성하며 나잠어업에 대한 인식과 가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소극적인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

이같은 현실에 해녀와 바다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결심한 하지형 대표를 포함한 조합원들은 나잠어업과 관련된 아이টে를 선보여 이를 통해 학생과 젊은층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사업을 구상했다.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해녀라는 직업과 문화에 대해 알리고 그 가치를 높이고 싶어요. 체험 활동이 이러한 가치 확장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형 대표의 말이다.

팀명 (가칭)해녀와바다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하지형
주요사업 해녀체험교육, 해녀문화교육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해녀 후계자 양성, 은퇴 해녀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다

해녀와 바다는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우리나라 고유한 문화유산인 해녀를 아동·청소년·젊은 세대에게 체계적으로 알리고 교육하여 고령으로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있는 해녀를 이어갈 수 있는 후계자를 양성하고, 고령으로 은퇴한 해녀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을 준비하기로 결심했다.

해녀와 바다의 조합원들은 교육과 관련한 강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티칭 경험이 부족해 사업준비 과정에서 애로 사항을 겪고 있었다.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준비하고, 교육을 받다 보니 창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려 해도 자금부족으로 인해 뾰족한 방법을 찾을 수 없어 고심하던 끝에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다. 해녀와 바다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교육을 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으며 창원을 위한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1,2차 해녀체험교육을 진행했으며 아동, 청소년을 위한 1,2차 해녀문화교육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다음 세대에 해녀가 활동하는 세상을 꿈꾸다

해녀와 바다의 사업모델은 해녀 물질도구인 ‘테왁’의 수공예 상품화와 이를 병행한 만들기 수업 및 체험 서비스이다. ‘미니 테왁 만들기’를 첫 번째 사업 모델로 삼은 까닭은 해녀라는 직업을 학생 및 젊은층이 더욱 친숙하게 소개하는 매개체로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일회성 흥미에 그치지 않고 소장 가능한 상품을 직접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해녀와 바다의 생각이다.

현재 제주에는 해녀 문화 지키기를 목적으로 한 테왁 만들기 유료 수업을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기업 ‘해녀의 테왁’이 있다. 해녀와 바다는 제주에서만 수업이 가능한 테왁 만들기를 육지로의 이동시켜 거제, 통영 외에 부산, 서울 등의 수도권 등으로 이동 방문수업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이점을 살려 해녀 양성교육을 받은 전문 해녀 문화 해설사, 실제 나잠어업에 종사 중인 새내기 해녀들이 수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해녀라는 직업군에 대한 진정성을 증명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하며 우리가 생각하던 것들이 점차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대감과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응원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고령화로 해녀가 사라져 버리면 다음 세대는 박물관에서 책이나 영상으로만 해녀를 접하게 됩니다. 아직 해녀가 활동하고 있고 다음세대에도 해녀가 활동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해녀와 바다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을 미디어를 넘어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동구씨'

지속 가능한 마을 미디어를 만들어내다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 미디어를 만들고, 여성과 시니어의 새로운 일거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마을에서 각각 활동하던 라디오 단체 ‘강동FM’과 영상단체 ‘온마을N’이 만나 2021년 1월 새로운 단체 ‘동구씨’를 만들었다. 동구씨는 강동구를 본다(see)는 의미로 내 이웃, 친구를 부르듯 언제나 친근한 단체가 되겠다는 마음을 담고 있다.

동구씨의 강문채 대표는 방송작가 경력으로 영상의 구성과 자막 등을 책임지고 있으며, 조기욱 팀원은 잡지사 편집장 경력을 통해 잡지나 신문의 기획과 구성, 영상의 디테일을 살리는 이미지 작업을 책임지고 있다. 유명한 팀원은 촬영과 편집을, 장욱경 팀원은 교안 작성 등 교육 파트를, 김영희 팀원은 전반적인 시스템 관리와 회계 파트를 맡고 있다.

동구씨는 크게 두 가지의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영상이나 신문, 잡지 등 콘텐츠를 제작해 지자체와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여성, 시니어 재교육과 미디어 교육을 통해 교육기관이나 도서관, 복지관 및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마을 미디어라는 특수성을 넘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단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일반 미디어 주식회사들과 다르게 시선에 잘 닿지 않는 사람들, 느린 사람들의 이야기와 목소리를 담은 콘텐츠와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팀명	동구씨
대표	강문채
주요사업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막연한 도전정신으로 시작한 '동구씨'

동구씨가 모인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요구에서였다. 마을에서 미디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온라인 송출과 영상, 신문 제작 등의 문의가 쏟아졌고, 미디어의 영역은 절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하기에 자연스럽게 서로 협동하기 시작한 게 계기가 됐다.

‘수익과 협동이 만났으니 협동조합도 가능한 게 아닐까’하는 막연한 도전정신이 동구씨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게 강 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나 협동조합 설립은 역시 쉽지 않은 길이었다. 좀 더 프 로답게 일을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함께 손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서로에게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다. 그 과정을 통해 투닥거리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로를 좀 더 깊이 알게 된 계기도 됐다고 했다.

“협동조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해, 법인을 세우는 과정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지원사업 과정을 겪으며 좀 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해나가자는 의견들이 생겨나 급하지 않게 길게 보고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지원사업을 통해 튼튼한 기초를 다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멘토들의 밀착 관리로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하다

현재 동구씨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실제로 실행하며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고 있으며, 법인 설립은 아직 고민중에 있다. 올해 연말에 법인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좀 더 단체가 익어가는 시간을 가져야 할지 치열하게 논의 중이라는 게 강 대표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협동조합을 준비하면서 사회적협동조합 광진사회적경제네트워크 멘토들의 밀착 관리가 많은 힘이 됐다고 했다. 일단 궁금한 것이 있으면 마음 놓고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 초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것. 더불어 미뤄왔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지원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를 통해 미약하게나마 동구씨의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게 됐다고 고마워했다.

강 대표는 “창업지원을 통해 협동조합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다소 불투명했던 팀의 목표가 조금씩 분명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똥 구름만 잡던 사람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논의하는 구조가 됐다”고 전했다.



함께 사업을 한다는 것은
몇 배는 더 힘들고 귀찮은
과정을 겪어야 하는 일이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더
탄탄하고 따뜻한 길임에는
틀림없다!

마을에서 소소하게 공동체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힘을 합쳐 협동조합을 준비하는 모습은 분명 다른 주민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믿는다는 동구씨는 나아가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된 여성들과 재취업을 희망하는 시니어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하는 협동조합이 되기를 희망한다.

YOUTH AND OTHERS

청년들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향해 날개짓을 하다

INFO마케팅 협동조합

뉴웨이브 협동조합

드림핸즈협동조합

딤메이커엔지니어스 협동조합

리플래닛 협동조합

보령시민 미디어 협동조합

비주얼랩협동조합

스테이대구 협동조합

와우하우스 협동조합

협동조합 하이크리에이티브

(가칭)장수청년사회적협동조합

GN STUDIO

(가칭)인천청년협동조합 파랑새



온라인 마케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다 'INFO마케팅 협동조합'

혼자서 불가능 했던 일, 함께함으로 가능해지다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과 함께 하며 혼자서 불가능 했던 일이 함께함으로써 가능해졌어요.” INFO마케팅 진장근 대표이 말이다.

INFO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 및 교육을 통해 2021년 5월부터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기업이다. 네이버 블로그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팀장과 다양한 전문 분야의 팀원들이 합작해 자신들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자본과 정보의 부족으로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온라인 마케팅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거예요. 누구나 쉬우면서도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진행하고, 직접 온라인 마케팅을 실행하기도 하지요.”

블로그는 대기업부터 소상공인까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온라인 마케팅 툴이다. INFO마케팅은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네이버 블로그 마케팅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매출 및 수익의 상승을 확인했다. 현재는 회사 창업을 완료하고 온라인 마케터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작을 목표로 한발씩 앞을 나아가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 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다

INFO마케팅의 진장근 대표는 3년간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을 실행하며 실제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혼자서 하는

법인명 INFO마케팅 협동조합
대표 진장근
주요사업 온라인 마케팅 및 교육
설립연월 2021년 10월
소재지 경기도 시흥시

일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공동의 수익과 창업을 통한 사업화’를 목표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일회성의 도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 사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 생각했어요. 주변에 같은 니즈가 있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협동조합 설립을 결정짓게 되었지요.” 진 대표의 설명이다.

현재 INFO마케팅은 11월 이내로 INFO마케팅의 이름으로 협동조합을 창립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최근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마치고 지자체 신고서를 작성 중이다.

창립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여 클라이언트의 온라인 마케팅, 마케터 육성 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커리큘럼 제작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진 대표는 창업 과정에서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진행을 도와준 코끼리 협동조합의 컨설팅 덕에 슬기롭게 창업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코끼리 협동조합은 INFO마케팅의 창업 과정에서 서류 양식과 같은 창업을 위한 기초적인 부분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까지 창업을 위한 필수 요소들을 하나하나 조언했다.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창업지원비는 온라인 마케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사업을 통해 창업을 진행하며 머리 속으로만 생각해왔던 사업 모델을 실제로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큰 보람이었어요. 그동안 비용적인 문제로 투자에 부담을 느껴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지원 사업비의 도움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이보다 보람 있는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온라인 마케터 육성 분야로 사업 확장을 꿈꾸다

INFO마케팅은 사업을 통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온라인 마케팅 실행 및 대행에 대한 업무를 실제로 적용하고 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온라인 마케팅을 통한 수익 창출과 더불어 온라인 마케터를 직접 육성해 지속 발전 가능한 온라인 마케팅을 실현하는 것이 앞으로 INFO마케팅이 꿈꾸는 사업의 목적이다.



우리 회사가 관련 분야에 영향력은 아직은 크지 않지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우리 팀의 활동이 쌓이고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 바이럴로 퍼지게 된다면 충분히 시장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진장근 대표는 “단순 온라인 마케팅 홍보 및 유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단편적인 사업 모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온라인 마케터 육성까지 사업을 확장시켜 미래 가치 지향적인 사업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NFO마케팅은 이제 온라인 마케팅 시장에 신중한 한 발을 내딛었다. 신중한 걸음이지만 그 어떠한 발걸음 보다 자신 있는 한 걸음이다.



방역활동을 넘어 '위생·청결'에 대한 고급화 사업 모델을 기획하다 '뉴웨이브 협동조합'

청년과 실버세대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하다

2020년 12월에 조직된 뉴웨이브는 팀명처럼 청년과 실버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해 선순환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이뤄내는 게 목표인 협동조합이다.

뉴웨이브는 실무에 있어 다년간 노하우를 겸비한 차대현(기획 및 교육), 김대환(현장활동 및 인사관리), 강한솔(디자인, 콘텐츠 제작, 홍보) 등 총 3명의 전문 청년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아직 2030 젊은 세대이긴 하지만 지역사회에 NGO활동 및 소상공인 대상 협력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어 현장 실무 능력과 더불어 협치를 이끌어 내는데 많은 경험을 갖추고 있다.

뉴웨이브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필수로 여겨지는 매장 방역 소독에 대해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SNS 및 디지털전환이 이뤄지지 못하는 소규모 매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구독경제형 방역 소독 마케팅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방역 소독 용역비는 회당 약 1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매장 내 코로나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을 착안해 무상 5회 소독지원 후 주 1회 구독경제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매장 홍보를 위한 블로그 홍보, 유튜브 영상 제작까지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패키지를 사업모델로 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도 지역관광서 주최의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운영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자주 교류하던 중 방역소독의 니

법인명 뉴웨이브 협동조합
대표 차대현
주요사업 소상공인 무상 코로나 방역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즈에 비해 영세상인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이어져 약순환이 지속됨을 접하게 되고 이를 해결할 아이템을 찾게 됩니다."

형식적 방역 소독 넘어 이미지 개선한 사업으로 성장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대외적 인식의 탈피가 필요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전신 방역 가운을 입고 방역을 할 경우, 도리어 매장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 방역을 기피하는 매장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식전환을 고취하기 위한 목표도 사업에 반영하게 됐다고 했다.

차대현 팀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매장의 형식적 방역 소독이 아닌 구독경제 기반의 저렴한 정기 방역 서비스를 도입하고, 기존의 방역 이미지를 개선해 사업주와 고객 모두에게 심리적 거리감을 줄일 수 있는 컨셉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뉴웨이브는 소상공인 무상 방역과 방역관리사 양성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활동 모습을 연재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 창업을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지역 인사들과 협력도 이끌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매장 섭외 및 방문 방역, 매주 진행되는 방역관리사 양성 교육, 사업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운영 등 모든 부분을 4명의 팀원 내에서 진행하고 있어 물질적, 시간적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조금씩 자리를 잡으며 개선해나가고 있다는 게 차 팀장의 설명이다.

"각 매장에 찾아가 사업 소개와 무상 방역을 진행할 때마다 항상 고마워하고 아들, 딸처럼 무엇이라도 챙겨주시려는 모습에 감동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열정적으로 방역관리사 교육을 수강하며 방역 소독 활동에 비전을 느끼시는 수강생을 마주할 때가 가장 보람 있습니다." 차 팀장의 말이다.

사업모델 발전에 창업지원사업이 큰 도움돼

무엇보다 팀 창업 과정에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이 현장에 나가야만 느낄 수 있었던 실무경험과 사업모델 발전에 있어 큰 원동력이 됐다고 했다. 예산지원, 멘토들의 자문 역시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라보는 습관,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재 뉴웨이브는 방역 활동으로 인연을 맺게 된 지역 인사들의 도움으로 지역의 청년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획을 함께하고 있는 상태. 아직 확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주민 복지 차원의 무상 방역 서비스를 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위생습관의 변화로 각종 질병에 대한 전염과 전파도 크게 줄어들었던 것처럼 앞으로 방역 활동을 넘어 '위생·청결'에 대한 고급화 사업모델을 기획하는 게 목표라는 뉴웨이브의 앞으로가 기대되는 이유다.



핸드메이드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다 '드림핸즈협동조합'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반려동물 문화를 구상하다.

2021년 3월 구성된 드림핸즈팀은 서울시 구로구 공방 작가들이 모여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다. 반려동물 양모 펠트 지도사인 '호밀짱 공방'과 레진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세모담 공방', '금속·레진공예 더스톤즈 공방', 가정용품 관련 도자기 공예품을 주문 생산하는 '포터리 조 공방', 반려동물 수제간식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단추말이'가 힘을 합쳐 탄생한 드림핸즈는 전 국민의 아트 라이프를 실현해 문화 소외계층을 평준화시킨다는 꿈을 빚고 있다.

"드림핸즈의 목적은 다양한 핸드메이드 분야를 한국에서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스펙을 만들고, 여러 분야의 핸드메이드를 융합해 재창작함으로써 단일의 핸드메이드 제품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문화를 창출 통해 핸드메이드 분야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박미성 대표이 설명이다.

이들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핸드메이드 캠프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핸드메이드를 한 곳에서 보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수익사업을 구상 중이다. 또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시해 가족, 연인, 친구 누구와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 실현을 꿈꾸고 있다. 진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직업의 다양성을 보여주어 핸드메이드도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법인명 드림핸즈협동조합
대표 박미성
주요사업 핸드메이드 캠프
설립연월 2021년 10월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핸드메이드의 대중화를 위해 나서다

드림핸즈는 주변에 많은 공방들이 있음에도 지역주민들이 알지 못하는 현실과 나만의 맞춤을 원하는 수요층의 증가, 반려동물 문화가 가족문화로 변화됨에 따라 특별한 내 반려동물의 용품과 먹거리 등을 원하는 소비자층을 겨냥해 조합 설립을 결정했다.

"우리의 힘으로 핸드메이드 시장을 확장해 핸드메이드의 대중화를 이끌고, 핸드메이드도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현재 가지고 있는 팀의 장, 단점과 강점을 찾아 팀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했다. 그래서 박미성 대표와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설립을 결정하고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 준비 과정의 도움을 받고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에 참여한 드림핸즈는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의 도움으로 협동조합의 개념을 이해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을 받았다. 협동조합 사업진행에 대해서 멘토링을 받는 부분은 조합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후 협동조합을 설립을 준비하며 그 일환으로 핸드메이드 캠프를 시작한 드림핸즈는 미래를 위한 첫발을 내딛고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핸드메이드로 만드는 반려동물 문화를 구상하다.

드림핸즈가 진행하는 사업은 손으로 만드는 모든 핸드메이드 분야를 기본으로 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의 사업과 접목이 가능하다. 현재 드림핸즈가 중점은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핸드메이드 캠프'이다.

"협동조합 사업으로 제1회 핸드메이드 캠프를 진행했었는데 다음 핸드메이드 캠프를 기다린다는 말을 들었을 때, 핸드메이드 캠프를 기획하고 지속사업으로 선택한 것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미성 대표의 설명이다.

앞으로 드림핸즈는 반려동물의 문화와 핸드메이드를 융합해 반려동물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구상할 예정이다. 또한 핸드메이드 분야를 대중화해 남녀노소, 장애인 혹은 비장애인 누구나 직업의 다양화를 이해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핸드메이드 분야를 대중화시켜 핸드메이드도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는 것도 드림핸즈의 목표 중 하나이다.



새로운 아이템 개발로 수익창출을 하고 핸드메이드 캠프 같은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해 핸드메이드하면 드림핸즈라는 팀이 떠오르도록 하고 싶습니다.





E-모빌리티를 대중화를 위해 조합을 설립하다 ‘딤메이커엔지니어스 협동조합’

이공계 대학생들, E-모빌리티 사업을 시작하다

“높은 산은 혼자서 정상에 다다르기 무척이나 어려우나 함께라면 정상을 정할 수 있다.”

장한주 대표가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 했다. 장한주 대표의 말에는 협동조합의 존재 이유라 담겨 있다. 평소 E-모빌리티에 관심이 높았던 장한주 대표는 다양한 튜닝, 제작, 개발 등의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어 개발 전문성이 우수하며 다양한 고객 응대, 사무처리 등의 역량이 있어 전 분야에 두루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장한주 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전공의 이공계 대학에 재학 중이던 조합원들이 만나 이루어진 딤 메이커 엔지니어스팀은 대학생들이 모인 팀으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미디어, 제작, 개발 등의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다.

지원사업을 통해 E-모빌리티 프로토타입을 만든다

이들이 무척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딤 메이커 엔지니어스는 잘 알려지지 않은 E-모빌리티를 시중에 확산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잘 알려진 전통 키보드 외에도 다양한 E-모빌리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고 이를 대중화 시키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다.

다양한 IT 제품과 실생활에 사용하는 제품들의 구조 등을 알리고 싶었던 딤 메이커 엔지니어스는 협동조합의 설립을 계획했다.

법인명 딤메이커엔지니어스 협동조합
대표 장한주
주요사업 E-모빌리티 제작 및 교육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하지만 조합 설립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수많은 행정업무와 불안정한 수익구조는 딤 메이커 엔지니어스를 힘들게 했다.

고민 끝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딤 메이커 엔지니어스는 지원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하던 제품의 프로토타입이 만들 수 있었다.

또한 자금, 인력 부족과 팀원 소통 그리고 수익구조 등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조금씩 개선됐다.

대중의 IT 제품 이해도 상승 도울 것

딤 메이커 엔지니어스의 주요 사업 모델은 새로운 E-모빌리티 제품 제작과 제작 키트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E-모빌리티를 활성화시킬 교육 관련 모델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제품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며, 프로토타입 3종을 만들어 개선 사항을 파악하고 발전시키고 딤 메이커 엔지니어스는 앞으로 다양한 E-모빌리티를 대중에게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도록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양한 IT 제품과 실생활에 사용하는 제품의 구조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길거리에서 저희 제품이 보이고 관련 동호회가 생겼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양한 E-모빌리티를 대중에게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도록 돕고 싶어요. 또 다양한 IT 제품과 실생활에 사용하는 제품의 구조를 대중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습니다. 길거리에서 저희 제품이 보이고 관련 동호회가 생겼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홍보영상을 제작하다 ‘리플레닛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기업과 예술인들의 홍보영상을 만든다

“영상콘텐츠를 통해 사회적경제, 그리고 각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가진 저마다의 소셜 미션이 보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리플레닛은 지난 2021년 3월 이동환 대표를 주축으로 카피라이팅과 영상 시나리오를 맡고 있는 권인걸 이사, 영상 제작과 영상 교육 담당의 김호석 이사, 영상 기획과 편집 총괄 담당의 이상진 이사, 현 세무사이면서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김용태 감사 등으로 이뤄졌다.

주요 사업 모델은 크게 영상제작과 마케팅 및 홍보가 있다. 영상제작 사업은 각 조합원이 거래해왔거나, 영업활동을 통해 제작하게 된 거래처의 영상작업을 할 경우 조합원 간의 역량에 맞는 분업, 협업을 통해 영상제작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 기업과 예술인들의 홍보 영상을 제작, 배포해 그들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리플레닛은 장기 프로젝트로 △사회적경제 기업가 릴레이 인터뷰 △지역 예술인 콘텐츠 △인디밴드 뮤직비디오 제작 콘텐츠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수익보다는 리플레닛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외주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수익으로 연결도 가능하다.

마케팅과 홍보사업은 영상 제작이 완료된 후, 조합에 소속된 마케터의 역량으로 영상 홍보 및 마케팅(노출) 방법을 교육해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제작하는 기업마다 영상제작 방법 및 마케팅 교육을 병행하되,

법인명 리플레닛 협동조합
대표 이동환
주요사업 영상제작 및 마케팅, 홍보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해당 내용은 기업의 요청에 따라 협의 하에 진행한다. 이외에도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조합원은 각자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각자의 영역에 대한 정보 교환(방송사, 교육계, 일반 상업마케팅 근무 등 다양한 영역) 및 교육을 통해 조합원 모두의 역량 증가를 도모하고자 한다. 서로의 편집 방식, 마케팅 방법 등을 교육해주고, 조합원들의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양질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각자의 촬영, 편집 기법과 스타일을 월 1회 이상 서로 공유, 교육하며 서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이다.

기업들의 마케팅 자립을 위해 뭉치다

리플레닛은 각자 다른 분야에서 영상을 제작하던 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느꼈던 문제점 때문에 창업을 결심하게 됐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바로 ‘기업들이 영상 마케팅을 잘못 활용한다’는 점이었다.

이에 리플레닛은 영상 제작뿐만 아니라, 올바른 콘텐츠를 기획하고 이를 활용해 기업들이 마케팅 자립을 할 수 있게 하고자 모이게 됐다고 했다.

“그 중에서도 협동조합을 선택한 이유는 각자의 영리 활동을 진행하면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포트폴리오와 네트워크를 연계하며 진행하기에 협동조합이 적합하고, 지속가능성 또한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동환 대표의 말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로의 진입이 생각보다 힘들었다고 했다. 기존 각 구성원들이 속해있던 네트워크와는 다른색을 띄고 있기에 진입의 방법에 대해 고민했고, 많은 멘토들의 조언과 공모전, 포트폴리오를 통한 영업 활동으로 다행히 네트워크의 진입방법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역 기반 예술인들을 대중에게 알리다

현재 리플레닛은 멘토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과 소셜 미션을 구체화한 상태이며, 현재 협동조합 법인 설립을 위한 서류작성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 과정에서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가로서 업무를 대하는 방식과 조합 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조합을 운영 하는데 필요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이에 △강동구 지역특성화사업인 ‘공동체정원 작은영화만들기’ 영상 제작 강사 진행 △강원도 영월군 30초 광고제



시간이 흘러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협동조합, 미디어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가치를 담기 위해 보다 냉철하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참여 및 입상 △현대대용 ‘시빌’ 공연 영상 제작 △서대문구 ‘마을산책협동조합’ 협업 진행 등의 사업 성과를 이룬 상태다.

이 대표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영상은 해당 기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활성화는 그들이 가진 소셜 미션 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예술인들의 포트폴리오, 홍보 영상을 통해 지역 기반 예술인들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각박한 사회 속에 ‘아직 우리 사회는 살만하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고 싶다는 리플레닛은 적극적인 콘텐츠들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지만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전해져 우리 사회가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지역 청년들이 주도하는 미디어 시장을 만들다 ‘보령시민 미디어 협동조합’

지역 청년들이 모여 지역의 이야기를 만들다

“지역(로컬)의 이야기가 담긴 미디어 콘텐츠를 지역 청년의 손과 머리로 만들어 냈어요.” 보령시민미디어 협동조합(이하 ‘루디’) 유병운 대표의 말이다.

루디는 2021년 초반부터 지역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는 미디어 시장을 구축하고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온·오프라인 마케터, 사진·영상 작가, 공연예술가 등이 모여 서비스업부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각 디자인업, 영상 제작업, 공연 예술, 이벤트 기획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이 창업팀을 구성하게 된 이유는 특별하다. 체험 관광 관련 사업단에서 근무 하던 중 유명 관광지과 도심 생활권과의 큰 격차를 느꼈고, 관광지에서 소비하는 미디어 관련 사업의 막대한 예산 또한 모두 타지역 용역으로 돌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미디어 콘텐츠 관련 창업이나 업종에 일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 즈음 각 작가님과 강 팀장님을 만나 팀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여러 가지 난항 있었지만 해내

막상 팀을 구성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 유병운 대표는 공익과 수익의 경계에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한다. 결국, 지원사업의 예산 없이는 공익적인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느껴 수차례 여러 사업에 지원했으나 연초에는 팀명만 있을 뿐 아무것도 실행하지 못했다.

법인명 보령시민 미디어 협동조합
대표 유병운
주요사업 미디어 콘텐츠 제작
설립연월 2021년 7월
소재지 충청남도 보령시



처음 팀을 구성했을 때 내세운 목표는 ‘지역이 먼저다’였어요.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 내 후배들과 자손들이 굳이 타지역에 가지 않고서도 다양한 직업과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던 중 청년 협동조합창업 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이에 선정돼 협동조합 설립 및 사업 구체화 등에 대한 예산과 교육, 멘토링 등의 지원을 받았다. 이후 발기인 대회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거쳐 사업자를 등록하기까지 딱 두 달의 시간이 걸렸다.

현재 루디는 공예주간(갤러리72) 행사 영상 제작을 완료한 상태며, 보령시축제관광재단의 DMO(지역관광추진조직) 사업 홍보 및 홈페이지 디자인 개발 용역과 보령시농생회의 ‘해변 시낭송회’ 제작, 보령 지역 자활센터와 업무 협약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지역 상점 홍보 영상 및 지원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창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다고 토로한다.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메인 사업을 결정하는 일에서 가장 고민이 많아요. 모두 함께 사업을 하려면 예산 지원이 가능한 사업에 선정돼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지요. 신생 기업이기에 용역 단가 싸움에도 치이고 예산액에도 차이가 있어 업무 로드가 상당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유병운 대표의 말이다.

반면, 창업 준비 과정 중에 보람될 일도 많았다. 진 대표는 “공예주간 촬영 때 정식 허가와 신고를 마친 드론과 영상

촬영 장비 등을 가지고 팀원 4명이 현장에 나갔다”며 “2명 이상 가면 최저 시급 수준인 촬영이었지만 다 같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보령에도 이런 일 하는 청년들이 있다’, ‘장하다’며 동네 어른들께서 칭찬을 많이 해주었다”고 전했다.

청년들이 주도한 지역 사업, 성공의 본보기 되길 희망

루디는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자문을 많이 얻었고 무엇보다 팀과 사업을 겨냥한 맞춤형 교육과 멘토링이 도움이 됐다고 했다. 특히 실전에서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는 팁 등을 얻을 수 있어 좋았다는 평이다.

이를 통해 루디는 스튜디오를 갖춘 사무실을 오픈했고, 보령지역 자활센터와도 지역 협력업체로서 업무를 협의 중인 상황이다.

유병운 대표는 “처음 팀을 구성했을 때 내세운 목표는 ‘지역이 먼저다’였다”며 “내가 나고 자란 고향에서 내 후배들과 자손들이 굳이 타지역에 가지 않고서도 다양한 직업과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을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주도한 사업이 지역에서 성공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다는 게 유 대표의 포부다.



플랫폼 기반, 사진·영상·디자인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다 '비주얼랩협동조합'

협업하여 직접 소통하는 전문가 크루

언택트(Untact)를 넘은 온택트(Ontact)의 시대는 웹사이트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홈페이지와 온라인 플랫폼은 가상의 세계 속에서 개인 또는 비즈니스가 시작되는 거점이다. 이러한 홈페이지와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된 사진과 다양한 디자인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마케팅 수단이 된다.

사진, 영상, 디자인 기획, 제작을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는 비주얼랩협동조합은 2020년 찾아가는 협동조합 교육을 시작으로 팀 조직을 개편하며 현재의 회사를 설립했다.

비주얼랩협동조합은 창작자가 협업하여 직접 소통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다양한 분야에 도전 의지를 가진 젊고 감각적인 청년과 전문직 창작자를 고용·양성해 플랫폼 시대에 걸맞는 콘텐츠 제작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자립하고 새로운 창작에 도전하도록 돕는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어울리는 브랜드를 제안하여 사업 확장에 기여하고 있다.

창작자가 주도적하는 회사를 설립하다

비주얼랩협동조합은 크몽과 네이버 플랫폼 마켓을 활용하여 기존 기업자들의 사업 확장을 돕고, 협동조합지원센터, 나라장터 공개 입찰,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기업들을 만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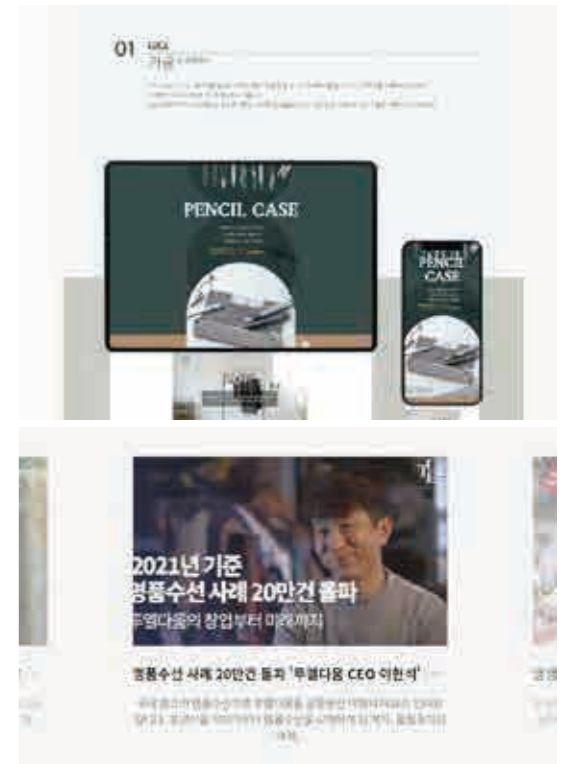
사진촬영, 광고 기획을 진행하는 윤석구 대표와 뮤직비디오 디렉터 김세

법인명 비주얼랩협동조합
대표 윤석구
주요사업 사진, 영상, 디자인 기획, 제작
설립연월 2021년 8월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진, 상세페이지·패키지디자인 디자이너 김지은, 감사·재무 관리 전문가 태성원, 밀키트 메뉴 개발·푸드 촬영 스타일링 박상욱, 영상촬영·사진행사 촬영 황준영 등 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합이 한층 성장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윤석구 대표는 지난 10년간 신세계, 코스트코 같은 대기업 하청 촬영을 하며 사회적 가치와 경제활동에 대해 고민해 왔다. 그러던 중 뒤늦게 입학한 사진전공대학에서 20대 청년들과 창작 활동을 하며 다시 한번 사진에 대한 꿈을 키웠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전문직 창작자가 졸업 후 받는 처우에 실망하여 창작자가 회사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협동조합을 기획하던 윤 팀장은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했다.

“협동조합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 조합원 구성이 첫 번째였어요. 어렵게 조합원을 구성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지면서 서류 작업을 하거나 회의를 진행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사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하고요”



청년, 전문직, 창작자가 자립하는 생태계를 만든다

처음 만들어 보는 협동조합이라 어려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비주얼랩협동조합은 창작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와 창작을 위한 복지를 목표로 기업과 창작자가 협업하는 사업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지금도 바쁘게 뛰고 있다.

“어려움 상황이 자꾸 발생하고 있지만 지원사업으로 창업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업 지원금으로 홈페이지를 만들고, 창업 첫 달의 월세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렌탈하면서 저희의 사업을 조금이나마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윤석구 대표에 따르면 창업은 현재 70%정도 진행된 상태다.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지만 가치있는 일을 위해 조합원들이 믿고 따라주는 만큼 비주얼랩협동조합의 미래 계획을 위해 경주하고 있다.

실제 비주얼랩협동조합을 찾는 새로운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 협동조합을 포함한 스타트업 기업들도 비주얼랩협동조합을 찾기 시작하면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SNS채널 확장을 진행 중이다.

비주얼랩협동조합은 이를 발판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혹은 청년 창업자와 중소기업이 플랫폼 시장에 안정적으

모든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협동조합은 진행할수록 조합원들과 감정이 생기고, 부딪치고, 변수가 생기죠. 그럼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를 각자에게 질문하고 솔직한 답을 조합원들과 함께 갈구한다면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시기에 모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비주얼적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청년고용과 전문직, 창작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다.



지역 기반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다 '스테이대구 협동조합'

청년과 취약계층이 특화된 일자리 직무를 살리다

“지역 내 청년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도원대 대표의 말이다.

스테이 대구는 청년과 취약계층이 특화된 일자리 영역 직무를 살려 지역 기반 문화예술 콘텐츠(경험)와 서비스(공간) 제공을 함으로써 내·외국인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3년 이상 함께 경험을 해왔던 팀원들이 뭉쳤다. 도원대 팀장은 기획 및 디자인을 담당했으며, 정윤희 팀원은 온오프라인 마케팅 및 다국어 서비스를, 팽고은 팀원은 회계 및 인사를 담당했다.

이들은 수도권 외 지역의 부족한 문화예술 콘텐츠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내외국인에게 대구 중·남구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도원대 팀장은 “수도권으로 2030 청년층 유출의 심화와 지역 문화예술을 활용한 양질의 콘텐츠 부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다양한 일자리가 부족했다”면서 “그동안의 경험과 인프라를 통해 지역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창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엔 구성원들의 도움 커

하지만 창업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계획대로 사업의 방향성을 잡고 팀원을 구성해 오랜 시간 설득과 준비를 통한 행정적 절차를 준비했지만 사업지 공간 주변 지역주민들과의 의견충돌과 문제해결에 관련된 애로사항

법인명 스테이대구 협동조합
대표 도원대
주요사업 공간대여업, 서비스업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대구광역시 중구

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사업에 진행하기 앞서 조금 더 현실적인 방향성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 과정과 멘토링 등 ‘사회적경제’에 관한 공부를 피부로 와닿으며 경험하고자 지원사업에 참여하게 됐다고 했다.

사업 시작 전에는 조직 구성을 탄탄하게 함으로써 청년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직무의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과 회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현재 창업 과정은 30% 정도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지속가능하며 성공적인 궤도에 안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노력을 끊임없이 확인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스테이 대구의 사업은 사업지 주변의 이슈로 인해 진행 과정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180도 다른 방식이 아닌 기존 계획의 큰 틀은 지키며 보완을 통해 점차 성장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해 수정과 보완의 과정을 거치며 준비 중이다.

도원대 팀장은 “급하게 준비하다보니 일이 조금 지체되었다. 주변 환경적인 이슈, 행정적인 절차, 회계방식 등 톱니바퀴가 모두 맞아야 사업의 성공궤도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현재 스테이 대구는 청년과 취약계층의 다양한 일자리 직무와 지역 특성에 알맞은 콘텐츠를 발굴,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팀원 모두 노력 중이다.

“각 분야에서 장점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뜻을 모아 흰 도화지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이 순탄치는 않지만 지역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표와 뜻이 있기 때문에 밝은 미래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돼 늘 뿌듯합니다.”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다가간다

무엇보다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주변 사람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 상생하는 과정을 배웠다는 스테이 대구는 지역 내 청년 취약계층의 다양한 일자리 직무를 활성화에 대한 현실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었다고 자랑한다.

이를 통해 오랜 시간 고민해오던 비즈니스 모델 방식을 뜻이 같은 팀원들과 구체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며, 성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스테이 대구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코로나 이후 변화된 세상에서 지역에
내외국인을 유입시키며 국가의 일방적인
지원을 통한 방식이 아닌 자생력을
갖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은퇴자를 위한 실내목공인테리어 체험교육을 진행하다 '와우하우스 협동조합'

도시 은퇴자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다

2021년 11월 협동조합 창립총회를 마친 와우하우스 협동조합은 도시 은퇴자를 위한 실내목공인테리어 체험교육을 통한 창의공작소를 운영하고, 마을 만들기, 집고치기 사업 및 인테리어 소품 제작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조합이다.

목수이자 공예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남상철 팀장을 필두로 농·산·어촌에 기반을 둔 조합원 구성원이 건축전문가, 목공예체험전문가 및 예술가로 구성되어 김미정, 전범수, 김용구, 남상영, 김원찬 5명의 팀원이 메이커스페이스공간 운영 및 모험놀이터 제작, 레지던스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도시은퇴자를 위한 실내목공인테리어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창의공작소, 모험놀이터, 트리하우스 등을 운영하며 집고치기 사업 및 인테리어 소품 제작 판매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사업의 다양화를 모색하다

와우하우스 김미정 팀원은 오래 전부터 유한회사 내일드림을 운영하고 있었다. 내일드림은 숲과 강 바다 자연을 활용하여 양질의 체험교육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 사회적기업이다.

와우하우스의 조합원들은 내일드림과 트리하우스 제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고 그 결과, 분업을 통해 공사 기간 단축과 예산절감 등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법인명 와우하우스 협동조합
대표 남상철
주요사업 창의공작소운영,
모험놀이터 트리하우스,
인테리어 소품 제작 판매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전라남도 나주시

기존 개인사업자로 활동을 벌이고 있던 조합원들은 머리를 맞대고 모두 힘을 모아 협동조합 설립한다면 집중력 있는 영업 전략 수립과 사업 방향을 다양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조합원들은 그동안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며 각자의 사업에 국한되어 광역 사업 진출 곤란 및 동업증 신규 창업으로 인한 고객 나눠먹기로 애로 사항이 컸습니다.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우리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수립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상철 대표의 말이다.

와우하우스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적극적인 조합설립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3일 창립총회를 마쳤다. 올해 안에 등기를 마친다면 집중력 있는 영업전략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지원금은 열정적으로 조합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설립에 관한 등기업무비로 활용하고, 선진지 견학 출장을 통해 사업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지원기관의 도움으로 지원금으로 사업을 위한 공동 목공기계(콤푸레서, 테이블쏘, 슬라이딩각도기)를 구입하면서 팀원들 사기가 높아졌다.

조합 설립을 진행하며 어려운 점도 있었다. 조합원들이 각기 다른 사업을 진행해왔던 만큼 각자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이 예상 외로 쉽지 않았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끊임없는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사업을 통합하고 범위를 좁혀 가는 과정에서 각종 아이디어가 샘솟고 실현 가능한 사업 아이템들이 떠올랐다.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조합될 것

“이 모든 과정에서 지원기관인 코끼리협동조합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원사업 참여하며 트리하우스 모듈생산, 반려동물과 같이 가는 펫 하우스 제작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냈으며 지원사업 비용으로 참여한 단합대회에서 방풍림 나무를 보고 즉석해서 모험놀이터 아이디어 구상해 실제로 사업을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와우하우스는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즉석에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사업계획으로 연결되는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현재 와우하우스는 코끼리협동조합과 연대해 다양한 사업



함께 협동조합을 설립한다면 우리만의 차별화된 방안을 수립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의 지자체의 유희지나 공원 등에 시범사업으로 모험놀이터를 제작·설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와우하우스는 자신들의 협동조합 설립이 영리회사의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선의의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액·소규모로 시공되는 집고치기, 모험놀이터 제작 등 사업에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자활을 돕고,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조합이 되고 싶다는 와우하우스의 큰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디자인, 목공, IT 관련 청년 프리랜서 공동 작업을 위한 협동조합을 만들다 ‘협동조합 하이크리에이티브’

공동작업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다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은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있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다양한 분들이 더 많이 지원하여 좋은 제도를 잘 활용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적이 디자인 제품을 만들어 보자는 각오로 디자인 및 목공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하이크리에이티브는 2021년 1월부터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이미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이명수 대표는 다소 큰 프로젝트를 마태 되면 종종 일이 벅차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이에 같은 목적으로 함께 사업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과 함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이명수 대표는 더 큰 프로젝트에 도전하기 위해 공동의 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협동조합 창업을 생각했다.

지원사업 통해 멘토링, 설립 등 도움 받아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던 하이크리에이티브팀은 조합 설립과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하이크리에이티브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을 통하여 협동조합에 설립 과정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하고, 교육과 멘토링 등을 통해 원활하게 조합 설립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설립을 위한 법무 비용과 임대료 지원 등도 하이크리에이티브에 큰 도움이 되었다.

법인명 협동조합 하이크리에이티브
대표 이명수
주요사업 목공, 디자인, 웹
설립연월 2021년 7월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멘토링 및 설립에 대한 도움을 받길 원했습니다. 협동조합 전문가 분들의 멘토링과 목원대 산학협력단에서 지원을 해 준 덕분에 큰 지장 없이 조합 설립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의 수익 향상 위해 노력할 것

현재 하이크리에이티브는 멘토링을 받으면서 법인 설립을 완료했고, 11월부터 새 작업실 부지를 계약해 입주한 상태다.

“처음에는 협동조합 설립에 대해 잘 몰랐지만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 조합 설립 과정을 진행하면서 하이크리에이티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아 가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견이 잘 맞고 배분 등의 상의에 있어서 큰 문제없이 모두가 원하는 바를 잘 도출하고 있어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이크리에이티브는 청년 등이 창업하는데 지원사업이 무엇보다 큰 도움이 된다고 하며 도움이 필요한 기업들이 꼭 참여해 보길 권하며 자신들의 창업을 위해 노력해 준 많은 이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하이크리에이티브는 앞으로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신들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발판으로 도움이 필요한 크리에이터들에게 경제적인 부분 등 다양한 도움을 주기 위해 애쓸 예정이다.



협동조합 설립에 있어서 가질 수 있는 고민이나 애로사항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은 청년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데 있어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지역 청년, 여성, 아이들을 위한 길잡이가 되다 ‘(가칭)장수청년 사회적협동조합’

장수의 젊은이들, 움직이다

전북 장수군은 인구 소멸 위기지역이다. 지역 사람들은 도시에 청년이 없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실제 지역에 있는 청년들에 대한 평가는 언제나 야박했다.

“아마도 아주 오래전부터 장수에 남지 말고 멀리 가서 배우고, 성장하라고 했던 어른들의 말씀 때문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고향은 실패했거나 실 때 쫓 내려오라는 오랜 가치관 때문이기도 하구요. 우리는 지역 안에서 저희의 가치를 더욱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반항하듯이 합심해서 똑똑 비영리단체 장수청년산사공을 만들었지요.”

장수청년산사공은 인생을 향해에 비유한다면, 청년 개개인 모두 한명의 사공으로 각자의 이유로 장수군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고, 높은 고도의 장수군에서 다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산에 사는 사공들, 산으로 온 사공들이라는 뜻을 담아 만들어진 단체이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부정적으로만 들릴 수 있지만, 배를 산으로도 옮겨 놓을 수 있을 만큼 에너지 넘치고,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장수청년산사공은 ‘젊은’ 조직의 이름이 되었다.

청년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든다

산사공은 조직 결성 후 청년사업, 공유경제 활성화 시범 사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다. 하지만 비영리단체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고 사업 성격 또한 영리법인으로는 적합

팀명 (가칭)장수청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김민지
주요사업 아동, 청년, 여성 관련 사회적 사업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전라북도 장수군

하지 않기에 고민이 깊었다. 그러던 중, 사회적협동조합 혹은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컨설팅을 받았고 때마침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지원을 맡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늘 산사공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부분에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팀 창업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사회 내 경쟁자 구도나 조합에 맞는 청년 관련 사업 등에 대해 많은 조언과 자료들을 받았다.

서류작업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주었으며, 비영리단체와 개인의 신분으로 강사로 지급 등에 있어서 원천징수 등 세금과 관련한 어려움도 연합회의 도움으로 잘 해결할 수 있었다. 비영리단체로 늘 사무용품 등 물품 부족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지원사업비로 해결할 수 있어 산사공을 조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현재 산사공은 창립총회를 완료한 상태로 설립인가 신청서 작성 중에 있으며 10월 중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으로 사업 확장성을 확보하다

산사공은 창업준비 과정에서 지원사업 담당 코치의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상담을 받았다. 조합이 놓친 부분들을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순간들은 산사공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단이 되었다.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사업들에 밀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창립총회도 마쳤고, 설립인가 신청서도 갈무리 되어 가고 있어요. 하나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껴요.”

장수청년산사공은 2021년 공유경제활성화시범사업으로 조성될 장수군 장계면의 아이온센터를 중점적으로 운영하며,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공간 조성 및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현재는 공간 리모델링 중에 있다.

또한 장수군 장수읍에서 장수가공제품판매홍보장을 임대 받아, 청년들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장수가공제품판매홍보장에서는 청년들이 직접 창업을 해보기 전 식음료 메뉴 판매 실습장, 개발제품 전시 홍보장, 청년들의 창업스터디 공간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산사공은 사업을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서 더 많고, 다양한 사업으로의 확장성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한다. 같은 꿈과 목표를 가진 이들이



우리 장수청년사회적협동조합은 청년, 여성, 아이들의 교육 및 복지,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에 부족한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의 청년과 여성의 성장과 자립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지역살이를 만들고자 한다.

하나로 모인 만큼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지역 내에서 건강한 기업으로 자리 잡는 것이 산사공의 목표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아동들에게는 행복하고 즐거운 방과 후 생활을 제공하며 우리가 직면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에 앞장서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조합의 설립을 통해 지역 청년으로서의 권익에 앞장 서며, 능력 있는 청년으로 인정받아 지역 내 청년들이 더 이상 양육과 교육, 직업문제로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도와 공정하고 올바르게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한다.

MEMORY



우리가 만드는 것이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GN STUDIO'

'즐거운 어른되기'를 돕는 협동조합

GN STUDIO는 현대 성인들이 추구하는 재미(Fun), 유치함(Childish), 판타지(Fantasy) 등의 가치가 대중문화의 하나로 표현되고 있는 키덜트 콘셉트를 바탕으로, 미니어처라는 주요사업 모델을 수립하고 수작업을 통해 제품을 직접 만들어 온라인에 제품화 하고 있다.

“우리 팀은 GN STUDIO 협동조합을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미션은 키덜트 사업의 기반으로 교육과 판매 사업이에요. 성인들의 가벼운 일탈 혹은 다시 찾고 싶은 순진무구함을 바탕으로 미니어처를 만들고 제품화해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GN STUDIO의 임중현 대표의 설명이다.

주 사업 분야는 제품의 제조와 온라인 판매라는 간단한 말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 보면 GN STUDIO가 판매하는 것은 아이들과 같이 순수한 어른들의 동심, 혹은 즐거운 어른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 확장성 확보를 위해 지원사업에 참여하다

처음 GN STUDIO라는 이름을 걸고 사업을 시작했지만 임중현 대표는 개인의 힘으로는 사업확장성을 확보하는 것이 힘들다고 판단했다.

고민하던 그는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다양한 변화를 통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다양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사업구조로 변화하고 싶다고 생각

팀명	GN STUDIO
대표	임중현
주요사업	키덜트 제품 제조 및 판매
설립연월	2021년 11월
소재지	광주광역시 남구

했어요.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며 협동조합 설립의 필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며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나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또 구축되고 있어 사업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임중현 대표의 말이다.

물론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의견 차이, 생각의 차이를 채우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대면을 통해 해결해야 할 일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되기도 했으며, 잘 모이지 못하는 만큼 역할분담의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아 애를 먹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며 머릿 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실행하며 무엇보다 큰 보람을 느끼고 있다. 또한, 사업을 통해 여러가지를 배우고, 한층 성장하고 있는 만큼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까지 완성해 보고 싶다는 의지가 더욱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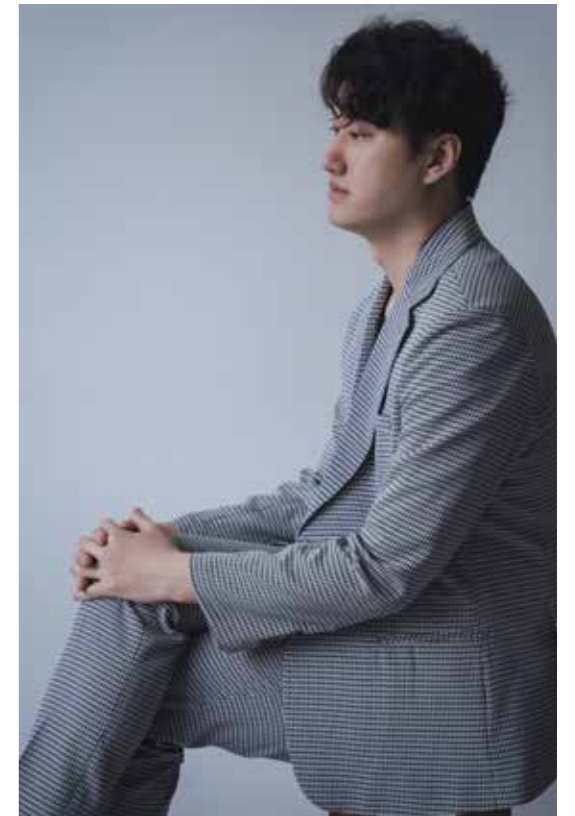
원하는 것을 구축해 나가는 성취감, 성장의 힘이 되다

현재 GN STUDIO는 자신들만의 상품을 설계, 제작하고 샘플 완성 단계를 밟고 있다.

아직까지 상품 판매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지만 하나하나 내가 원하던 것을 구축하는 성취감은 GN STUDIO를 움직이는 힘이 되고 있다.

창업 시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인 서류 작성과 회계 운영에 대한 문제는 지원기관인 코끼리 협동조합이 도움으로 능숙해지고 있다.

지원 사업을 통해 머속으로만 생각했던 사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는 GN STUDIO는 사업의 구조와 운영 그리고 마케팅에 대한 내용도 지원사업을 통해 배울 수 있었기에 앞으로의 조합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은 '꿈이 현실이 되게 도와주는 사다리'입니다.

앞으로 예술의 도시 광주에서 즐겁고 재미있는 볼거리가 생기길 바랍니다.

우리 팀이 그러한 영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또 합류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소상공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모델을 만들다 ‘(가칭)인천청년 협동조합 파랑새’

소상공인 청소년과 지역을 위해 나서다

“사회적 가치는 화합과 연대로 도출된다고 생각합니다! 협동조합은 시작부터 이런 과정들을 거쳐 출발하기 때문에 느리지만 강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인천에서 멋진 사회적 모델을 만들어갈 파랑새를 응원해주세요!”

(가칭)인천청년협동조합 파랑새(이하 '파랑새')는 소상공인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모인 조직이다. 2021년 1년부터 본격적인 모임을 시작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을 위해 부단한 준비를 하고 있다.

총 3명의 청년이 모여 다양한 일을 꾸미고 있는 파랑새는 심리학과 교육을 전문분야로 하는 허정문 팀장을 중심으로 디자인을 맡은 이영지 팀원, 홍보 및 마케팅 및 체험교육을 맡은 문채린 회원이 자신들이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다.

최근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의 확산,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년 소상공인들도 마찬가지다.

파랑새는 이러한 소상공인 청년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계획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의 특색에 어울리는 로컬 문화기획 등 다양한 방안을 기획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사업 통해 조합 설립을 위한 전문 컨설팅 받아

파랑새의 팀원들은 예비 사회적기업 교육에 참가했던 동기팀이 모여 만들었다.

교육을 마친 후 각자의 창업에 나섰던 이들은 실전에서 몸을 부딪치며 마

팀명 (가칭)인천청년협동조합 파랑새
대표 허정문
주요사업 브랜딩, 문화기획
설립연월 준비중
소재지 -

케팅과 판로 개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시 뭉친 이들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여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으로 조합 설립을 추진했다.

“팀원간 의견을 조율하고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원사업은 협동조합에 대한 더욱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허정문 대표의 말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낯선 조직체계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 지원사업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어 제주의 로컬 문화를 살펴보고 창업 아이템 구조화에 반영할 수 있었다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

청년 중심 로컬문화 기획 통해 청년 소상공인 도움 것

여전히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서 적절한 솔루션을 도출하는 과정, 공통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지만, 좋은 아이템을 찾아내고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해 다양한 예비 사업들을 진행해보는 과정은 무엇보다 보람 있었다.

로컬 문화와 소상공인 지원 모델이 분리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두 가지를 연계한 사업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도 새로웠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며 조합의 설립 신청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했던 파랑새는 현재 조합원을 모집하여 설립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점검이 끝나면 정식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파랑새 팀이 점차 체계화되어가고 있고 조직 형태가 갖추어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 인가가 나게 되면 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파랑새는 조합 설립이 완료되면 먼저 청년 중심 로컬문화 기획이 지역 특유의 문화를 잘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러한 문화 기획 과정에서 소상공인들과 협업하여 인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미있는 홍보 모델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파랑새팀이 점차 체계화되어가고 있고 조직 형태가 갖추어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 인가가 나게 되면 더 적극적인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다름의 시너지 우리의 시작점

2021년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 사례집

발행인: 정현곤

발행일: 2022년 1월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6~8층

대표전화: 031-697-7700

팩스: 031-697-7853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

ISBN: 979-11-92212-06-7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책자의 내용 및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